

DSP 2008-3-110

2008

하계대학총장세미나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 일 시 : 2008. 7. 2(수) ~ 7. 4(금)
- 장 소 : 쉨비치호텔(강원도 양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일 정 표 -

제 1 일		7. 2(수)
시 간	일 정	장 소
14:30~15:00	등 록	로 비
15:00~15:10	개회식 회장인사(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그랜드볼룸
15:10~16:10	기조강연 전환기를 맞고 있는 오늘의 대학을 말한다(서남표 KAIST 총장)	그랜드볼룸
16:10~16:30	Coffee Break	로 비
16:30~17:30	주제발표 I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이기수 고려대 총장)	그랜드볼룸
17:30~18:30	휴 식	
18:30~20:00	만찬 (김진선 강원도지사 초청)	그랜드볼룸

제 2 일		7. 3(목)
시 간	일 정	장 소
07:00~09:00	조 식	엘꼬시네로
09:00~10:20	주제발표 II 일본 대학의 개혁 사례(가외구치 기요후미 리츠메이칸대 총장)	그랜드볼룸
10:20~10:40	Coffee Break	로 비
10:40~11:40	주제발표 III 대학에서의 인성교육과 인문학(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그랜드볼룸
12:00~13:30	오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초청)	엘꼬시네로
13:30~14:50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	그랜드볼룸
14:50~15:10	Coffee Break	로 비
15:10~16:10	분과 세미나	그 레 코
	국립대 분과 국립대학 법인화(조무제 울산과기대 총장)	그랜드볼룸
	사립대 분과 사립대학의 현안과 전망(홍승용 인하대 총장)	그랜드볼룸
16:10~17:10	휴 식	
17:10~18:00	초청강연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랜드볼룸
18:00~19:30	만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초청)	그랜드볼룸
19:30~20:30	G. Verdi Opera <춘희> La Traviata	그랜드볼룸

제 3 일

7. 4(금)

시간	일 정	장 소
07:30-08:3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조찬	그랜드볼룸
08:00-09:50	임시총회	그랜드볼룸
09:50-10:40	설립별 특성별 총장협의회	
10:40-11:00	전체 세미나 결과 종합	그랜드볼룸
11:00	폐회	그랜드볼룸

- 목 차 -

개 회 사	1
-------------	---

기조강연 : 전환기를 맞고 있는 오늘의 대학을 말한다

주제발표

I.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5
II. 일본의 사립대학교 개혁 과제와 리츠메이칸의 경험	25
III. 대학 교육에서의 인성교육과 인문학	57

분과세미나

- 국·공립대 분과 : 국립대학 법인화의 과제
- 사립대 분과 : 사립대학의 현안과 전망

초청강연 :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정책 참고자료

I.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81
II.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계획	107

개 회 사

손 병 두(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개 회 사

우리는 해마다 초여름에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회원 대학 총장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여러 회원대학 총장님들을 이곳 쏘 비치에서 뵙게 되니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얼굴을 마주하고, 가슴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함께 오신 사모님과 더불어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총장님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하계세미나와 정책포럼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조개혁’, ‘다운사이징’, ‘특성화’,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우리는 고등교육 발전이 국가 경쟁력 제고의 기본 전제임을 인식하고 고등교육 정책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7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현안 의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2005년 7월 대구에서 개최된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우리 협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다시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하계 세미나에서도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을 화두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회원대학이 저마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는 회원대학 간 협력하면서 경쟁해야 할 선의의 경쟁 체제도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과제임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경쟁력 강화는 개별 대학의 존립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무한 경쟁 지구촌 사회의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국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한 가지 방안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공 사례도 실패 사례도 모두가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 공유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학경쟁력이 대학사회의 화두로 널리 회자되는 현실적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경쟁력이 대학사회에서 널리 논의되는 보다 근원적 이유는 대학이야말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가장 중요시되는 인적·지적·문화적 자산(human, intellectual, cultural capital)의 집산지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초국적 기업과 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공급하는 대학을 가진 국가는 비교우위의 국가경쟁력을 자랑할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컨대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World Campus Town” 프로그램은 세계 유수의 대학을 유치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단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 하듯,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은 대학혁신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들은 ‘선택과 집중’을 모토로 대학의 근원적인 개혁 내지 전환을 꾀하고 있고, 후발국가 역시 대학의 초고속 발전과 구조 조정을 위해 각종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초일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경쟁력 있는 지식을 많이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핵심 지식 인프라인 대학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써 중요시되는 것은 당연지사야 아닐 수 없습니다. 노다카는 불확실한 시장경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지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있는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창조하는 중심기관이 대학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발전에 필요한 가치 있는 지식이 탐구되고 창조되는 곳이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국가·인종·종교·빈부의 벽을 넘어 다양한 가치와 새로운 문화를 창조·보급함으로써 인류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들은 우리의 것은 세계적인 것으로, 지구촌 시대 다른 외국의 것은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문화 창출의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대학은 모든 사람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고, 이른바 인류의 문화적 이상을 실현하는 굴뚝 없는 공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대학 총장님

인적·지적·문화적 자산의 집산지로서 대학은 다른 기관이 가질 수 없는 가장 자유로운 조직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가장 자유로울 때 가장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은 당연지사입니다. 진리 탐구를 위한 어떠한 실험도 보장되는 곳이 대학입니다. 또한 무제한적인 사고와 실험정신을 통해 얻은 독특한 경험은 국제 경쟁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 배출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누리는 미국의 대학은 미국 사회의 발전과 자유 시장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 정부의 대학자율 보장에 대한 의지와 정책기조를 반대하는 총장님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지향하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학이 인적·지적·물적 자본의 집산지로서 그 기능과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학이 대학다운 대학, 특성화된 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하지 못한 근원적 이유는 대학 재정의 영세성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식을 창출하고, 인재 배출을 위하여 재단과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무제한의 사고와 실험정신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확보는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 있는 자율성 보다 더 절실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협의회의 ‘415 고등교육 비전’에서 밝힌 바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대학 또한 그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기초강연을 해 주실 서남표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이기수 총장님, 이배용 총장님, 그리고 분과 발표를 해주시는 조무제 총장님과 홍승용 총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하계총장 세미나에서 『일본 대학의 개혁 사례』를 발표하시는 리츠메이칸대학의 가와구치 기요후미 총장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초청강연을 해주시고 만찬을 준비해주신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님과 강원도 김진선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간을 할애 해주신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의 ‘새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방향과 고등교육 제정 확충’이라는 주제 발표와, 이어 총장님들과 함께 하시는 대화는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하계 세미나에서는 다른 세미나에서 경험 할 수 없는 문화행사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흔쾌히 공연을 맡아주신 기원오페라단의 김기원 단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초여름 귀한 시간을 쪼개어 이번 세미나를 빛내주시는 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협의회 집행부와 사무처는 회원대학의 어려움과 고충을 심분 이해하고 배전의 노력을 통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총장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7월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손 병 두

기 조 강 연

발 표

서 남 표(KAIST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 하기 총장 Seminar
강원도 양양
2008년 7월 2일

대학 교육과 경쟁력에 관하여

서 남표
KAIST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들이 영어로 된 것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Korea should be proud of its economic
development and its manufacturing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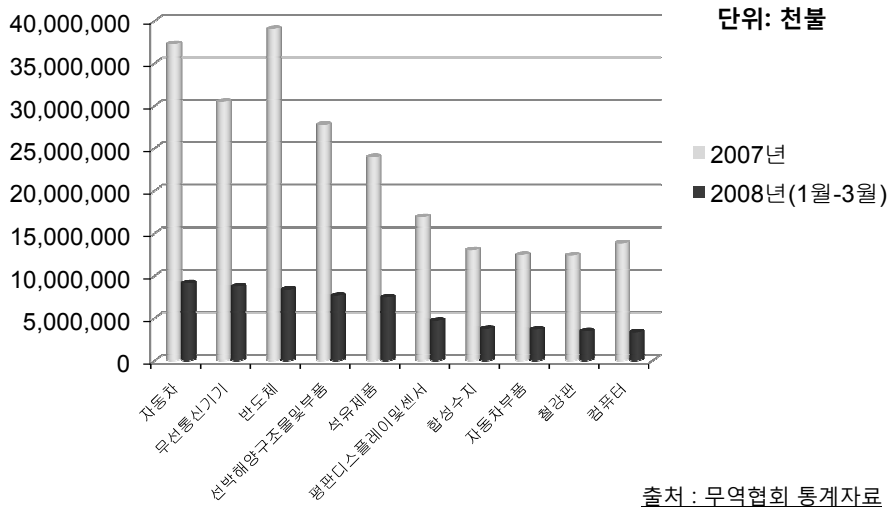
Beginning in the 1970's, Korea has made major
investments in heavy manufacturing industries.

As a result, Korea has created leading industrial
firms in shipbuilding, steel making, automobiles,
DRAMs, cell phones, displays,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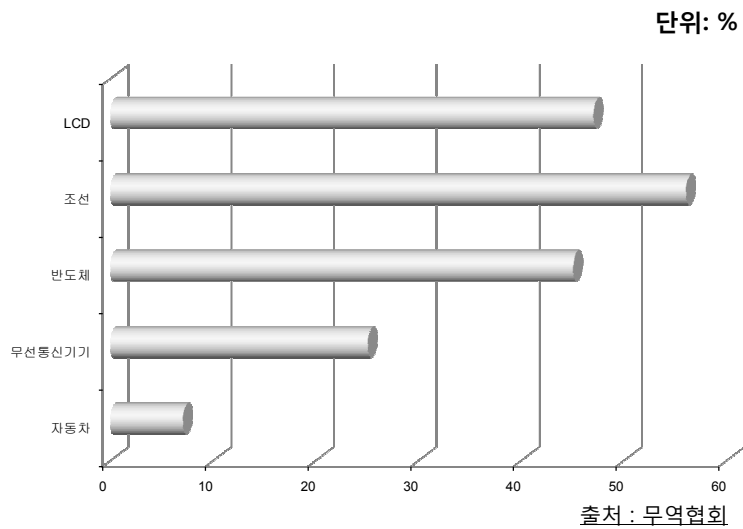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has provided
the basis for current economic prosperity.



대한민국 수출 10대 품목 현황



품목별 전세계 Market Share 현황



한국과 무역

- 상품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역규모가 전세계 GDP의 **47.7%** 수준으로 성장 ('05년 기준)

- 우리나라는 교역규모가 GDP 대비 **69.3%** 수준으로 중동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

(Source: 신성장동력계획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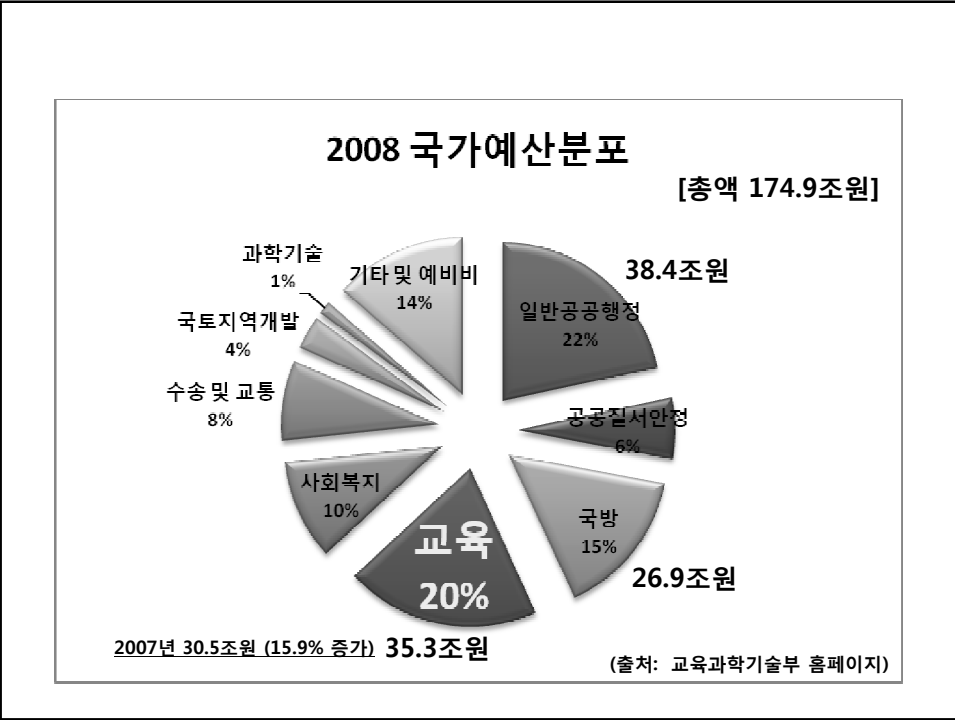
Korea should also be proud of its achievements in education!

Education has been the key contributor to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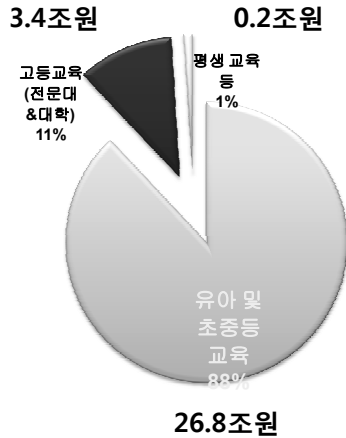


The current manufacturing strength of Korea has been established by graduates of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The investment made in education by Korean people has paid off in big ways. It is a success story!



2007년 교육 예산 구성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2007년 사교육비 및 총액 구성

[단위: 천원]

구분	1인당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공교육비	
	'03	'07	'03	'07	'03	'07
초등학교	209	256	83.1	88.8	3,243	4,101
중 학교	270	314	75.3	74.6	4,062	4,454
고등학교	298	388	56.4	62	5,061	5,923

[2007년 초중고 재학생]

초등학교	3,829,998명
중 학교	2,063,159명
고등학교	1,841,374명

사교육비 총액 : 2.34조원 추정
국가교육 예산의 약 10%에 해당

초중고 해외 유학생

[단위: 명]

구분	'95	'00	'06
초등학교	235	705	13,814
중 학교	1,200	1,799	9,246
고등학교	824	1,893	6,451
총 수	2,259	4,397	29,511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1인당 유학비 : 3500만원/년 추정
(미국/캐나다)

1년 해외 유학비 : 약 1조원

(출처: 한겨레 신문(2007.3.12)- 자녀유학비'눈덩이')

초중고 및 대학생 어학연수

초중고 어학연수: 3.5만명 (매년 20% ↑)

대학생 어학연수: 매년 5만명 추산 (11.1%)

총 금액 : 15조원 추정

07년도 교육예산대비 50%

(출처: 한경비즈니스(2008.5.27)-단기관리형 유학붐)

(출처: 데이터뉴스(2008.5.26)-대학생 취업과외)

학교, 학생, 교수 수

(Source: 교과부)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00	'07	'00	'07	'00	'07
유치원	8,494	8,294	545,263	541,550	28,012	33,504
초등학교	5,267	5,756	4,019,991	3,829,998	140,000	167,182
중학교	2,731	3,032	1,860,539	2,063,159	92,589	107,986
고등학교	1,957	2,159	2,071,468	1,841,374	104,351	120,211
특수학교	129	144	23,605	23,147	4,555	6,256
전문대학	158	148	913,273	795,519	11,707	11,685
대학교	191	200	1,856,927	2,115,200	45,031	55,808
대학원	829	1,042	229,437	296,576	729	2,895

Universities and colleges have done well, but some say that the educational system may have problems that must be addressed.

1. Limited income relative to expenditure
2. Limited jobs for graduates
3. Not sufficient number of professors
4. Limited incentives for professors
5. Not enough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and colleges
6. Not efficient K-12 education
7. Too many universities and colleges
8. Too much private tutoring
9. Too many young students going abroad

A wrong educational system ?

Too much aspiration for education?

An ideal university?

If we can envision an *ideal society*, a university should be a microcosm of the ideal society.

Such a university may provide the best environment for education and scholarly pursuit.

What is an ideal society?

One possible definition: In an *ideal society*, people always seek and tell the *truth*, *trust* each other, pursue *common well-being*, *work hard* and do their part, *respect the freedom* of others to pursue their own aspirations, encourage and respect *innovation*, and abide by *common laws*.

Goals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Every university and college must define its *own unique purpose* and *goals* rather than trying to emulate those of other institutions.

Different types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1. Massification
2. Research universities
3. Professional schools - law, medicine, fine arts, technology, business, etc.
4. Liberal arts colleges

Korean universities should lead the world of education through innovation and by building strong colleges and research universities.



As we make plans for a great university, we should think “Functionally”.

What is “Functional Thinking”?

Ask

“What (목적) are we trying to achieve?”

before deciding on

“How (방법) to achieve the goal.”

What is the purpose of this faucet?

“Is this a good design?”



“Is this a good design?”



Most important common educational goals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1. Teaching
2. Learning
3. Understanding
4. Thinking on one's own
5. Ethics
6. Honesty
7. Fairness
8. Trust
9.

Every university cannot and should not become a research university.

1. Research is typically a means of teaching graduate students.
2. Research requires a life-time commitment.
3. Research can be expensive.
4. Research should not be done at the expense of good teaching.

Universities and colleges should not be a closed community.

1. It should avoid the temptation to elect only one of their own for leadership positions.
2. There should be more collaboration among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teaching and research.
3. Universities and colleges should hire professors across disciplines and enable them to work together.
4. Universities should avoid in-breeding.
5. Universities should collaborate with industry and work with diverse elements of society.

Role of a research university

1. Educate future leaders through participation in research
2. Advance knowledge through research
3. Promote welfare, health, and prosperity
4. Work for enhanced sustainability of nature
5. Provide solutions to societal problems and national and human needs

Limited Scope of Research Universities

1. To educate future leaders who can generate knowledge and technology
2. To generate knowledge and technology
3. To experiment with new concepts and ideas without adversely affecting the entire society
4. To generate researchers and educators for universities, industry and government

On Research Universities

1. The available resource for research can support only a limited number of research universities .
2. Research universities must compete globally, because scholarship, science, and technology are global.
3. Research universities need deep thinkers and researchers.
4. Countries that have a successful research university system have concentrated their research investment in select universities on a competitive basis.

On Research Universities

5. The annual budget of each one of the 10 largest research universities in the US exceed \$2 billion.
[The total R&D government budget of Korea is about \$11 billion.]
6. These research universities in the US have more than paid back the tax payers' investment by creating new industries, e.g., computers, IT, biotech.
 8. Lead rather than follow in research.
 9. Renaissance PhD
10. Research at the two ends of research spectrum may be more effective.

Some possible means of solving financial problems

1. Expand student loan program -- Government invest in students by providing long-term, low-interest loans.
2. Universities generate scholarship funds from the operating income by charging higher tuition fees to those who are able to pay.
3. Government make it easier for universities to generate endowment funds for scholarship through changes in the taxation system.

연구대학으로서 **KAIST**의 발전방향

연구대학으로서 **KAIST**의 발전방향

1. KAIST's Goal: Become one of the best S&T research universities in the world

by doing pioneering and leading work in
research and education

Challenges for research universities

Think of an Alaskan sled pulled by dogs



Challenges for research universitie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dogs at the front and the dogs behind them?



연구대학으로서 **KAIST**의 발전방향

2. **Concentrate research in most important areas and advance leading ideas, concepts, methodologies, theories, etc.**

KAIST Institutes (8)

EEWS

HRHR

Some of the Important Research and Educational Issues of the 21st Century

1. EEWS
2. IT
3. BT
4. NT
5. Service
6. Design
7. Health care
8. Ocean systems -- mobile harbor

Countries that solve some of these Important problems of the 21st Century will contribute to humanity and economy.

Universities that solve some of these problems will become the leading universities.

연구대학으로서 **KAIST**의 발전방향

3. **Emphasis on outstanding undergraduate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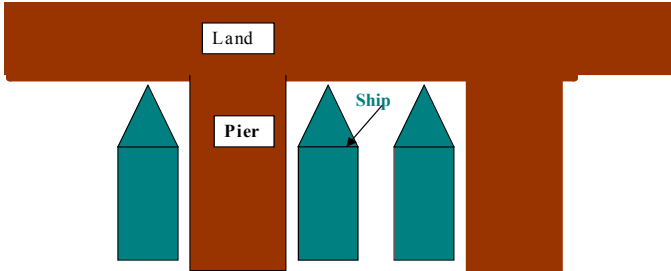
- Teach well
- Design education to promote bi-Modal thinking
- Bilingual education
- Leadership education
- Creativity
- Internship and personal development

연구대학으로서 **KAIST**의 발전방향

4. **New Organizational Structure to achieve the KAIST's Research Goals**

- College of Natural Science
 - Department of NanoScience and Technology
- College of Engineering
 - Department of Ocean Systems
- College of Life Science and Bioengineering
- College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Department of Intelligent Service Engineering
- College of Business
- College of Cultural 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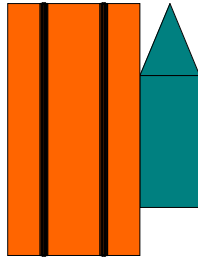
Why should the ships come into the harbor?



Ships at Singapore Harbor



Why not have the harbor come to the ship?



New Department at KAIST: Ocean Systems
Engineering Department

- One of the first research projects:
“Mobile harb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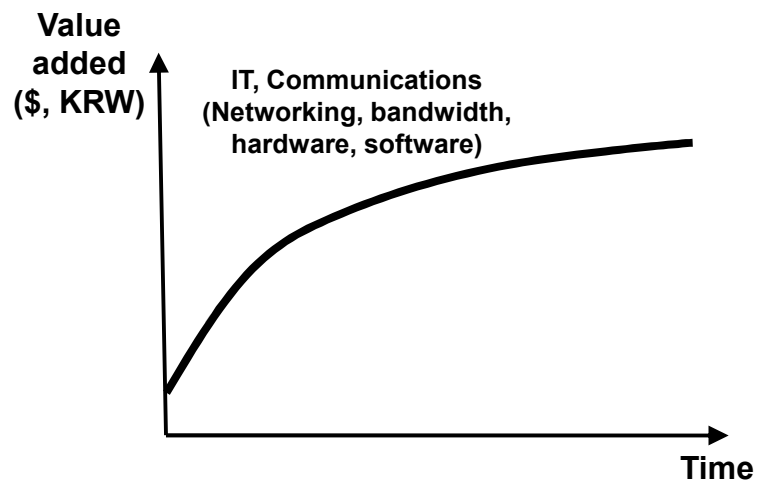
QuickTime?and a
None decompressor
are needed to see this picture.

연구대학으로서 **KAIST**의 발전방향

**New direction for College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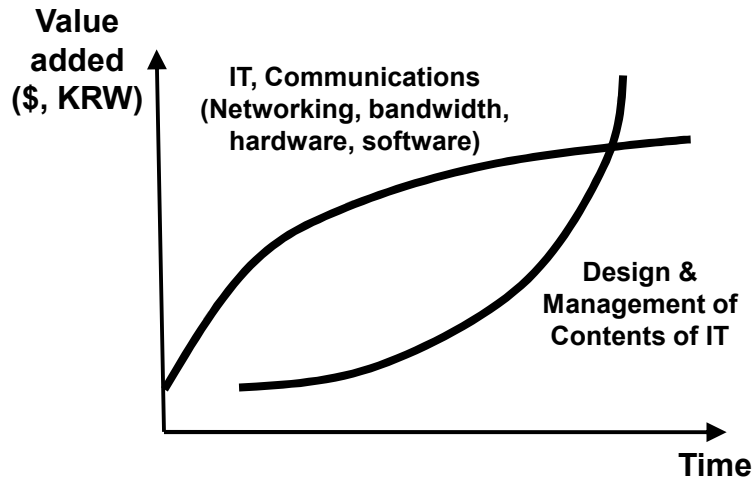
Three Aspec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 / 통신 기술에서의 세가지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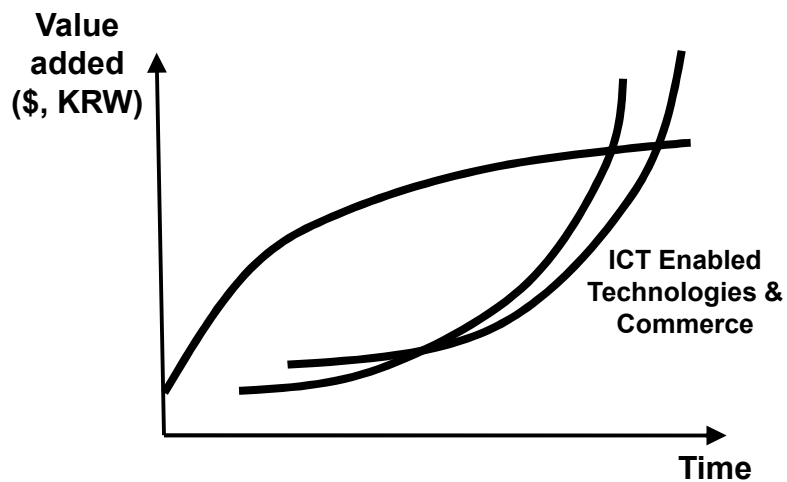
Three Aspec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 / 통신 기술에서의 세가지 관점



Three Aspec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 / 통신 기술에서의 세가지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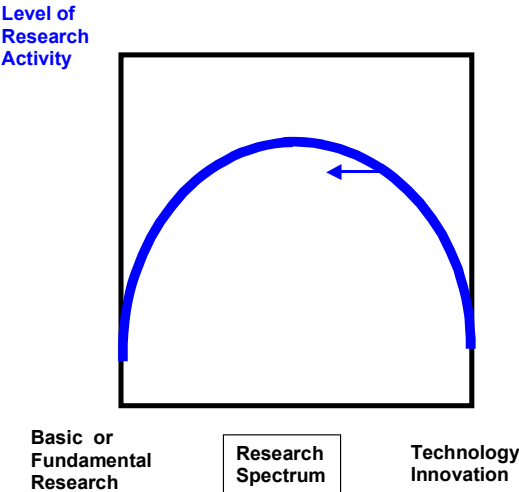
연구대학으로서 KAIST의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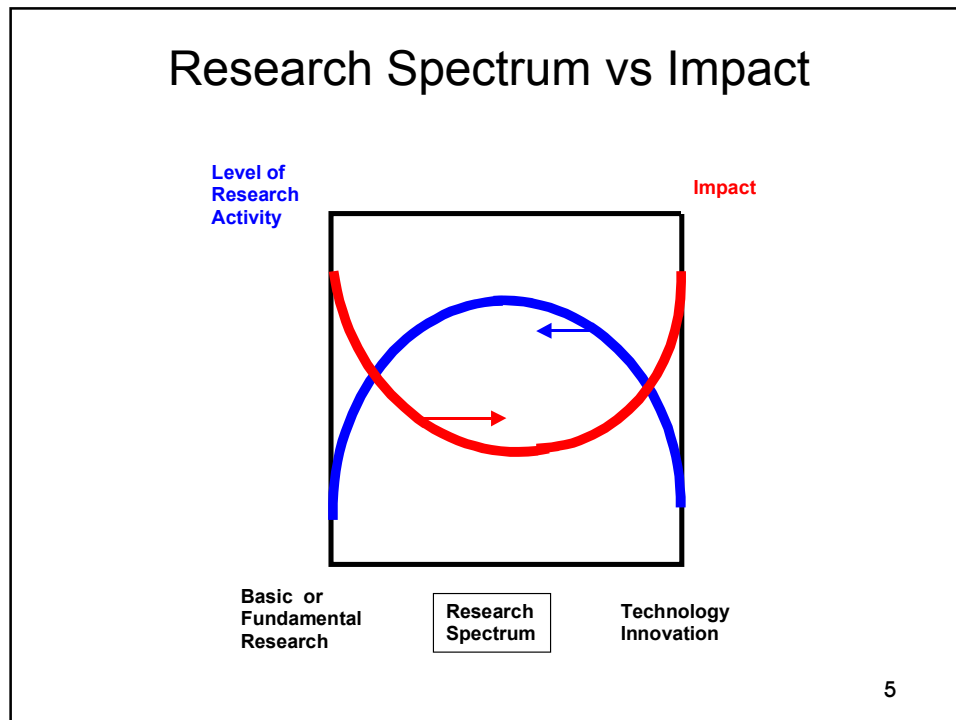
Intellectual discipline -- Time limit

Renaissance PhD Program

Two ends of research spectrum

Research Spectrum vs. Impact





Does Korea need globally leading universities?

1. Yes
2. To reach the economic goal of 747, we do not have any other choice.
3. In the United States, only about 3 to 5% of universities are leading research universities.

How do we make globally leading universities?

1. Concentrated investment of a significant amount on a few select universities on a competitive basis purely based on intellectual merit
2. Compete globally

Conclusions

1. Education has enabled Korea to become one of the leading industrialized nations in the world.
2. The educational investment in Korea is large relative to its effectiveness.
3. The educational system of Korea needs to be more effective, efficient, and productive.
4. Universities in Korea should address their customers needs, i.e., students, society, nation, and humanity.
5. Each university should be allowed to pursue its goals on a competitive basis without too many external constraints.
6. Government R&D funds must be used more effectively to generate more meaningful results.

Thank you.

주 제 발 표

발 표

이 기 수(고려대학교 총장)

가와구치 기요후미
(리츠메이칸대학교 총장)

이 배 용(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주 제 발 표 1

발 표 이 기 수(고려대학교 총장)

2008 하계대학총장세미나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고려대학교 총장
이기수

2008.7.2
Korea University

Contents

- I. 고등교육 국제화의 본질
 - (1) 국제화의 정의
 - (2) 국제화의 목적
- II. 고등교육 국제화 추세
 - (1) 세계대학
 - (2) 국내대학
- III. 고려대학교 국제화 전략
 - (1) 개괄
 - (2) 외국인 학생 유치전략
 - (3) 본교학생 파견전략

고등교육 국제화의 본질

국제화의 정의

고등교육 국제화란?

"Internationalization is the process of integrating an international, inter-cultural and/or global dimension in the goals, functions (teaching/learning, research, services) and delivery of higher education"

- Observatory on Borderless Higher Education, UK, 2007'

고등교육 국제화의 본질

국제화 추진의 이유

Reasons for Internationalization

1. Increase student and faculty international knowledge capacity and production (22%)
2. Strengthen research and knowledge capacity and production(21%)
3. Create international profile and reputation(18%)
4. Contribute to academic quality(14%)
5. Broaden and diversify source of faculty and students(13%)
6. Promote curriculum development and innovation(8%)

-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New Directions New Challenges' (IAU 2006)

KOREA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고등교육 국제화의 본질

국제화의 목적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목적

1. 고등교육 국제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 국제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대학의 자체 경쟁력 강화
3. 고등교육 국제화를 통한 국제 수지 개선

KOREA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고등교육 국제화 추세 - 세계대학

세계적 추세

```

graph TD
    A[Open Networking] --> B[고등교육의 통합]
    B --> C[시스템의 통합]
    B --> D[지식의 통합]
    B --> E[인재 Pool의 통합]
    
```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OECD Countri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Coming Decade 참조>

KU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고등교육 국제화 추세 - 세계대학

세계적 추세 - Open Networking 사례

Bologna Process

명칭	Bologna Process (1999.6.19 유럽 29개국 교육부장관의 Bologna Declaration에서 유래)
목적	2010년까지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를 확립
기능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진 유럽 각국 고등교육 기관 시스템의 통일 및 상호 학위 및 학점 인정,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협력
학점체계	ECTS(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사용
학위체계	Cycle System 1st Cycle: 180-240 ECTS, 학사학위 인정 2nd Cycle: 90-120 ECTS, 석사학위 인정 3rd Cycle: No ECTS limits, 박사학위 - 통상 각 cycle 완료까지 3.2,3년 소요 - 1학년도는 60 ECTS에 상응하며, 1,500-1,800시간(1 ECTS당 25-30시간)
Diploma Supplement	학위수여증과는 별도로 수여되며 학위의 투명성과 확립성과 인증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함
현황	현재 유럽 4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장관급 conference를 개최 2009년 Leuven/Louvain-la-Neuve conference 개최 예정

KU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고등교육 국제화 추세 - 세계대학

세계적 추세

Serving Local Communities

국제화에 대한 반동
(이민으로 인한 문제, 국가정체성 혼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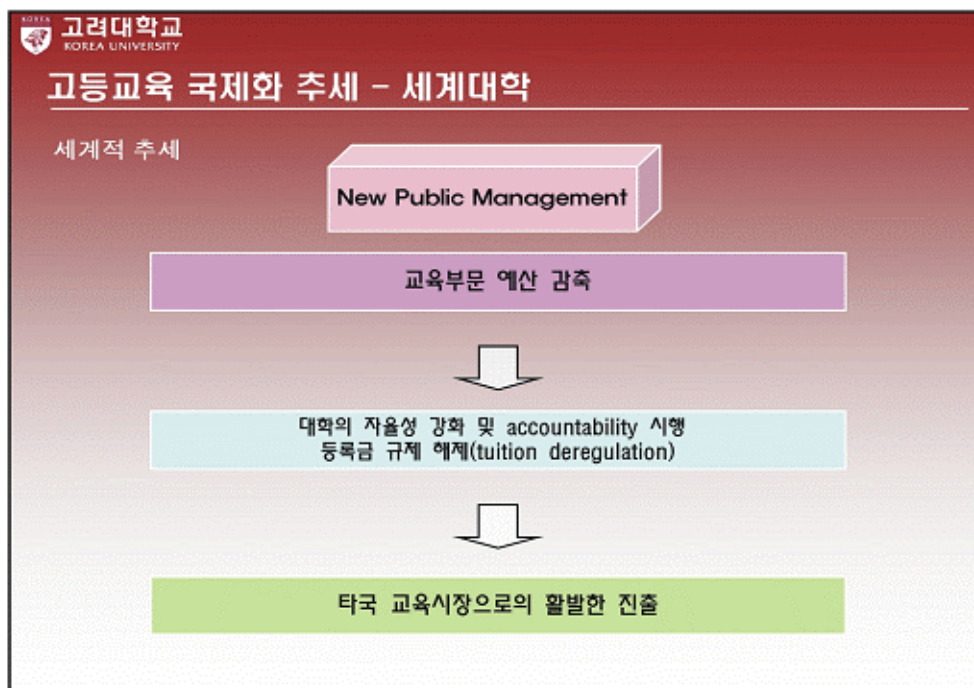
소수 명문대학의 카르텔화
(국제적 수준의 연구 혹은 국제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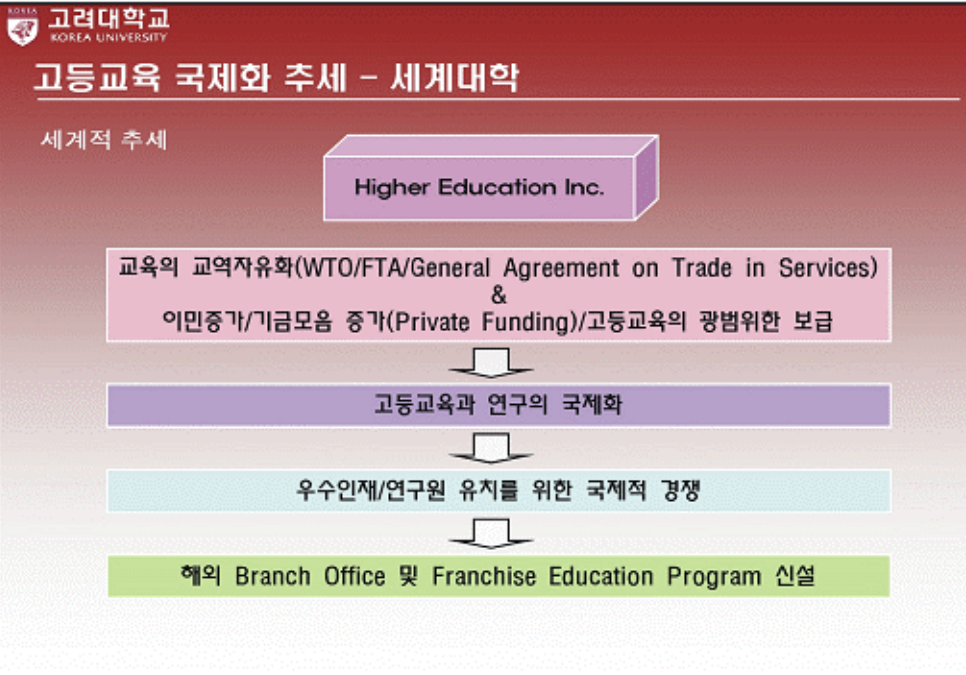
전략적 부문의 접근성 제한
(물리학, 공학 등)

→

고등교육의 지역화
(Serving the needs of local and regional communities)

 고려대학교 <small>KOREA UNIVERSITY</small>		
고등교육 국제화 추세 - 세계대학		
세계적 추세 - Serving Local Communities 사례		
기관 및 프로그램명	목표	비고
APAIE Asia-Pacific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등교육 관계자간의 교류협력 증진 및 국제교육관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유사한 다자간 학생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학간 교류의 협력 확대를 꾀함
NAFS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북미 지역 고등교육 관계자 교류협력 증진 모임으로,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국제교육 발전 방안 구상	- 회원: 10,000명의 전세계 국제교류 관계자 - 매년 NAFSA Conference 개최
EAIE 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유럽 및 국제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기구로서, 국제교류 업무 관계자의 교류 증진을 도모	- 학생 교류 및 교육의 국제화 - 각종 간행물, 포럼, 컨퍼런스 등을 통한 국제화 정책 방향 논의
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환태평양 국가간 교육, 경제, 기술 분야의 협력 증진을 꾀하기 위함	- 회원교: 환태평양 16개국 37개 대학 - APRU Enterprise, Research Project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및 연구협력 진행
Universitas 21	학술연구 중심의 세계 대학 선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기업교류 권의 협력과 상호보완을 촉진하여 조직적, 협동적, 기업형 성격을 띤 조직으로 국제화 촉진	- 회원교: 14개국 21개교 - U21 Global, U21 Pedagogica, U21 Equity Limited로 구성





KOREA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고등교육 국제화 추세 - 세계대학

세계적 추세 - Higher Education Inc. 사례

사례구분	대학명	Branch Office/ Overseas Campus	설립목적
분교정책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Malaya/Ningbo Campus	1. Nottingham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인정해 주며 학비는 영국의 30% 수준으로, 영국으로 떠나지 않고 학위를 수여받을 기회를 제공 2. 해당 지역의 교육 발전에 일조
Joint Program 진행	University of Buffalo	Singapore Office (6월 공식 오픈예정)	1. 9/11 이후 학생비자 규정 강화로 인한 국제 학생의 수 급감을 만회하기 위함 2.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nt(1996년 어레로 공동 Executive MBA 운영중)와 협력하여 학부 경영학 과정 개설예정
학생유치 촉진을 위한 사무소 개설	The University of Tokyo	Beijing Office	1. 대학 단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 중국 학생들에게 동경 대학교에서 수학할 기회를 제공 2. 중국에서의 동경대 졸업생들의 활동 지원

KOREA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고등교육 국제화 추세 - 세계대학

세계적 추세 - Higher Education Inc. 사례

사례구분	대학명	Branch Office/ Overseas Campus	설립목적
교육 Town 조성사례	Dubai Knowledge Village (카타르 교육도시)	코넬 의대, 케네디 멜론, 조지타운 대학,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등	1. 중동의 교육 허브(hub)로의 도약 2. 미국 명문대학에 본교 부지 및 건물,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제공하는 대신, 카타르 교육도시의 대학에서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함
본교정책 실행사례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ingapore campus	1. 2004년 사업 시작, 2007년 개교 2.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등록학생수 부족으로 개교 1학기 만에 \$17.5million 저축 후 2007년 6월 27 일 개교 3. 500명 정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700명 지원자 가운데 140명이 합격(싱가포르 학생 100명, 외국인 학생 40명)하였음



고등교육 국제화 추세 - 국내대학

2006-2007 중앙일보 대학평가 추세분석

<지표별 상위 30개 대학 평균>

<단위:백분율(%)>

	2006학년도	2007학년도	증감분
외국인교수비율	10.50	12.23	+1.73
외국인학생비율	2.25	3.50	+1.25
해외파견교원학생비율	1.08	1.49	+0.41
국내방문교원학생비율	1.73	2.71	+0.98
영어강좌비율	7.17	8.51	+1.34

<지표별 상위 10개 대학 평균>

<단위:백분율(%)>

	2006학년도	2007학년도	증감분
외국인교수비율	17.61	20.40	+2.79
외국인학생비율	3.53	5.76	+2.23
해외파견교원학생비율	1.50	2.13	+0.63
국내방문교원학생비율	3.05	4.80	+1.75
영어강좌비율	12.87	16.92	+4.05

<2006, 2007 중앙일보 대학평가>

고등교육 국제화 추세 - 국내대학

외국인 교수현황 - 유치원인



고등교육 국제화 추세 - 국내대학

외국인 교수현황 - 유치현황

대학	중·외국인 전임교수	어학전임교수
고려대	87명	27명
성균관대	50명	33명
연세대	60명	26명
이화여대	46명	15명
포항공대	5명	없음
카이스트	7명	없음

- 2007.10월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전공분야	전임 외국인 교수	비율(%)
어문계열	945명	49
인문계열	349명	18
공학계열	110명	6
사회계열	101명	5
상경계열	69명	4
이학계열	67명	3

- 2006년, 4년제 대학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외국인 교수 채용을 막는 요소

- 낮은 연봉(미국, 캐나다 등의 60-70% 수준)
 - 비싼 자녀 교육비
 - 비싼 집값
 - 대학 행정·연구 업무가 영어로 돼 있지 않음
 - 낙후된 연구환경
- 2007.11.21차 조선일보 인용

고등교육 국제화 추세 - 국내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

<2007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 교육인적자원부>

<단위: 명>

연도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유학생수	12,314	16,832	22,528	32,557	49,270

지역	어학 연수	과정별					기타	합계
		이공계	인문사회	자연계	예체능	계		
아시아	13,188	17,640	8,341	2,503	1,756	30,240	2,194	45,622
아프리카	42	83	141	16	1	241	8	291
오세아니아	26	29	26	7	10	82	34	142
북미	472	291	383	78	66	818	402	1,692
남미	56	87	70	8	7	172	12	240
유럽	400	192	254	30	27	503	380	1,283
합계	14,184	18,322	9,225	2,642	1,867	32,056	3,030	49,270

국가별 (2007)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수	33,650	3,854	1,388	2,242	1,047	1,309	5,780	49,270
비율(%)	68.3	7.8	2.8	4.6	2.1	2.7	11.7	100

고등교육 국제화 추세 - 국내대학

해외파견 교환학생

<단위: %>

순위	학교	값(%)	순위	학교	값(%)
1	이화여대	3.36	16	성신여대	1.32
2	한국외대	2.69	17	한림대	1.32
3	동서대	2.52	18	건양대	1.30
4	경주대	2.26	19	성균관대	1.22
5	인천대	1.98	20	숙명여대	1.18
6	여주대	1.78	21	인하대	1.16
7	고려대	1.77	22	경원대	1.12
8	위덕대	1.71	23	배재대	1.10
9	부산외대	1.66	24	순천향대	1.02
10	한양대	1.55	25	건국대	0.94
11	중앙대	1.55	26	포항공대	0.93
12	신문대	1.49	27	목원대	0.92
13	경희대	1.45	28	청주대	0.87
14	연세대	1.40	29	장원대	0.83
15	서울여대	1.37	30	경기대	0.80

<2007 중앙일보 대학평가 -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

고등교육 국제화 추세 - 국내대학

전공과목 영어강의

<단위: %>

순위	학교	값	순위	학교	값
1	KAIST	35.18	6	이화여대	11.76
2	한동대	22.82	7	인하대	11.09
3	고려대	22.18	8	포항공대	10.10
4	한국외대	20.35	9	부산외대	9.54
5	연세대	17.06	10	서강대	9.14

상위 30개 대학 평균: 8.54%

<2007 중앙일보 대학평가 - 전공과목 영어강의>

Pros

1. 해외 취업·진학대비 글로벌 교육 강화
2. 외국인 학생 유치 증대
3. 대학평가의 국제화 지수 제고

C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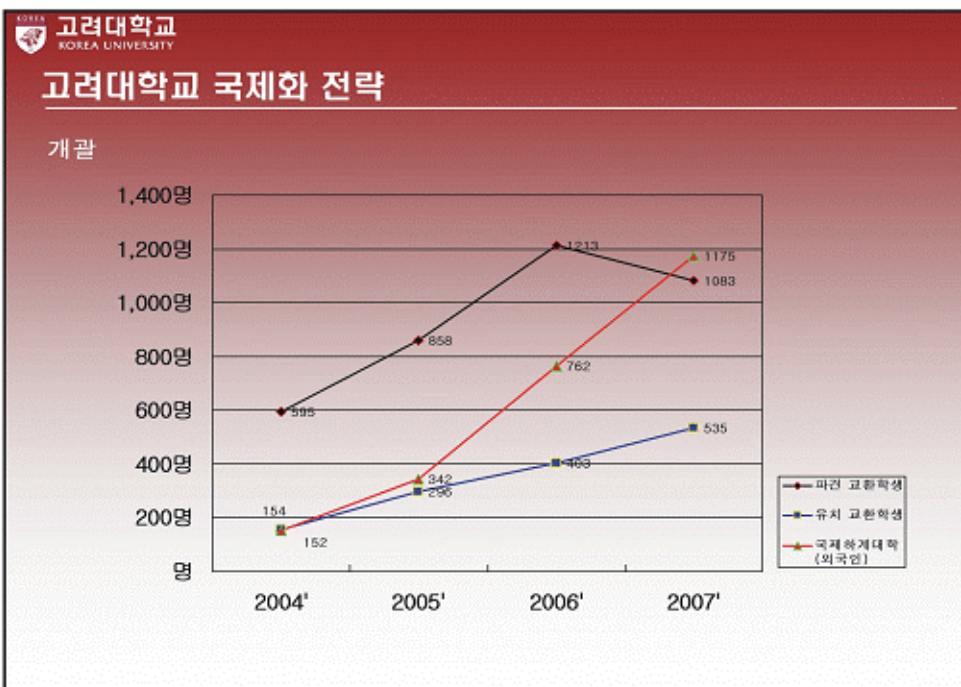
1. 전공지식 전달의 한계
2. 단과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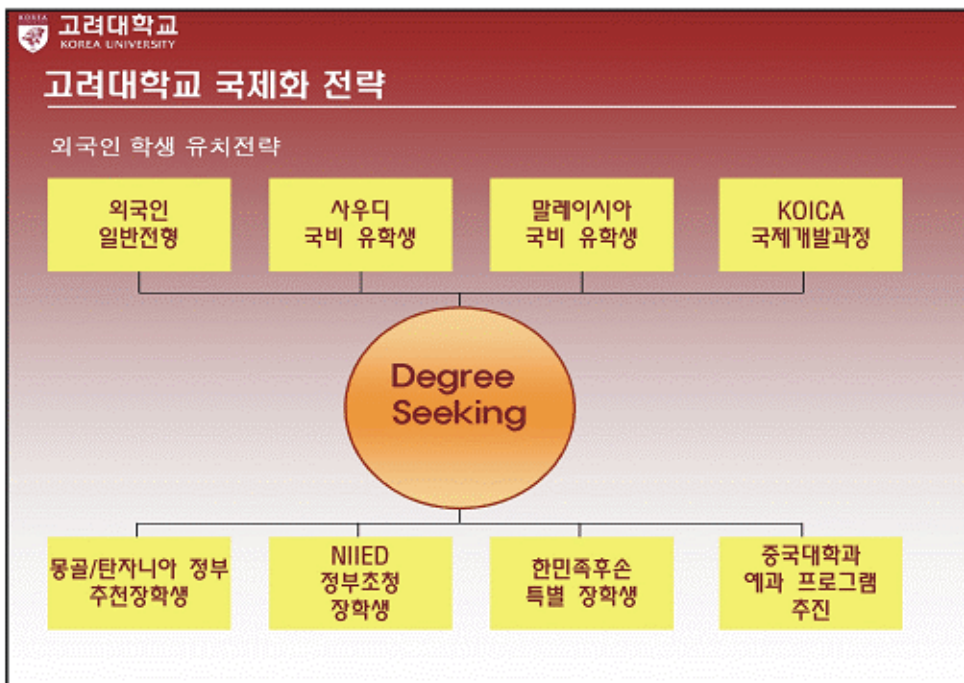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국제화 전략

개괄

분류	현황
학술교류 협정체결(2008' 6월)	58개국 521개 대학 및 기관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국제기구 가입현황	-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s(ISEP) - Universitas 21 - Asia-Pacific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APAIE)
교환/방문학생 피견 현황(2008' 6월)	496명
입국인 학생 유치 현황(2008' 6월)	중 1693명 - 교환학생 유치현황: 243명 -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현황(학부): 184명 -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현황(대학원): 400명 - 한국어 연수 외국인 현황: 866명
입국인 전임 교수 현황(2008' 3월)	98명
2007 The Times 대학평가 랭킹	243위
2006 The Times 대학평가 랭킹	150위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국제화 전략

외국인 학생 유치전략

<단위: 명>

	2004'	2005'	2006'	2007'
국내 참가학생	129	133	199	320
해외 참가학생	152	342	762	1175
참가학생 계	281	475	961	1495
국적, 학교별	12개국 98개교	12개국 113개교	12개국 140개교	12개국 192개교

<국제화대학 2004-2007 참가현황>

교환학생 밸런스조정
 1개 대학에서 3명의 학생이 국제하게 대학에 참가할 경우 본교학생 1명을 해당대학에 1년간 교환학생으로 파견 가능케 하여 교환 학생의 imbalance를 해소하도록 함

학비 감면 및 장학금
 Excellence Scholarship: 전과목 A 이상 취득 시 USD 1,000 지급
 Alumni Scholarship: 고려대학교 교우의 자녀일 경우 USD 400 지급
 U21 Fellowship Fund: U21 회원교의 학생이 지원할 경우 지급
 Early Registration Discount: Early Registration 기간에 지원할 경우 USD 100 지급

고려대학교 국제화 전략

외국인 학생 유치전략



구분	2005	2006	2007
한국어 연수 외국인 학생	1,961	2,591	3,793

고려대학교 국제화 전략

본교학생 파견 전략



고려대학교 국제화 전략

본교 학생 파견 전략

학생 파견 시 고려사항

- ◆ 파견 지역/국가에 대한 학생 선호도
- ◆ 파견교의 학문적 명성
- ◆ 파견국의 치안상태 및 학생안전
- ◆ 숙소(기숙사 혹은 파견교의 숙소지원 프로그램 구비 여부)
- ◆ 비용

대학 고려사항

- ◆ 학생 선호 지역/국가 대학과의 협정체결 노력강화
- ◆ The Times 랭킹 등 협정체결 시 상대교의 학문적 명성 고려
- ◆ 학생 파견에 앞선 철저한 안전교육
- ◆ 파견 대상국가의 사회/정치적 상황 고려
- ◆ 학생 파견 대상교 최종 결정에 앞서 기숙사 및 숙소지원 프로그램 여부 확인
- ◆ 협정체결에 앞서 상대교의 위치 및 치안상태 확인
- ◆ 주요 대학의 경우 기숙사 설립
- ◆ 학생 비용 부담이 큰 프로그램의 경우 장학금 지급 등으로 부담 완화

고려대학교 국제화 전략

본교 학생 파견 전략 - 방문학생 프로그램(VSP)

방문학생(Visiting Student Program)이란?

- 본교와 본인이 수학할 국외 대학 2곳 모두에 등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국외 대학에서 수학한 후, 귀국 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 연간 총 355명 파견 가능

VSP	KU-UBC	KU-Griffith	KU-RHUL	KU-UPENN	KU-UC Davis
국가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미국
파견가능인원	100	100	35	20	100
파견시점	2학기	1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예상소요비용	약 1,300만원	약 1,200만원	약 1,400만원	약 3,000만원	약 1,800만원

* 예상소요비용이란 해당교 거주기간(10개월) 동안의 수업료 + 기숙사비를 예상하여 산출한 비용임

Global KU Scholarship

- VSP 참가 학생들에게 본교 등록금의 일정 부분을 장학금으로 돌려 주는 제도
- VSP 파견이 확정되고, 학기 시작 후 6~8주 이내에 본인의 학생증 연계 계좌로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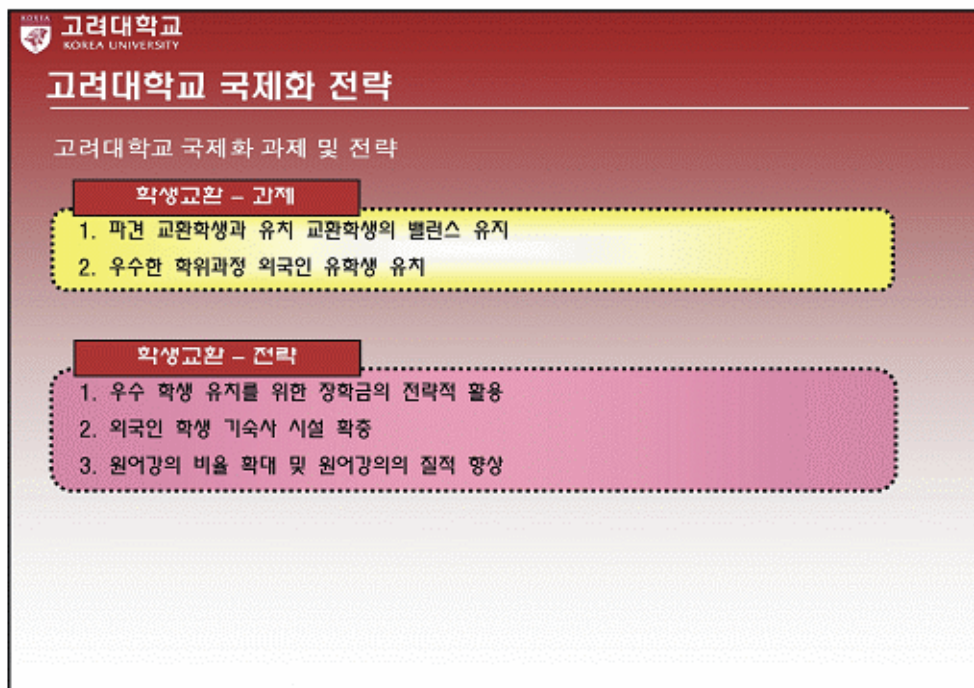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국제화 전략
본교학생 파견 전략

본교학생 파견현황

2008 학년도 1학기 Outgoing					2008 학년도 1학기 Incoming		
구분	교원학생 프로그램	인원수	방문학생 프로그램	인원수	구분	인원수	
학부	본부	187	UBC	45	ESP	155	
	사범대 자체파견	4	UC Davis	37	경영대 ESP	52	
	법과대 자체파견	1	RHUL	31	문과대 ESP	9	
	문과대 자체파견	16	Griffith	16	사범대 ESP	4	
	경영대 자체파견	51	UPENN	5	생원대 ESP	2	
	보건과학대 자체파견	3	국제어문학부	62	ISEP	6	
	학부소계	262	적비유학생	6	KIEP	15	
대학원	본부	4	소계	202	중계	243	
	법과대 자체파견	1					
	문과대 자체파견	2					
	경영대 자체파견	25					
	대학원 소계	32					
교원학생 중계		294	방문학생 중계		202		
2008학년도 1학기 outgoing 중계			496		2008학년도 1학기 Incoming 중계		243



고려대학교 국제화 전략

고려대학교 국제화 과제 및 전략

국제연구협력 증진 - 과제

1. 우수 외국인 교원 확보
2. 국제 연구협력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확대

국제연구협력 증진 - 전략

1. KU-Battell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등 연구 기반 시설 구축
 2. APAIE, NAFSA, EAIE 등 국제교류와 관련된 국제교육기구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3.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해외 우수대학 사례의 벤치마킹 및 각 기구 산하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
- Ex) BK21 국제협력사업 박사과정 한례희 씨(교토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Science에 '지진을 발생시키는 단층의 역학에 대한 실험연구' 게재. 한국 학생 신분으로는 Science에 주저자로 논문 발표한 최초 케이스)

고려대학교 국제화 전략

행정시스템의 국제화

국제화에 발맞춘 조직개혁 - 과제

1.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행정직원 선발
2. 행정절차의 능률성 제고

국제화에 발맞춘 조직개혁 - 전략

1. 국제업무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한 직원 우대
2. 영어나 중국어 등 제2외국어가 가능한 교수/직원 선발
3. 선진대학 벤치마킹을 통한 내부 행정절차의 국제화



Thank You

주 제 발 표 II

발 표

가와구치 기요후미
(리츠메이칸대학교 총장)

日本における私立大学改革の課題と立命館の経験

立命館総長 川口清史

はじめに

まず、日本の高等教育における私立大学の位置を確認しておこう。

《設置者別大学数（4大・短大・大学院）、学生数（同）、学部別学生数》

図表に見られるように、日本の高等教育において、私立大学は学生数において70%と圧倒的な位置を占めているが、財政支出においては30%にとどまっている。日本の財政における高等教育への支出は、総額2.6兆円、対国内総生産（GDP）比率で0.5%、経済協力開発機構（OECD）各国平均の2分の1であり、加盟国中最低の水準である。私学においては、公財政支出水準の低さと国私間格差という私立大学のいわゆる「二重の構造的矛盾」を抱える厳しい状況のなか、事態は一層深刻である。その量的位置にもかかわらず、十分な財政基盤を持たない私立大学の改革なくして日本の大学改革はありえない。

《私大連盟財政構造》

私立大学とは何か

では、そもそも私立大学とは何であろうか。世界の歴史においても、日本の歴史においても大学はまず私立大学として出発した。近代化のプロセスにおいて、国家は大学の教育、研究機能に着目し、国家の管理の下に置く国立大学を作るようになった。今日では国立大学も多くの点で自主的な意思決定権

限を持っており、また私立大学も公的な支配のもとにあって、その違いは狭まってきている。

今日の日本では私立大学はまず法的制度的には学校法人の設置する大学である。学校法人とは公益法人の一種で、私立学校法に基づくものである。公教育（学校教育法に定める学校教育、日本の場合、小学校6年、中学校3年、高等学校3年、大学4年。うち義務教育は小学校中学校の合計9年間）を担う学校は公共機関か学校法人できなければ設置できない。設置認可の権限は文部科学省もしくは都道府県にある。

私立大学の存立の経済的根拠について、アメリカの非営利組織論では、需要面からは超過需要と差別化需要の二つから説明される。つまり、公的供給が追いつかないほど急速に高等教育への需要が高まる場合（超過需要）と公的供給の一律的サービスでは対応しきれない多様なサービスへの需要がある場合（差別化需要）に、私立大学は存立しうる、とする。供給面からは、公共財と私的財の両側面を持つ高等教育サービスは完全な公的供給にも完全な市場にもなじまない、ということから説明される。つまり、私立大学は単に国公立大学の補完として存在しているのではなく、成熟社会における高等教育のあるべき姿を追求しうる存在なのである。

1. 私立大学改革の第1の課題 — 教育の質の向上

一般に公的サービスの民間部門による供給には、その公共性やサービスの質の高さをどのように確保するかが問題となる。通常は国家による規制が一般的であるが、自主性や自発性を基本とする教育・研究においては、強い国家の規制は民間の良さを発揮しにくくするという問題を持つ。国家権力の介入を嫌うアメリカの大学では、当事者間の評価（アクレディテーション）と市場による淘汰を通じて質の確保を図っている。日本の大学の質確保については、これまでの大学設置基準という政府による規制ならびに細かな行政指導から、評価と市場における淘汰へと大きく転換しつつある。国立大学や新た

に制度化されたロースクールなどの専門職大学院については評価機関による評価が義務付けられ、私立大学においても事実上必須になっている。とはいえ、評価と改革が連動するシステムは不十分で、評価のための評価、という見方も少なくない。市場における淘汰も、定員割れの私立大学がすでに40%になってはきているが、実際に倒産にまで及んだ事例は少なく、その場合の学生の取り扱い等、倒産後の処置の方法が制度化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逆に、大学設置基準自体は緩やかになっているが、その基準の遵守については、コンプライアンスの観点から文部科学省によって厳しくチェックされる。現在の日本における大学教育改革においては、したがって、大学の自主的改革が必須であり、それは社会的評価をめぐる大学間競争を通じて各大学に課せられている。

したがって、自立した私立大学こそ大学改革の先端を切らなければならないし、またその改革は私立大学教育の特質を生かした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ぞれの大学は自らのミッション、あるいはそのレゾン・デ・トルを明確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現実にはそこから来る他大学との競争優位を作り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私立大学の特質はまずその先進性、開拓性にある。学費収入に大きく依存する私立大学は学生の志望動向に敏感にならざるを得ないし、常に社会のニーズを把握し改革を進め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る。そこでは、産業界との連携や民間からの寄付などを積極的に開拓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る。そして官僚制にとらわれない、スピーディで柔軟な意思決定が可能である。もうひとつ指摘できる特質は多様性である。私立大学自体が多様に存在しうることに加えて、立命館大学のような大規模総合大学ではその内部に多様な学生構造がある。学問分野の多様性だけでなく、文化・スポーツ分野で活躍する学生も多数存在し、また出身階層も多様である。こうした多様性の中にもまれて、学生たちは多様な進路へと進んでいく。

それでは立命館の事例から具体的に見てみよう。立命館学園は、2大学、4附属高等学校、4附属中学校、1附属小学校を擁する私立総合学園であり、その財政規模は、2007年度の帰属収入で約730億となっている。

《図表挿入》

立命館大学における教育改革の第1の課題は、社会の要請する新たな教学領域の開発、つまり、新学部設置、高度専門職大学院展開などである。立命館大学は1986年段階では6学部6研究科であったが、2008年には12学部15研究科となった。それぞれに、他には無い、イノベーティブな特徴を持っている。

第2の課題は第1の課題とも関連するが、教学の国際化の推進である。立命館大学では1988年に関西地域では初の国際関係学部を開設したのを皮切りに、組織的な留学を進めるためにカナダのブリティッシュ・コロンビア大学（UBC）に毎年100名の学生を8ヶ月間派遣し、UBC学生とともに学び生活するプログラムを1991年に発足させた。さらに1994年からは、それまでの留学制度に加え、2年間を留学先で、2年間を立命館で学び最短4年で2つの大学の学位を取得するデュアル・ディグリー制度をアメリカン大学との間で実施している。このデュアル・ディグリー制度を修了した学生の国際感覚と語学力は非常に高い評価を受け、学内でもトップクラスの就職実績を誇る。これらの国際化推進の取り組みは2000年の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学（APU）設立の大きな原動力となった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APUとは教員・学生の半数を外国人で占め、日本語と英語の二言語で教育するという、これまでの日本にはなかったまったく新しい国際大学である。今、APUには83カ国・地域から約2600人の国際学生が学んでいる。特筆すべき事項としてはそのうち、韓国からの学生は約700名にもものぼり、国際学生の4分の1を占めるまでになっ

ていることである。今後も多くの優秀な韓国人学生がAPUにおける教学・研究の活性化と高度化に貢献してくれることと思う。

教育改革の第3の課題は多様で高い能力を持つ学生を多数確保することである。近年では入学者学力の向上がみられるとともに、スポーツ・文化分野のトップレベルの学生が入学してきている。これらの学生を中心として、全国有数の文化スポーツ活動の実績を残している。

高い能力のある学生を確保するための改革の一環として、附属学校の整備拡充がある。立命館にはもともと高校、中学がそれぞれ1校設置されていたが、この20年間に、4つの高校、4つの中学校、1つの小学校を擁するまで成長した。これは、小学校から大学・大学院に至るプロセスにおいて、受験勉強などの強制から離れて、一貫した理念と教育システムで新しい人材を作り上げていく試みとして展開している。

日本の教育においては東京大学を頂点とする高等教育の「偏差値」構造の中で、高等学校の評価も相対化されていく。その中で小学校から大学・大学院までの一貫教育は私立総合学園においてこそ可能な教育のオールターナティブであろう。今後は立命館の小中高一貫教育で育った生徒たちが大学進学後、各分野の先進的リーダー層として顕著な活躍を見せ、なおかつ大学・大学院における教育・研究水準の向上に多大な貢献をしてくれ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

なお、余談ではあるが、立命館大学は意欲と能力に優れた多様な学生を集めるために様々な入学試験方式を開発し、それを全国で展開することによって2001年以降毎年10万人前後の志願者を得ている。受験料は3万5000円であり、この受験料収入が毎年30億円と、財政的にも大きな位置にあることを付け加えておきたい。

第4の課題はカリキュラムや教学システムなど、教育と学びの管理システムの改革である。学生の変化に対応した系統的な学びのシステム作りが求められている。立命館で特に重視しているのは教育プロセスへの学生自身の参加である。それは教育自体が教員と学生の共同作業であるとともに、とりわけ日本では学生の受動的な態度が増えてきているからである。既存の学問を理解するというキャッチアップ型の学びから、自らの頭で考え創造性を持ったイノベーション型人材の育成を目指すものである。教育システムに関して言えば、日本では、文部科学省が行う大学教育改革として、各大学が取り組む教育プロジェクトの中から、国公私立大学を通じた競争原理に基づくプロジェクト支援として、「国公私立大学を通じた大学教育改革の支援」（GP＝「Good Practice」の略で、「優れた実践」という意味）を実施している。立命館大学からは、数々の取組みが採択を受けている。

《GPの採択状況、ランキング表》

第5の課題は学生の進路就職への支援、キャリア形成への支援である。ここでは、社会がどのような人材ニーズを持っており、それにはどのような能力を養成していく必要があるかを明らかにし、正課教育の中で、あるいは課外カリキュラムにおいてそれを展開している。またここでも学生の参加、ピアエデュケーションが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立命館大学のキャリア支援活動はここ数年一貫して全国一との評価を得ている。

近年では特に司法試験、国家公務員Ⅰ種試験、公認会計士試験の合格者の増加を大学の重要課題に位置づけ、1992年に設置されたエクステンションセンターを中心に組織的な支援体制を確立している。例えば資格取得に実績のある専門学校との協同体制による公認会計士養成プログラムの開発や、キャンパス内への専用の自習室の設置、そして在学中に難関試験に合格した学生には50万円の奨学金を支給するなどである。エクステンションセンターが開講する各種講座を受講した学生たちを対象に行なったアンケート調査による

と、一般的に学習時間が増加したことは勿論のこと、社会的な関心の高まりや、自主ゼミ・学習サークルへ積極的に参加するようになったなど、講座の受講が学生生活の充実に果たすシナジー効果が顕著にみられた。

《難関3分野合格者数》

2 私立大学改革の第2の課題 – 重点的研究活動の組織的展開

大学のもうひとつの重要な機能・役割については、日本ではこれまで国立大規模総合大学（旧帝国大学）中心に、人材も研究費も投入されてきた。しかしながら、相対的に弱い財政基盤のなかでも私立総合大学も高い研究力量を蓄積してきている。事実、文部科学省の国家重点プロジェクトである「グローバルCOE」には、2007年には早稲田大学、慶応大学、立命館大学がそれぞれ複数件のプロジェクトが採択されている。今後は個々の研究者の自主的、基盤的研究を支えながら、「選択と集中」方式で立命館大学が戦略的に取り組むべき重点的な研究分野の絞込みと、人材や資金の集中的投入を行っていく。

《COE採択件数ランキング表》

立命館大学は本年「立命館グローバル・イノベーション研究機構」を発足させた。これは地球と人類が抱える緊急課題に対して主として自然科学系での組織的研究を進める組織である。具体的には、エネルギー、材料・資源、環境、安全・安心・医療・健康の6領域に特化して15のプロジェクトを学内公募、研究費と研究員を投入する。引き続き、人文・社会科学分野でも同様のプロジェクトを組織化していく。これらの研究プロジェクトは、まずは大学の独自資金で出発するが、今後産業界の資金、国家プロジェクトとしての展開へと進むことになる。

《GIRO概要図表》

大学での研究活動は近年とりわけ若手研究者の要請と一体となって進められており、立命館大学においても博士後期課程の改革と合わせて、この研究活動が推進されているが、更に波及効果として期待されるのは現在日本で憂慮される「理科離れ」の防止である。この機構の研究成果を通じて、初等・中等教育に学ぶ生徒たちに科学技術に対する夢と希望を与え、更に自然科学系の学問に対する興味を醸成する環境作りに寄与するであろう。

3. 私立大学改革の第3の課題 – 社会貢献

大学は優れた研究教育機能を持つことから、国公立、私立にかかわらず、その機能を生かした、大学としての社会貢献が求められる。それは国際的レベル、ナショナルなレベル、ローカルなレベルそれぞれで求められる。立命館大学は京都、滋賀に、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学は大分県別府市に立地していることから、立命館の場合は国際的貢献、ローカルな貢献が中心である。従来日本の大学における国際貢献とは、個々の教員の研究活動の一環として行われるに過ぎなかったが、立命館大学では国際協力事業課というセクションを設立し、組織的・戦略的に国際貢献を推進している。具体的例としては日本のODA資金によるJICA協力プログラムを展開しており、例えば、中国の大学で管理運営を担う幹部を対象とする特別研修の開催などが挙げられる。単に立命館大学の過去の経験を伝承するのではなく、中国の高等教育情勢を踏まえながら日本および国際社会における大学の動向や改革状況の体系的な講義を行い、かつ、東京大学・京都大学・早稲田・慶応などを訪問し、個別具体的な改革事例をヒアリングするフィールドワーク活動もプログラムに組み込んでいるのが大きな特徴である。この幹部特別研修は中国だけでなくベトナムの大学からも広く研修生を受入れており、両国を合わせて**多数の研修生**が参加している。他にもマレーシア工科大学設立支援、ベトナムIT人材養成支援など、立命館大学では多様な**国際協力**プログラムが展開されている。

ローカルなレベルでの**地域貢献**や**社会協力**は、より多様に規模も大きく展開

されている。もともと、滋賀県草津市にあるびわこ・くさつキャンパスは滋賀県、草津市からの60ヘクタールもの土地の寄付によって創設されたものであり、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学も大分県、別府市からの土地、建物の寄付によって生まれたことから、地域とのかかわりは深い。大学そのものの経済的効果、地域への人材供給、地域の社会教育・学校教育への貢献、さまざまな学生ボランティアの地域への参加など、それぞれの地域の活性化に大きく貢献している。

4. 私立大学改革の第4の課題 — 財政基盤とガバナンスの確立

以上のような課題を遂行していく上で、財政基盤の確立と強力なリーダーシップを伴うガバナンスの確立がかかせない。

①財政基盤の確立

先に述べたように、日本の私立大学の財政基盤はきわめて脆弱で、収入の70%は学費に依存しており、一方での高学費構造と他方での教育条件の劣悪化という問題を常に持っている。公的資金は10パーセントあまりでしかない。政府・財務省は国立大学法人運営交付金とあわせて、私学助成についても毎年1%削減させる計画を実行しており、日本の高等教育は財政面から大きな危機を迎えている。こうした中で、日本の私立大学は、国立大学とも協力して、高等教育に対する財政支出をOECD平均にまで高めるキャンペーンを進める一方、安定した収入確保のための方策を進めている。長期的にはアメリカの私立大学のように、民間・個人からの寄付を基金とする運用収入を見込むことも重要であるが、短期的には学費収入によらざるを得ない。そこでは多少の高学費でも学生が確保できる魅力的な教学作りが不可欠である。さらに、研究面では産業界との連携、政府プロジェクトとの連携がますます重要になる。

立命館の場合、先に述べたように、BKC展開、APU設置にかかわって大型

の公私協力、具体的には、当該地方自治体からの巨額の寄付を得ることによって、新たな展開が可能となった。「公」からの資金を得るということは、それぞれのプロジェクトがその地域の発展にとって大きな意義を持つことが前提となる。大学改革は社会性、公共性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しかしながら近年の財政危機によって地方自治体からの大型助成の可能性はほとんどなくなっていることもあり、**今後はその財源を競争的資金の獲得に求めることになるであろう。**

産学連携についても、立命館は早くからリエゾンオフィスという独自の体制をとって、産業界のニーズの把握と大学におけるシーズとのマッチングに勤めてきた。その結果、この分野でも高い評価を受けている。**また、APU設置の際はアジアからの留学生への奨学金が成功の絶対的条件になるとして、日本の代表的企業からなるアドバイザリィ・コミティを組織化、48億円に上る寄付を募った。**

②ガバナンスの確立

国の規制が減少し、財政的支えも細くなる中で、大学間の競争的環境はますます激しくなっている。こうした環境の中で、大学のガバナンス、マネジメントのあり方が根本的に変革を迫られている。研究教育機関である大学は営利企業とは違って教員の自発性に依拠する部分が大いのだが、他方、社会変化が激しく、競争的環境が厳しい状況の中では強力なリーダーシップが求められているのである。日本の私立大学は、教授会主導のガバナンスとなっている大学と設置者である理事会主導の大学の二つのタイプがある。問題はこの理事会と教授会の権限、意思決定のバランスのとり方である。教授会主導型の大学は伝統的な大規模大学に多いが、社会変化に疎く、意思決定が遅いという問題を抱える。逆に理事会主導型は新設大学に多いが、しばしば教員に敬遠されステイタスが低いという問題を抱えている。

立命館は伝統的に教授会自治を大事にしてきた。と同時に、職員の参加や学生参加も重視し、総長のリーダーシップの下での全学的な取り組みを重視し

てきた。とはいえ、理事会のリーダーシップと教授会権限との緊張関係は常に存在し、しばしば激しくもなる。立命館のガバナンスの特徴はなによりもその組織構造にある。教学の最高責任者である総長は一貫して公選制であり、理事会の中心となる常任理事の多数は学部長によって占められている。そして次の問題はその組織をどのように機能させるか、当然ではあるが、理事会の政策提起能力、執行能力の向上が重要となるのである。大学はミッション共同体であって、教職員がそのミッションを共有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立命館は2006年、2年にわたる論議を経て立命館憲章を策定した。そこに、立命館の歴史とミッション、発展の基本方向、運営の基本原則を明らかにしている。そして最後に、政策形成から意思決定、執行のそれぞれのプロセスにおける教職員の丁寧な議論が重要である。

教員と職員が学園・教学創造に協働して取り組んでいることも立命館大学の大きな特色である。我々はこの伝統を「教職協働」と呼称する。教職協働は職員側に高い力量形成があってはじめて成り立つものであるとの認識の下、立命館では2005年に大学行政研究・研修センターを設置した。ここでは学内で選抜された職員を対象に自ら課題設定を行い、政策の立案・実行力を備えた幹部職員を養成する極めて実践的な研修プログラムを実施している。受講者は自身が所属する職場の課題を設定し、アンケートによる調査や分析を加え、日本国内およびイギリスやアメリカにおける海外調査の結果も踏まえた上で具体的な政策提案を行なう。この研修では立命館の職員のみならず他大学や企業からも聴講生を受け入れており、今後も日本の大学職員の力量向上と職員間のネットワーク形成に貢献したいと考えている。

むすび —— 立命館の到達点と展望

以上のように、立命館はこの20年余り、「改革のデパート」と評されるほど、改革を積み上げてきた。その結果が次に示す表である。

《立命館20年の発展——総長・理事長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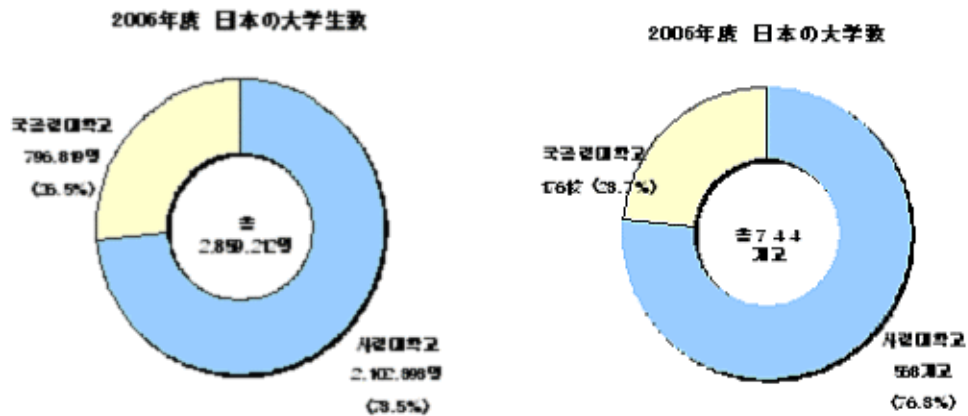
グローバル化が急速に進む中で、人材養成も研究も、したがって大学自体が国際社会の中におかれることになる。世界に通用する人材の養成、世界に発信する研究が現在の立命館の方向である。APUという日本で唯一とも言える真の国際大学の成功経験の共有に立って、立命館は**附属校を含めた学園全体で「世界に開かれたアジア太平洋地域の教育・研究拠点」を目指すことが「中期計画」において学園の使命・目標であると定めている**。そして立命館の目標は、「国際的な人材育成と研究の拠点を目指し、国際的通用性のある世界水準の教育の推進と特色ある研究拠点大学の地歩を固める」ことにある。それを可能にするための改革を今後もひとつずつ積み上げていくのだが、そのためには本日ここにお集まりの皆様のお力もお借りし、アジア諸国の政府や国際機関、大学との新たな連携・協力関係を構築していくことが何よりも重要であると私は考えている。

일본의 사립대학교 개혁 과제와 리츠메이칸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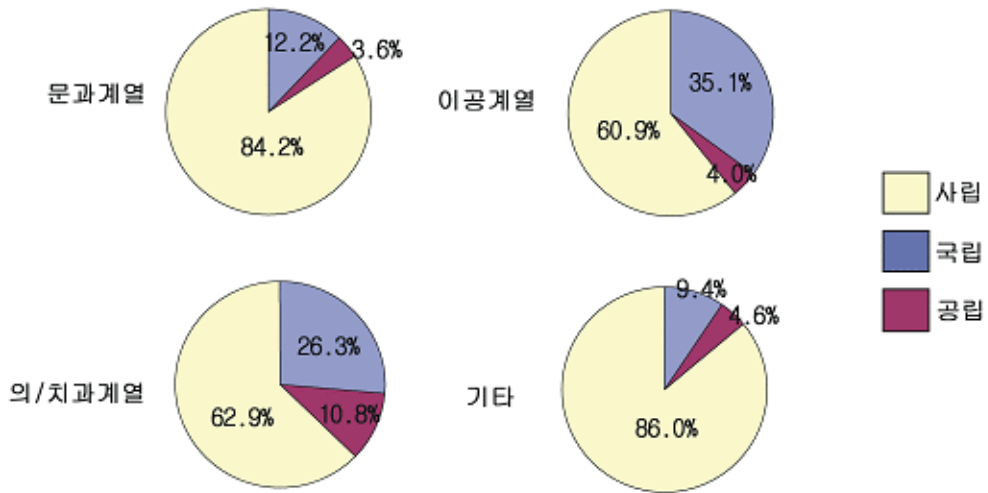
가와구치 키요후미(리츠메이칸대학교 총장)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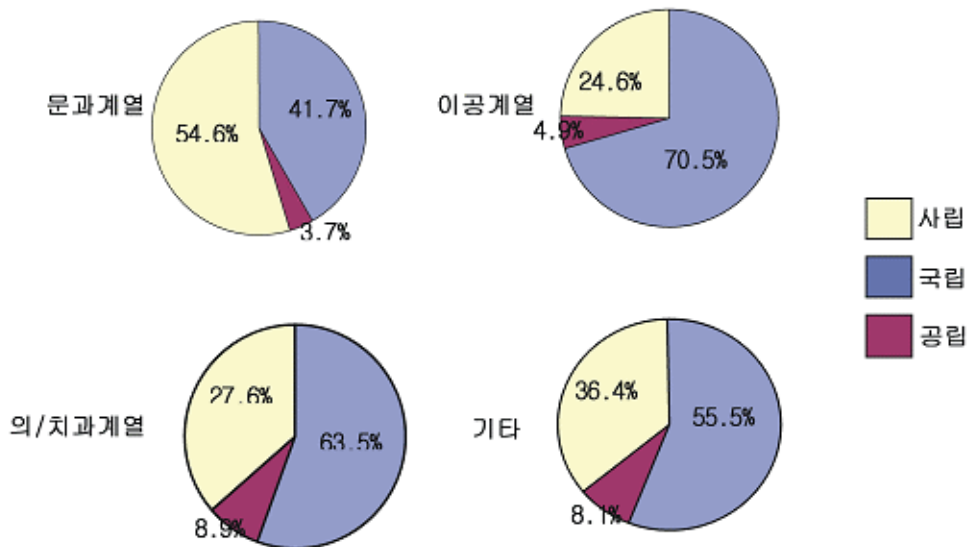
먼저 일본의 고등교육 상의 사립대학교의 위치를 짚고 넘어가자.



고등교육기관의 분야별 학생수 (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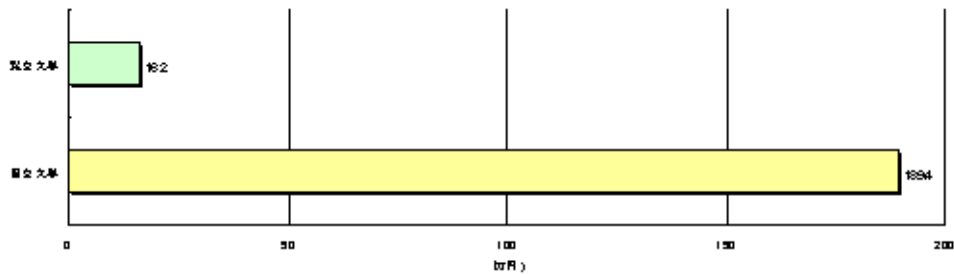
고등교육기관의 분야별 학생수 (대학원)



도표와 같이 일본 고등교육 상에서 사립대학교 학생수는 70%로 압도적

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30%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총 2.6조 엔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OECD 평균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입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사립대학교는 국가재정지출 수준이 낮은 것과, 국립-사립 간 격차라는 사립대학교가 안고 있는 소위 '이중 구조적 모순'이라는 힘든 상황 가운데 한층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 양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정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립대학교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일본의 대학 개혁은 있을 수 없다.

학생 1명 당 국비 보조금 지출액



사립대학교란 무엇인가?

그러면 먼저 사립대학교란 무엇인가? 세계 역사에서도 일본 역사에서도 대학교는 먼저 사립대학교로부터 출범하였다.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는 대학교육과 연구기능에 착안하여 국가의 관리 하에 둔 국립대학교를 만들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국립대학교도 많은 부분에서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지니고 있고 사립대학교 또한 공적인 지배 하에 있어서 그 차이는 좁아지고 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사립대학교란 먼저 법적 제도적으로는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대학교를 말한다. 학교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일종으로 사립학교법에

의거한 것이다. 공교육(학교교육법에 규정된 학교교육;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 중 의무교육은 초중교 총 9년)을 담당하는 학교는 공공기관 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 설치 인가 권한은 문부과학성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있다.

사립대학교 존립의 경제적 근거에 대해서 미국의 비영리조직론에서는 수요면에 있어서 초과수요와 차별화수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즉 '공적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급속히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등할 경우(초과수요)와 공적공급의 일률적인 서비스로는 커버할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차별화 수요)에 사립대학교는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공공재산과 사적재산의 두 측면을 가진 고등교육 서비스는 완전한 공공 공급에도, 자유 시장에도 맞지 않다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다. 즉 사립대학교는 단순히 국공립대학교의 보완적인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사회 안에서 고등교육의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1. 사립대학교 개혁의 첫번째 과제 - 교육의 질 향상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이 공급하는 공공 서비스는 그 공공성 및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통상적으로는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주성 및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연구 분야에서는 엄한 국가 규제는 민간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권력 개입을 싫어하는 미국 대학교에서는 당사자 간의 평가와 시장을 통한 도태를 통해서 품질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 대학교의 품질 확보는 기존의 대학설치기준이라는 정부 규제와 상세한 행정지도에서, 평가와 시장을 통한 도태로 크게 전환되는 시점에 있다. 국립대학교 및 새로 제도화된 로스쿨 등 전문직대학원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 받도록 의무화되어서 사립대학교에서도 사실상 필수적인 사항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평가와 개혁이 연동되는 시스템은 불충분한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견

해도 적지 않다. 시장을 통한 도태도 정원 미달인 사립대학교가 이미 40% 정도까지 늘어났지만 실제로 부도까지 다다른 사례는 적고 만약 부도가 났을 경우 학생들을 어떻게 하느냐 등 부도 이후의 처리방법이 제도화된 것도 아니다. 반대로 대학교 설치 기준 자체는 느슨해지고 있지만 그 기준준수에 대해서는 법령준수의 관점에서 문부과학성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대학교육개혁에서는 대학들의 자율적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둘러싼 대학교 간 경쟁을 통해 각 대학교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따라서 자율화된 사립대학교야말로 대학개혁을 선두해야 하고 이 개혁은 사립대학교 교육의 특성을 살린 것이어야 한다. 각 대학교는 스스로의 사명 또는 존재의의를 명확히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거기서 오는 다른 대학교에 대한 경쟁우위를 만들어내야 한다. 사립대학교의 특징은 무엇보다 그 선진성과 개척성에 있다. 등록금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사립대학교는 학생 지원동향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으며 항상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 때 산업계와의 연계 및 민간으로부터의 기부금 등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그리고 관료주의에 구애받지 않는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특성은 다양성이다. 사립대학교 자체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리츠메이칸 대학교와 같은 대규모 종합대학교에서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학생구조를 가지고 있다. 학문분야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문화/스포츠 분야에서 활약하는 학생도 많이 있고 출신 계층도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로 진출한다.

그러면 리츠메이칸의 구체적인 사례부터 살펴보자. 리츠메이칸 학원은 대학교 2 개, 부속고등학교 4 개, 부속중학교 4 개, 초등학교 1 개를 포진하는 사립종합학원이며 재정규모는 2007년도 귀속수입 기준으로 약 730억 엔이다.

리츠메이칸 대학교 교육개혁의 첫번째 과제는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

학영역 개발, 즉 새로운 학부 설치, 고도전문직대학원 전개 등이다. 리츠메이칸 대학교는 1986년 당시 6 개 학부 6 개 연구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2008년에는 12개 학부 15 개 연구과로 발전했다. 각 부/과가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첫 번째 과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교학 국제화 추진이다. 리츠메이칸 대학교는 1988년 일본 중서부에 위치한 칸사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국제관계학부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조직적인 유학을 추진하기 위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에 해마다 학생 100 명을 8 개월 동안 보내고 UBC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1991년부터 시작했다. 이어서 1994년부터는 기존의 유학제도와 함께 유학국가에서 2년간, 리츠메이칸에서 2년간 배우고 최단 4년으로 양쪽 대학교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복수학위제도를 아메리카 대학교와 공동으로 실시 중이다. 이 복수학위제도를 수료한 학생들의 국제감각과 어학능력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학교 내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취업실적을 자랑한다. 이러한 국제화 추진 노력은 2000년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APU) 설립에 큰 원동력이 된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APU는 교수/학생의 절반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일어와 영어 두 언어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기존에 일본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국제대학교다. 현재 APU에서는 83 개국/지역에서 온 유학생 약 2,600 명이 배우고 있다. 특기 사항으로는 그 중 한국 학생이 약 700 명에 이르며 유학생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앞으로도 많은 우수한 한국 학생들이 APU의 교학/연구 활성화 및 고도화에 기여해 주시리라 믿는다.

교육개혁 세 번째 과제는 다양하고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요즘은 입학자의 학력이 향상됐고 스포츠/문화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 전

국에서 유수의 문화/스포츠 활동 실적을 남기고 있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부속학교의 정비 확충이 있다. 리츠메이칸은 원래 중고등학교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20년 동안 고등학교 4개, 중학교 4개, 초등학교 1개를 두기까지 성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로부터 대학/대학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입시공부를 강요당하지 않고 일관된 이념과 교육시스템으로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는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 일본 교육에서는 도쿄대학교를 으뜸으로 하는 고등교육 '편차치' 구조 속에서 고등학교 평가도 상대화되었다. 그 가운데 초등학교에서 대학/대학원에 이르는 일관된 교육은 사립종합학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교육의 대안일 것이다. 앞으로는 리츠메이칸의 초중고 일관 교육에서 자란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 이후 각 분야의 선구적인 리더층으로 크게 활약하고 대학/대학원에 교육/연구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여담이지만 리츠메이칸 대학교는 의욕과 능력이 높은 다양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입학시험방식을 개발하고 전국에서 전개함으로써 2001년 이후 매년 10만 명 안팎의 지원자를 자랑한다. 응시료는 3만 5000엔이며 이 응시료 수입이 매년 30억엔이 되므로 재정적으로도 큰 비용을 차지한다는 것을 덧붙인다.

네 번째 과제는 커리큘럼 및 교학시스템 등 교육과 학습 관리시스템의 개혁이다. 학생 변화에 맞춘 계열적 학습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리츠메이칸에서 특별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교육 프로세스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참여다. 이는 교육 자체가 교수와 학생의 공동작업인 것과 동시에 특히 일본에서는 학생의 수동적인 태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학문을 이해한다'는 추종형 배움에서 스스로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창조성을 가진 혁신적 인재 육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교육시스템에 관해서 말하면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이 실시하는 대학교육개혁 프로그램으로서 각 대학

교가 추진하는 교육 프로젝트 중에서 국공사립대학교를 통한 경쟁원리에 의한 프로젝트 지원인 ‘국공사립대학교를 통한 대학교육개혁 지원’ (GP: Good Practice 약자로 ‘우수한 실천’이란 뜻)을 실시 중이다. 리츠메이칸 대학교에서도 몇몇 프로젝트가 채택되었다.

学部GP採択件数

順位	特色GP・現代GP採択状況	件数
①	立命館大学	8
①	同志社大学	8
③	金沢工業大学	7
③	慶応義塾大学	7
5	北海道大学	6
⑤	早稲田大学	6
⑤	日本福祉大学	6
5	大阪大学	6
5	広島大学	6
5	山口大学	6
5	筑波大学	6
12	群馬大学	5
⑫	立教大学	5
12	京都大学	5
⑫	京都精華大学	5
12	岡山大学	5
12	長崎大学	5

大学総数: 744校 ○는 私立大学

大学院教育프로그램採択件数

1	大阪大学	19
2	神戸大学	11
2	名古屋大学	11
4	北海道大学	10
4	東北大学	10
6	京都大学	9
6	東京工業大学	9
6	九州大学	9
9	東京大学	8
9	千葉大学	8
11	広島大学	7
⑫	早稲田大学	6
12	熊本大学	6
12	筑波大学	6
15	東京医科歯科大学	5
15	奈良先端大學	5
15	横浜国立大学	5
15	首都大学東京大學	5
15	一橋大学	5
⑳	慶應大学	4
⑳	立命館大学	4
⑳	同志社大学	4

○는 私立大学

다섯 번째 과제는 학생 취업지원 및 캐리어구축 지원이다. 사회가 어떤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지 밝히고 정과교육 속에서 혹은 과외 커리큘럼에서 그것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도 학생 참여, 학생간 상호교육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리츠메이칸 대학교의 캐리어지원활동은 최근 몇년 동안 일관적으로 일본 전국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특히 사법고시, 국가공무원1종시험,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증가를 대학교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1992년 설치된 익스텐션센터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예를 들어 자격 취득 실적이 있는 전문학교와 협력하여 공인회계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캠퍼스에 전용 학습실을 설치, 그리고 재학중에 난관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50만엔 씩 지급하는 등이다. 익스텐션센터가 설치한 각종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학습시간이 증가한 것은 물론 사회적인 관심 고조와 자율 세미나, 스터디 동아리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등 강좌 수강이 학생생활 충실화에 미치는 시너지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국가고시/공무원시험 합격자수(2007年度)

国家公務員 I 種(行政、法律、經濟)

大学	人
1 東京大	229
2 慶応義塾大学	60
3 京都大	59
4 早稲田大	59
5 東北大	34
一橋大	34
7 中央大	29
8 立命館大	21
9 大阪大	17
10 九州大	15
金沢大	12
神戸大	12
北海道大	12
14 岡山大	8
筑波大	8
広島大	8
同志社大	8
18 首都大学東京	7
法政大	7
明治大	7
21 名古屋大	6
大阪市立大	6
関西学院大	6
上智大	6
25 専修大	5
立教大	5
27 関西大	4
中京大	4
北海学園大	4
30 千葉大	3

大学	人
30 東京工業大	3
北九州市立大	3
学習院大	3
34 横浜国立大	2
東京理科大	2
日本大	2
37 愛知教育大	1
大阪外国語大	1
小樽商科大	1
鹿児島大	1
鳥根大	1
信州大	1
東京医科歯科大	1
東京外国語大	1
東京学芸大	1
名古屋工業大	1
福島大	1
神戸市外国語大	1
愛知大	1
愛知学院大	1
青山学院大	1
桜美林大	1
金沢工業大	1
成蹊大	1
西南学院大	1
創価大	1
第一工業大	1
東京歯科大	1
独協大	1

国家公務員 I 種(理工、農学)

大学	人
1 東京大	208
2 京都大	115
3 九州大	46
北海道大	46
5 東北大	40
6 東京工業大	33
7 東京理科大	30
8 大阪大	29
9 早稲田大	27
10 東京農工大	23
11 筑波大	20
12 名古屋大	13
13 慶応義塾大	12
14 神戸大	11
15 千葉大	10
立命館大	10
17 岡山大	8
横浜国立大	8
19 金沢大	7
20 広島大	6
中央大	6
法政大	6
23 首都大学東京	5
24 上智大	4

국가고시/공무원시험 합격자수(2007年度)

新司法試験		公認会計士	
大学	人	大学	人
1 東京大	178	1 慶応義塾大学	411
2 慶応義塾大学	173	2 早稲田大	293
3 中央大	153	3 中央大	150
4 京都大	135	4 神戸大	105
5 早稲田大	115	明治大	105
6 明治大	80	5 同志社大	102
7 立命館大	62	6 東京大	99
8 一橋大	61	7 一橋大	94
9 同志社大	57	8 京都大	73
10 北海道大	48	9 立命館大	71
11 東北大	47		
12 神戸大	46		
13 名古屋大	41		
14 千葉大	40		
上智大	40		

2. 사립대학교 개혁의 두 번째 과제 - 중점적 연구활동의 조직적 전개

대학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역할에 있어서, 일본은 지금까지 대규모 국립종합대학교(구 제국대학교)를 중심으로 인재와 연구비를 투자해 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재정기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종합대학교도 높은 연구 역량을 축적해오고 있다. 사실 문부과학성의 국가중점 프로젝트인 '글로벌 COE'에는 2007년에는 와세다 대학교, 케이오 대학교, 리츠메이칸 대학교에서 각각 몇 가지 프로젝트가 채택되었다. 앞으로는 개개인의 연구자들의 자율적이고 기반적인 연구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리츠메이칸 대학교가 전략적으로 노력해야 할 중점적 연구 분야 압축과 인재/자금 집중 투자를 실시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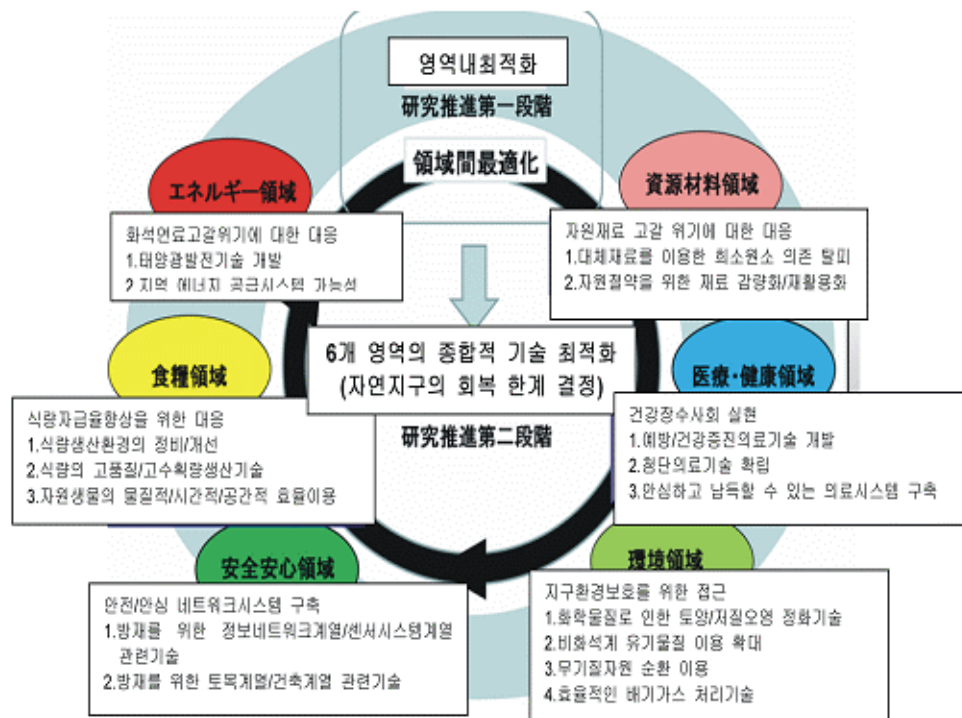
21세기COE프로그램/글로벌COE프로그램 채택 건수

順位	21世紀COE (2002~2004)採 択数	件数	順位	글로벌COE (2007)採択件数	件数	順位	종합 랭킹	件数
1	東京大学	28	1	大阪大学	7	1	東京大学	34
2	京都大学	23	2	東京大学	6	2	京都大学	29
3	大阪大学	15	2	京都大学	6	3	大阪大学	22
4	名古屋大学	14	4	東北大学	5	4	東北大学	18
5	東北大学	13	4	東京工業大学	5	5	名古屋大学	17
6	北海道大学	12	6	早稲田大学	4	5	東京工業大学	17
7	東京工業大学	12	7	北海道大学	3	7	北海道大学	15
8	慶應義塾大学	12	7	名古屋大学	3	7	慶應義塾大学	15
9	早稲田大学	9	7	慶應義塾大学	3	9	早稲田大学	13
10	九州大学	8	10	立命館大学	2	10	九州大学	10
11	神戸大学	7	10	九州大学	2	11	神戸大学	7
12	広島大学	5				12	立命館大学	6
13	筑波大学	4				13	広島大学	5
13	千葉大学	4				14	筑波大学	4
13	一橋大学	4				14	千葉大学	4
13	立命館大学	4				14	一橋大学	4

리츠메이칸 대학교는 올해 '리츠메이칸 글로벌 혁신 연구기구'를 발족시켰다. 이는 지구와 인류가 안고 있는 긴급과제에 대해서 주로 자연과학분야에서 조직적인 연구를 추진할 조직이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원자재/자원, 환경, 안전/안심, 의료/건강 등 6개 영역에 특화하여 15개 프로젝트를 학교내에서 공모하고, 연구비와 연구원을 투자한다. 이어서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도 동일한 프로젝트를 조직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들은 처음에는 대학교의 자체 자금으로 출범하지만 이후 산업계 자금, 국가프로젝트로서의 전개로 발전해 나간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연구기구

R-GIRO



대학교에서의 연구활동은 최근 특히 젊은 연구자들의 요청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리츠메이칸 대학교에서도 박사후기과정 개혁과 함께 연구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파급효과로 기대되는 것은 현재 일본에서 우려되는 '이과 기피 현상' 방지이다. 이 기구의 연구성과를 통해서 초등/중등 교육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아울러 자연과학계열의 학문에 대한 관심을 조성하는 환경 정비에 기여할 것이다.

3. 사립대학교 개혁의 세 번째 과제 - 사회 공헌

대학교는 우수한 연구 교육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국공립/사립에 상관없이 그 기능을 살린 대학교로서의 사회공헌이 요구된다. 이는 국제적차원, 국가차원, 지역차원에서 각각 요구된다. 리츠메이칸 대학교는 교토와 시가현,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는 오이타현 벳부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리츠메이칸의 경우 국제적 공헌과 지역적 공헌이 그 중심이다. 원래 일본 대학교의 국제공헌이란 각 교수의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쳤지만 리츠메이칸 대학교에서는 국제협력사업과라는 부서를 설치하고 조직적/전략적으로 국제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일본 ODA자금으로 JICA협력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중국 대학교에서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연수 프로그램 개최 등이 있다. 단순히 리츠메이칸 대학교의 과거의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고등교육현황을 감안하여 일본 및 국제사회의 대학교 동향이나 개혁상황에 관한 체계적인 강의를 실시하고, 동시에 도쿄 대학교/교토 대학교/와세다 대학교/케이오 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개별적/구체적인 개혁 사례를 조사하는 답사활동도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것이 큰 특징이다. 이 간부 특별 연수는 중국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대학교에서도 널리 연구생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두 나라에서 수많은 연수생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공과대학교 설립 지원, 베트남 IT인재 육성지원 등 리츠

메이칸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다. 지역차원의 지역공헌활동 및 사회협력은 보다 더 다양하고 큰 규모로 전개되고 있다. 시가현 쿠사츠시에 있는 비와코/쿠사츠 캠퍼스는 시가현, 구사츠시에서 기증 받은 60헥타르 땅에 건립된 것이며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도 오이타현, 벳부시에서 대지와 건물을 기증받고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역과의 인연은 깊다. 대학교 자체의 경제적효과, 지역에 대한 인재공급, 지역 사회교육/학교교육에 대한 기여, 여러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지역 사회 참여 등 각각 지역에서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사립대학교 개혁의 네 번째 과제 - 재정기반 및 지배구조 확립

이상과 같은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기반 확립과 강력한 리더쉽을 동반하는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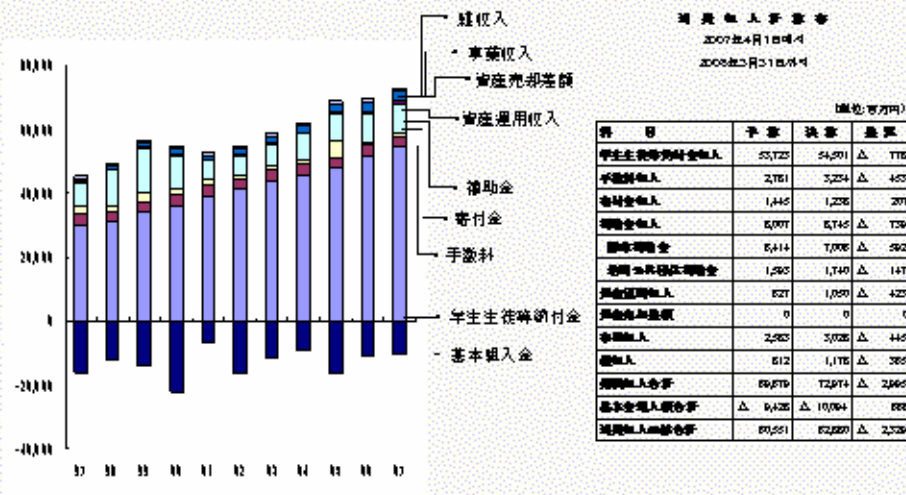
1) 재정기반 확립

앞서 말한 대로 일본의 사립대학교 재정기반은 매우 연약하고 수입의 70%는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비싼 등록금 구조,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조건 열악화란 문제를 항상 안고 있다. 공적자금은 10여%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재무성은 국립대학교법인 운영교부금과 함께 사립학교 조성에 대해서 매년 1% 씩 재정을 감축하는 계획을 실행 중이라 일본의 고등교육은 재정면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사립대학교는 국립대학교와도 협력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을 OECD평균치까지 높이려는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 편, 안정적인 수입확보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사립대학교처럼 민간/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을 기금으로하는 운용수입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등록금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거기서는 비교적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학 조성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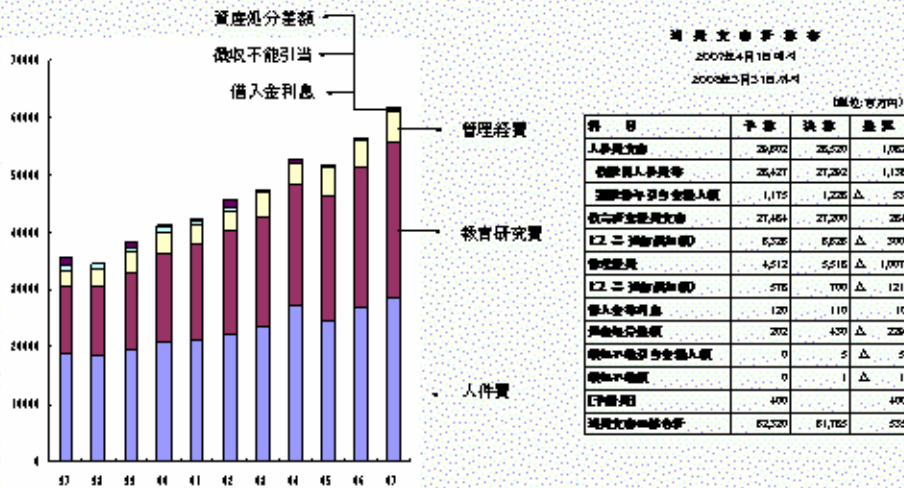
적이다. 아울러 연구 측면에서는 산업계와의 연계, 정부프로젝트와의 연계가 더더욱 중요해 진다.

리츠메이칸의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와코/쿠사츠 캠퍼스(BKC) 전개, APU 설립에 있어서 대형 공-사협력,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기부금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전개가 가능해졌다. 공공부문에서 자금을 받는다는 것은 각 프로젝트가 해당 지역 발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전제가 된다. 대학개혁은 사회성/공공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재정위기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대형 조성금 지급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는 배경도 있어, 앞으로는 그 재원을 경쟁적 자금 획득으로 채워야 할 것이다.

리츠메이칸학원 소비수입 추이



리츠메이칸학원 소비수입 추이



산학연계에 대해서도 리츠메이칸은 일찍부터 리에존오피스라는 독자적인 체제를 갖추고 산업계 수요 파악과 대학교 측 공급을 맞추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이 분야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APU 설립 시에는 아시아에서 오는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학교성공의 절대적 조건이 된다는 인식 하에 일본 내 대표 기업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조직화하여 43억 엔에 이르는 기부금을 모았다

2) 지배구조 확립

국가 규제가 감소하고 재정적 지원도 축소되는 가운데 대학교 간 경쟁적 환경은 더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대학교의 지배구조 및 경영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 연구교육기관인 대학교는 영리기업과는 달리 교수의 자발성에 의거하는 부분이 크지만 한

편에서 사회변화가 급격하고 경쟁적환경이 거센 상황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다. 일본 사립대학교는 교수회가 주도하는 지배구조를 가진 대학교와 설립자인 이사회가 주도하는 대학교 두 가지가 있다. 문제는 이 이사회와 교수회의 권한, 의사결정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다. 교수회 주도형 대학교는 전통적인 대규모 대학교에 많은 유형인데 사회변화에 둔감하고 의사결정이 늦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이사회 주도형은 신설대학교에 많은데 때때로 교수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위상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리츠메이칸은 전통적으로 교수회의 자율성을 소중히 해왔다. 이와함께 직원 참여, 학생 참여도 중시하여 총장의 리더쉽 하에서 범학교적인 노력을 중요시해 왔다. 하지만 이사회 리더쉽과 교수회 권한 사이의 긴장관계는 항상 존재해 왔으며 때때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다. 리츠메이칸의 지배구조 특징은 무엇보다 그 조직구조에 있다. 교학 최고책임자인 총장은 일관적으로 공선제로 뽑히며 이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상임이사의 대부분은 학부장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그 조직을 어떻게 제 기능을 하게 하느냐인데 당연히 이사회의 정책제기능력/집행능력 향상이 중요해진다. 대학교는 사명공동체이므로 교직원이 그 사명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리츠메이칸은 2006년에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리츠메이칸현장을 책정했다. 거기에 리츠메이칸의 역사와 사명, 발전 기본방향, 운영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형성 상 의사결정, 집행의 각각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교직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중요하다.

교수와 직원이 학교/교학 창조에 협력하여 노력하는 것도 리츠메이칸 대학교의 큰 특징이다. 우리는 이 전통을 '교직협동'이라 부른다. 교직협동은 직원 측으로부터의 높은 역량형성이 있어야 비로서 성립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리츠메이칸에서는 2005년에 대학행정연구/연수센터를 설치했다. 여기서는 학교 내에서 선발된 직원을 대상으로 스스로 과제설정을 하면서 정책 입안/실행능력을 겸비한 간부직원을 육성한다는 매우 실천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수강생은 자신이 소속하는 부서의 과제를 설정하고 설문조사와 분석을 거쳐, 일본 국내 및 영국/미국 등지에서 실시한 해외조사 결과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이 연수에서는 리츠메이칸 직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나 기업에서도 청강생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본 대학교 직원의 역량 향상과 직원 간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결론 — 리츠메이칸의 도달점과 전망

위와 같이 리츠메이칸은 이 20여년 동안 ‘개혁의 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개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가 다음의 도표에 나타나 있다.

1979년 이후의 리츠메이칸학원의 도달점

	1979年度	2007年度	増加数 (割合)
大学数	1 (立命館大学)	2 (立命館大学, APU)	1増
学部数	6 (法, 経, 営, 産, 文, 理工)	12 (法, 経, 営, 産, 国際, 政, 文, 理工, 情報, 映像, APS, APM)	6増
大学院数	6 (法, 経, 営, 社会, 文, 理工)	17 (法, 経, 営, 社会, 文, 理工, 国際, 政策, 応用人間, 先端総合学術, 言語教育, 法務, MOT, 経営管理, 公務, APUアジア太平洋, APU経営管理)	11増
付属校数	1 (立命館)	5 (立命館, 立命館宇治, 立命館慶祥, 立命館守山, 立命館小学校)	4増
海外大学の協定校数	1機関	256大学・機関 (*2007.05現在)	
学部学生数(下段内数に理工系学部学生数)	22,416	(立命館大学)32,369+(A P U)5,128	167%
大学院学生数	3,234	7,930	245%
生徒数	158	(立命館大学)3,245+(A P U)220	2193%
生徒数 (立命館)	1,348	6,234 (立命館, 立命館宇治, 立命館慶祥, 立命館守山, 立命館小学校)	462%
合計(学部学生数, 大学院学生数 및 生徒数)	23,992	47,196	197%

		1979年度	2007年度	増加数 (割合)
教員数		347	(리츠메이칸 대학교)1,156+(A P U)185	386%
職員数		309	(리츠메이칸 대학교)506+(A P U) 89	193%
(下段は契約職員数)			(리츠메이칸 대학교)434+(A P U) 63	
教諭数		58	374	645%
合計(教員数、職員数 및 教諭数)		714	2,807	393%
キャンパス数		3	9	6増
面積	建物	135,773.53㎡	600,043.02㎡	442%
	土地	530,666.57㎡	2,154,298.28㎡	406%
帰属収入		85億9000万円	698億37百万円 (注1)	1186%
資産		217億3000万円	2,952億86百万円 (注1)	1359%
科 研	件数	40件(注2)	276件	690%
	採択金額	46,100千円(注2)	736,090千円	1597%

* (注1)는 2006年度, (注2)는 1989年度の 数値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인재육성 및 연구 분야에서 대학교 자체가 국제사회 속에 놓이게 됐다. 세계 수준의 인재 육성, 세계로 내보낼 수 있는 연구가 현재 리츠메이칸의 목표다. APU라는 일본 유일이라 할 수 있는 진정한 국제대학 성공경험의 공유에 입각하여 리츠메이칸은 부속학교 들을 포함한 학원 전체로 '세계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육/연구 거점'을 지향하는 것을 '중기계획'에서 학원의 사명/목표로 정했다. 그리고 리츠메이칸의 목표는 '국제적인 인재육성과 연구 거점을 지향하고 국제적으로 통하는 세계수준의 교육 추진과 특색 있는 연구거점 대학교로서의 지위를 다지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개혁을 앞으로도 하나씩 쌓아가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빌려 아시아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대학교와의 새로운 연계/협력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 제 발 표 III

발 표

이 배 용(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대학 교육에서의 인성교육과 인문학

이 배 용(이화여자대학교 총장)

1. 대학의 역사

오늘날 대학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상황에서 대학의 기능과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원론적 질문들이 다시 대학 사회에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대학의 목표는 보편적 진리의 탐구에 있는가, 아니면 실용적 가치의 추구에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대학은 완전한 교양인을 양성하는 곳인가, 아니면 직업 전문인을 양성하는 곳인가, 또 대학의 중요 기능은 연구인가 교육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논점들에 대해 지금 서로 다른 의견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기원을 한 번 살펴보는 것이 과거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서 미래를 비춰 본다는 의미에서 유익하고, 이를 통해 하나의 해결 방안과 예지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한국 전통 사회에서도 나름의 대학이 있었지만 요즘 대학들의 형태는 실제로 서양의 대학, 미국의 대학을 기본 모델로 삼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선 서양 대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12세기 말쯤에 대학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당시에 있었던 대학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University' 개념은 아니었다. 당시 대학은 하나의 길드로서 교수 조합과 학생 조합이 합쳐진 교육 길드에 해당 되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왜 이러한 대학이 필요하게 되었는가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경제적인 발전에 있었다. 도시와 상업의 발달은 인간의 끊임없는 지식의 탐구와 같은

욕구를 자극하게 된다. 즉 경제력이 향상됨으로써 사람들은 교육과 학문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늘어나 대학들의 전문인 양성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중세 시기에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끊임없는 진리의 탐구였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학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진리 탐구 기능에 기초하여 이 시기의 대학에서는 보편성과 자율성, 그리고 진리에 대한 탐구, 이러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의 보편성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은 세계화, 국제화 등이 보편성을 갖지만, 당시의 보편성은 기독교였다. 근대로 가면 종교 개혁 때문에 분산이 되면서 국가주의가 되지만 그 시기에 유럽은 일맥상통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1단계 시기의 대학에서는 보편성, 자율성, 진리 탐구의 이념, 그러한 순수한 진리 탐구가 강조되었다. 그러다가 2단계인 16세기에서 19세기 전반까지 르네상스라든가 산업혁명과 과학혁명 등을 거치면서 오히려 대학은 침체기로 빠지게 된다. 그 이유는 일련의 변화들과 같은 모든 효율적인 내용들이 대학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학 밖에서 이루어졌고, 대학이 절대 군주의 왕정 체제에서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속을 받게 되면 학문의 자유는 축소되게 된다. 그러면서 산업혁명과 같은 조짐 속에서 대학 교육은 실용주의, 공리주의 위주로 가면서 이 시기에 대학의 연구력은 대폭 떨어지게 되고, 오로지 그야말로 교양인을 만드는 교육으로만 진행이 되게 된다. 그러나 교육도 중요하고, 사회봉사도 중요하지만 연구가 없으면 대학의 생산력, 대학의 지적 순환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인 16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를 대학의 침체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3단계로 가면 이전까지 대학이 지나치리만큼 실용주의적·공리주의적으로 빠진 것에 대한 반성을 통해 결국 다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성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부각이 되고, 이와 더불어 전인적인 교육 등을 강조하면서 대학은 상아탑의 영역을 철저히 쌓기 시작한다. 그 다음 4단계인 20세기

후반부터 우리가 소위 'Multiversity'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풍조가 대학 사회에 등장한다. 현대의 새로운 풍조인 'Multiversity'는 대학이 교육, 연구, 사회봉사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산학연구와 같은 것들과 상당히 연결이 되는 것이다.¹⁾

결국 대학의 이념이 시대에 따라 변하거나 그 강조점이 변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대학이 어느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어느 시대에는 그렇지 못한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진리 탐구'라고 생각한다. 즉 대학이 '진리의 탐구'라는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시대와 지나치리만큼 야합했을 때 대학의 그런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자유로운 학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살리면서 그 사회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가능한 한 객관성을 유지할 때 대학의 순수 학문적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한국 대학의 전통에서는 국학, 태학, 국자감을 이어 조선 시대에 성균관이 일종의 최고 학부로서 대학의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서양의 제도하고는 물론 다르지만 대체로 우리 전통의 교육, 최고 학부에서의 교육은 윤리·도덕에 대한 인문학적 가치, 인간다움과 같은 것이 가장 지배적이었고 또한 국가와의 관계가 아주 긴밀하였다. 최고 학부에서 양성하는 인재들은 모두 관료가 되기 위해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고 또 그 속에서 유교 경전과 같은 것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또 이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관료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덕·윤리를 내세우면서 그 시대의 지표가 되는 역할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통유학교육은 첫째 교육방법에서 수신을 통해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추구한다. 둘째 교육내용면에서 문학·역사·철학·예악·정치·사회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균형감각을 갖추어 인성과 지도력을 함양하게 힘썼다.

1) 김영한, 「서양의 대학: 역사와 이념」, 『한국사시민강좌 18집』, 일조각, 1996. 참고

셋째 유교교육의 지향점은 자기충실과 타인과의 조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의 지혜를 일깨워 주었다는 점이다.

이후 근대에 이르러 한국 사회는 서양 학문이 들어오면서 해방 이후의 대학들이 서양의 대학을 모델로 하는 풍토를 가지게 된다.

우리가 앞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국가와의 관계에서 서로 호혜적으로 설득하면서 갖출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 이상과 현실 속에서 대학 학문의 순수성과 실용성을 어떻게 적절히 균형을 잡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와 국가의 경쟁력 수준이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고 할 때, 결국은 대학이 균형 잡힌 판단을 통해 모든 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양적인 발전, 과학의 발달, 물질의 풍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학의 교육은 정신적인 것에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거기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명을 선도하면서 이끌어 가는 진리 탐구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기반에서 실용성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대학이 산소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물결 같은 부드러운 힘으로서 인간다운 세상을 주도하고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인성교육과 인문학

“인성(人性)교육”이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풀어본다면 인간의 인간됨 교육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인간됨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의 생존을 견인해온 원리에 충실하면서 인류의 공생과 번영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삶의 기술을 객관적 지식의 형태로 축적시키고 발전시

키면서, 자신의 몸을 대신하는 기계와 기술을 통해서 강력한 생존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 원리는 가치와 규범이라는 문화적 전략을 통해 인간적 삶의 양식을 재생산해왔다는 것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교육은 따라서 지식의 전수와 가치와 규범의 전승으로 모아진다. 오늘날 인간이 소유하게 된 지식의 체계는 매우 정교해져서 우주를 탐사하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와 가까운 행성에 여행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지식의 전수는 오늘날 다양한 학문체계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영역은 이 우주 내 인간 종의 생존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과학 기술의 발달은 이제껏 인간의 지식이 축적되고 활용되던 방식으로부터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세계에 관한 객관적 지식의 확보는 인성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우리의 믿음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지식에 바탕하지 않는다면 맹목적 이념추종이 지식을 대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전통 안에서 강조되었던 지(知), 정(情), 의(義)에서도 이성적 앎이 인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간 삶에 있어서 정서적 함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성현들의 고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정감적 능력은 인간에게 다른 인간과 자연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타인과 공감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 자연을 느끼고 그 감흥을 표현하며 타인과 그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회적 능력은 실상 이러한 정감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타인과 공감하고 역지사지 할 수 있는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 또한 예술 경험과 인문학적 사유인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았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남의 고통을 보고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아이가 울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남이 웃으면 절로 입가에 웃음이 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태도이며 인간이 하나의 유적 존재로 지금껏 생존

할 수 있었던 무의식적 전략이기도 했던 것이다.

인성교육의 지적 측면과 정적 측면 외에도 의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는 유교문화 안에서 매우 중시되었던 가치로서 행위의 올바름, 의로움(정의)과 관계가 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로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들 속에서 살아간다. 이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원리나 규범의 질서, 가치를 만들어 내재화시켜온 것이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선택의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를 문제는 인간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성교육에 있어서 윤리 교육은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을 구성하지만, 윤리 교육만큼 어려운 일도 또한 없다. 이제껏 우리가 익숙한 윤리 교육은 “거짓말 하지 말라”와 같은 윤리적 강령을 직접적으로 교육한 것이었다. 이러한 주입식 윤리 교육은 윤리적 행위에 대한 상벌체계가 점차로 약화되어가는 최소 윤리사회에서는 빛을 발하기 어렵다.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최대 윤리의 사회라기 보다는 최소 윤리에 바탕한 합리적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 안에서 인간 교육은 직접적 강령의 주입이 아니라 스스로 윤리적 판단을 하도록 가치판단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다. 윤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택의 결과와 행위의 책임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우는 일은 다양한 인간 삶의 상황들을 섭렵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 다양한 선택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문학이나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풍부한 인간 삶의 모습과 선택을 제시하고 있으며, 철학은 윤리적 가치와 원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해준다. 인성교육에서 지, 정, 의의 측면을 고루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인문학은 매우 소중한 교육의 보고가 된다.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 인간은 배움에 대한 근본적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인간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중요한 특질은 내면성과 자기성찰성이다. 인문학의 많은 저술들은 이러한 인간 내면성과 깊이 연관되어있으며 이러한 내면성의 함양이 배양시키는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사유 능력의 함양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냥 앉아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생각의 여러 갈래 길들을 만들어놓았다. 이러 저러한 갈래들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힘이 키워지면 우리는 새로운 생각의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으며,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럼으로써 더 많은 생각의 길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사유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2) 분석 능력의 함양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새로운 변화를 위해 버릴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소중히 가꿀 수 있는 균형잡힌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러 가지의 생각의 갈래 길을 걸었던 사람은 그에 비추어 사물과 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눈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석력과 비판적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비판은 무조건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정밀한 사물의 객관적 분석력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합리적 사고가 정립될 수 있다.

3) 상상력의 함양

인간의 도덕적 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태도이다. 역지사지의 능력은 인간관계 기술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의식적 반성을 가능하게 한다. 역지사지의 능력은 상상력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상상력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예술적 능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소통 능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배움 능력의 함양

논어는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그 아니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배움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스스로 묻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문명을 지금껏 견인해온 힘인 것이다. 이 근원적 호기심과 배우고자 하는 동기는 자기 자신 안에서 주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의 근원적 내면성의 표현인 것이다.

5)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

인문학적 사유는 단순히 자기 속에 침잠하여 묵상하는 사유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아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 다양한 인간 삶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시시각각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능력을 높일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인간 삶의 우연성에 대처할 수 있는 예지력을 키워줄 것이다.

3. 고전(古典)을 통해 본 인성교육의 사례

(참고자료 첨부)

〈참고자료 1〉

目察秋毫之末

耳不聞雷霆之聲

耳調玉石之聲

目不見泰山之高

淮南子
俶真訓篇

〈참고자료 2〉

화왕계(花王戒)

설 총[薛聰, 생물연대 미상, 신문왕대]

신문대왕(신라 31대 왕, 재위: 681년-692년)이 한여름 5월에 높고 밝은 방에서 설총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오늘 장마가 처음 개이고 향기로운 남풍이 약간 서늘하니, 비록 맛 좋은 음식과 듣기 좋은 음악이 있다 해도 고아한 이야기와 유쾌한 해학으로 울적한 마음을 푸는 것만은 못하리라. 그대는 반드시 색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터이니 어디 한번 나를 위해 말해보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설총은 “알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제가 들은 것은 옛날에 화왕이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니 봄철이 되자 예쁘게 피어나 온갖 꽃을 뛰어넘어 홀로 빼어났습니다. 그러자 가깝고 먼데서 곱디곱디 아름다운 꽃의 정령들이 바삐 달려와 화왕을 알현하고자 하여 오로지 다른 이에게 뒤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이때 홀연히 붉은 얼굴과 옥 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미인 하나가 간들간들 오더니 얌전한 자태로 다가서서 말하기를 ‘저는 눈처럼 흰 물가의 모래를 밟고,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마주보며, 봄비에 목욕하여 때를 씻어내고, 맑은 바람을 쏘이면서 스스로 노닐거니와 이름은 장미라 합니다. 대왕의 밝은 덕망을 들었는지라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잠자리를 받들고자 하오니 왕께서는 저를 받아주실는지요’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장부 하나가 베 옷에 가죽 띠를 매고 백발에다 지팡이를 짚은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구부정하게 와서 말하기를 ‘저는 서울 바깥 큰길가에 자리잡아, 아래로는 넓고 먼 아득한 광야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빛에 의지해 살거니와 이름은

백두옹이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비록 좌우에서 받들어 올리는 것들이 넉넉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며 의복이 장롱 속에 쟁여 있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좋은 약으로는 원기를 북돋우고 독한 침으로는 병독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실과 마로 짠 베가 있다 해도 거적이나 띠풀 같은 물건을 버리지 않나니, 무릇 모든 군자들은 인재가 부족할 때 대신 쓰이지 못할 이 없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왕께서도 역시 이러한 생각이 있으신지요'라고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이가 '두 사람이 왔으니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버릴 것입니까' 라고 묻자, 화왕은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지만 미인은 얻기 어려운 것이니 이일을 어찌할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부가 나와 말하기를 '저는 왕께서 총명하여 이치를 알리라고 생각해서 왔던 것인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닙니다. 무릇 임금된 사람치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정직한 사람을 멀리 하지 않는 이가 드무나니, 이 때문에 맹가가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고 풍당은 낭서 따위로 썩어 흰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러했거늘 전들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니, 화왕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다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왕이 서글픈 얼굴빛을 지어 말하기를, "그대의 우화에 실로 깊은 뜻이 있도다. 글로 써서 왕된 이들의 경계로 삼아야겠다" 하고는, 마침내 설총을 높은 관직에 발탁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 수록

〈참고자료 3〉

차마설(借馬說)

가정 이 곡 [稼亭 李 毅, 1298~1351]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말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 아침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을 아버로부터, 지어미는 지 아버로부터, 비복(婢僕)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迷惑)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百乘)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차마설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가정집(稼亭集) 수록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참고자료 6〉

재물을 오래 간직하는 법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

세상의 옷과 음식의 자료나 재화, 재물은 모두 부질없는 것들이다. 옷은 입으면 헤어지기 마련이고, 음식은 먹으면 썩기 마련이며, 재물은 자손에게 전해주어도 끝내는 탕진되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다만 한가지, 가난한 친척이나 가난한 친구에게 나누어 주는 것만이 영구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중국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큰 부자인 의돈의 창고에 보관 되었던 재물은 흔적이 없으나, 한나라 때 소부가 받은 황금이야기는 아직도 전해내려 오고 있다. 소부의 이름은 소광인데 태자의 스승을 지냈으며 나중에 황제로부터 받은 황금 수십 근을 모두 주변 어려운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진나라 때 큰 부자인 석승의 별장이 있던 금곡의 그 많던 비단은 한갓 티끌로 변했으나, 송나라 때 재상 범중엄이 친구를 돕기 위해 보리를 실어 나르던 배 이야기가 여전히 칭송을 받으니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형제가 있는 것은 파괴되기 쉽지만 형체가 없는 것은 없애기가 어려운 것이다.

자기가 자기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형체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제 재물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 물질적인 향락을 누리면 닳아 없어지고 파괴되는 수밖에 없지만 형체 없는 정신적인 향락을 누리다면 변하거나 없어지는 낭패를 당하지 않는 법이다. 그러므로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는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이다. 도둑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불에 타 버릴 걱정도 없고, 소나 말이 운반해야 할 수고로움도 없이 자기가 죽은 뒤까지 지니고 가서 천년토록 아름다운 명성을 전할 수 있느니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느냐? 재물은 단단히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끄럽게 빠져 나가는 것이니 재물이야말로 미꾸라지 같은 것이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수록

분과 세미나

발표

조 무 제(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홍 승 용(인하대학교 총장)

국·공립대 분과

발 표 조 무 제(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국립대학 법인화의 과제

조 무 제(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새정부의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의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했던 국립대학 법인화는 17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유보되기는 했지만 공론화와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침으로서 대다수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힌 것 같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20일 새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 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큰 정책의 일환으로서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부터 먼저 법인화를 추진하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한 대학회계제도 도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함으로써 지난 정부에 이어 새정부에서도 국립대학 법인화는 계속 추진 될 전망이다.

대학재정확보의 어려움, 교직원들의 신분변화, 소외학문분야 보호대책 등을 내세워 국립대학 교직원들 뿐만아니라 학생들까지 법인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이웃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가 성공적이라는 평가 때문에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법인화 반대 목소리는 사회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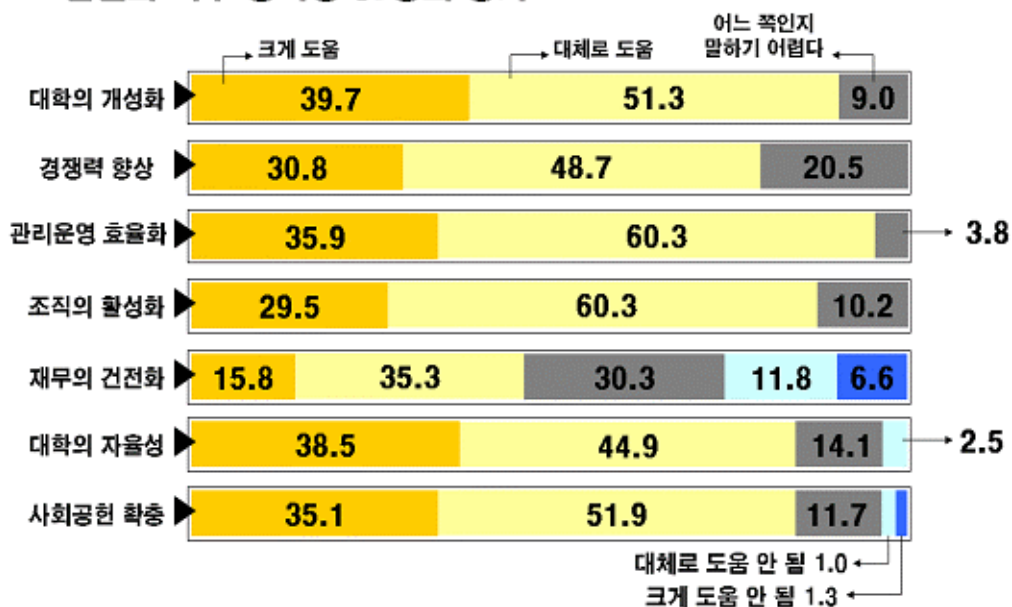
따라서 각 대학들은 대학들의 여건을 고려한 법인화 추진준비를 서둘러야 될 전망이다.

■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시행 4년의 평가

일본 국립대학들의 법인화가 2004년 4월자로 시작되었으니까 꼭 4년이 지났다. 일본 국립대학의 법인화도 시작당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으나 법인화가 이루어졌고, 지난 4년간의 법인화 실적에 대해서도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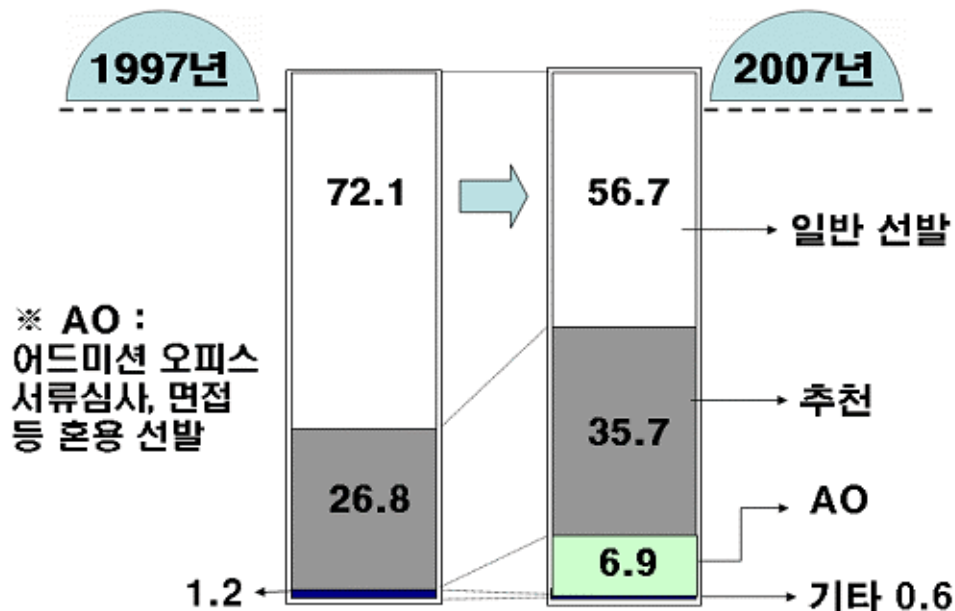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들은 매년 운영체제개선, 교육연구조직개편, 인사 적정화, 교육내용·성과시설 등에 대한 연도별 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여 문부과학성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법인화 이후 87개 법인화대학 총장들은 대학의 법인화가 대학의 개성화, 경쟁력 향상, 관리운영 효율화, 조직의 활성화, 재무의 건전화, 대학의 자율성, 사회공헌 확충 등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법인화 이후 총학장 87명의 평가



뿐만아니라 학생선발방식도 다양해져 법인화 이후에 기존의 일반선발방식이 줄어들고 추천,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한 선발비율이 훨씬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다.

일본대학의 선발 방식 다양화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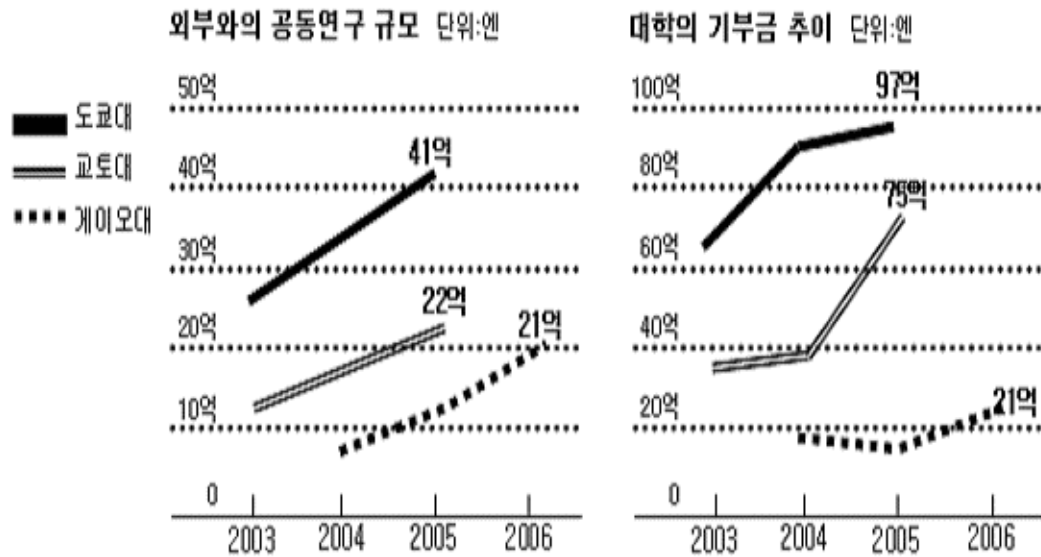


일본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인 도쿄대 고미야마 히로시 총장은 법인화된 일본국립대학 개혁의 선두주자로서 법인화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조그만한 정책도 일일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했는데, 법인화 이후 대부분의 정책들을 정부와 사전 상의없이 결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정책전환의 스피드가 빨라진 점을 들었다.

그는 법인화 이후 교육 및 재정 등 7개 항목에서 44개의 구체적인 개혁 내용을 담은 도쿄대 액션플랜(Action Plan 2007)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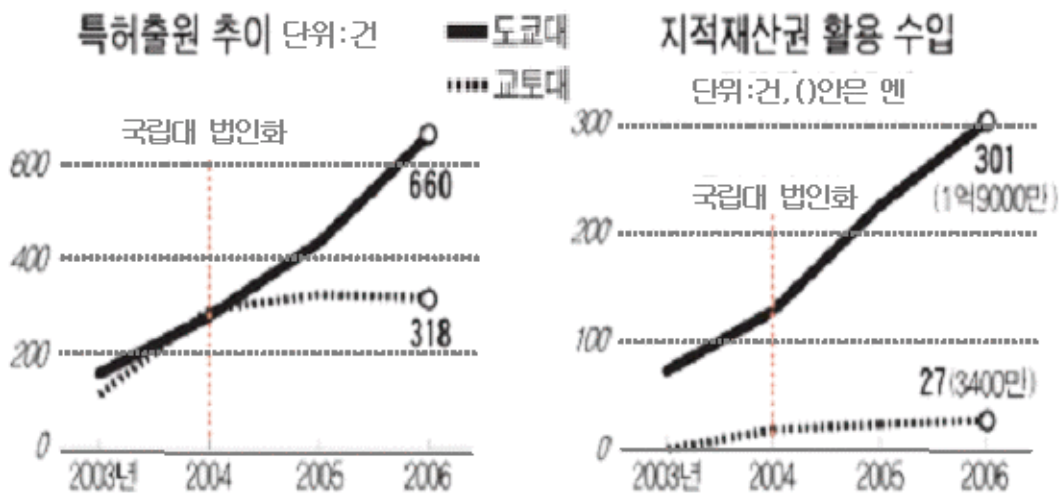
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속에 열린대학으로 가기위한 국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도쿄대학 28,000명 가운데 외국인 학생을 현재 10%에서 20%까지 늘릴 계획을 하고 있다.

사학의 명문인 와세다 대학의 시라이 가쓰히코 총장은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는 사립대학에도 큰 압력이 되어 사립대학 발전에도 큰 자극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학은 재정이나 우수학생 유치면에서 국립대보다 불리한데, 국립대 법인화 이후 산학협력연구를 통한 위탁연구 등에서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와세다 대학도 국제화를 제2의 건학목표로 삼고 와세다 대학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고있다.



일본의 교육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부과학성에서는 국립대 법인화는 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국립대에 활력있는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학의 질 보증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

산학협력과 지적재산권 등록 등에서 큰 성과를 보여 대학벤처기업이 2000년 128개사에서 2007년에는 1,347개로 늘어나 큰 성과를 거둠으로서 일본대학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학 법인화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같이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는 시행 4년이라는 짧은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법인 뿐만아니라 사립대, 정책당국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법인화추진에 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최초의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설립배경

울산시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위치한 인구 110만의 직할시로서 GRDP는 4,200불로 전국평균의 2배를 넘어섰으며, 2007년도

수출액이 630억불로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8%를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산업수도이다.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수출 1,000억불, GRDP 50,000불을 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울산시는 세계 최고수준의 R&D기반도시로 발전하기위해 2010년까지 GRDP의 1.5%(7,540억), 2020년까지 GRDP의 2.5%(2조 1,120억), 2030년까지 GRDP의 4%(5조 335억)를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고도화·첨단화를 위한 세계 최고수준의 R&D 능력배양을 위한 인재양성과 산학협력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경쟁력을 가진 이공계 특성화대학 설립의 필요성이 10년 전부터 제기되어왔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설립되었다.

한편 새정부 출범이후 과학영재교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초·중등학생의 0.59%인 영재교육 수혜율을 2012년까지 1%로 확대하여 연간 약 7만명이 영재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를 현재 21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하고 학생 수도 3,900명에서 8,000명으로 증원됨으로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 있는 이공계 특성화대학 증설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2008년 IMD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경쟁력이 조사대상 세계 55개국 중 53위로서 최하위권을 계속 맴돌고 있고, 미국에서 매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1,500여명의 우리나라 유학생들의 2/3가 학위취득 후에 귀국을 희망하고 있지 않아 고급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설되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글로벌 국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추진상황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국립대학 법인화법의 국회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07. 4. 6. 법률 제 8331호)하여 이를 근거로 설립되었다.

외곽건물은 울산시 울주군 반연리 일대의 약 100만 m² 부지에 3,500억원의 예산으로 외곽시설을 신축하여 2009년 3월 개교예정이다. 3,500억원 중 토지매입과 상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1,000억은 울산시가 지원하고, 건축비 2,500억은 정부가 BTL방식으로 지원한다. 실험실습기기, 도서관, 전산정보원 등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내부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매년 100억원씩 15년간 1,500억을 울산시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울산시의 총지원액이 2,500억에 달함으로써 대학과 지자체간에는 마치 시립대학 같은 긴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도 국립대학의 법인화 이후 큰 변화중의 하나가 대학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보다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도쿄대학도 지바현에 있는 가시와 캠퍼스를 지바현, 가시와시, 지바대학 등 지역과 협력해서 국제적인 학술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국립대학들이 법인화되면 지자체와 보다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법인화 모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다. 이사회 구성은 당연직 이사 5명을 포함하여 14인으로 구성되며, 임원 및 교직원의 인사와 보수에

관한사항, 대학의 조직 설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총장의 선출은 이사 및 전임교원 중에서 추천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 선출방식에 따르게 함으로써 기존 국립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직원들에 의한 직선제의 부작용을 배제하고 있다. 교직원의 신분은 사립학교법의 관련규정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으며 국비예산지원은 다른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형평을 맞추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경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위하여 교육 및 연구활동이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대학운영에 대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사업년도 개시 전에 경영성과목표를 반영한 대학운영계획서를 수립공포하는 등 책임 또한 커지고 있다.

사립대 분과

발 표

홍 승 용(인하대학교 총장)

사립대학의 현안과 정책 방안



목차

I. 한국 사립대학의 위기와 육성 필요성

1. 학령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
2. 재정투자 열악
3. 교육의 Exodus와 Brain Drain
4. 국립대학의 법인화 및 전략적 통합 영향
5. 국가 경쟁력보다 못한 대학경쟁력

II. 주요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동향

III. 사립대학의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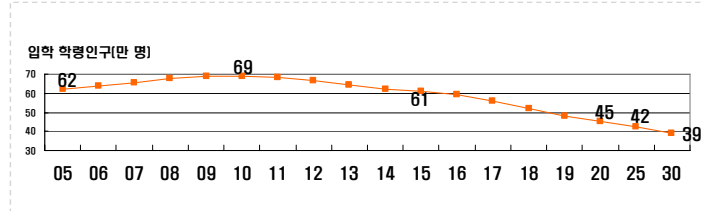
1. 사립대학의 재정 확충
2. 등록금 문제
3. 개정 사립학교법 등 대학변화
4. 대학자율화와 책무성
5. 국제화
6. 대입자율화
7. 로스쿨 및 세제 지원 등
8. 기타

I. 한국 사립대학의 위기와 육성 필요성

1.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

□ 저출산 추세에 따른 대학 입학 학령인구의 급감

- 대학입학 총정원 79만 명, 4년제 대학 32만 명 (2007년)



□ 고령화 사회(2005년) ▶ 고령 사회('18년) ▶ 초고령 사회('26년)

논점

- 현재 정원 유지 가능 여부와 외국 유학생 증원 문제
- 대학 교육대상의 변화(S to W → W to S)

1

2. 사학 재정투자 열악

□ 고등교육 예산은 GDP의 0.5% 수준으로 OECD 평균 1.0%에 미흡

- 국고 보조 비율 : 한국 4.5%, 미국 16.1%, 일본 12.1%
- 국고 보조금 편중 : 국립대학 80%, 사립대학 20%

□ 사립대학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중추적 역할

- 4년제 대학 수 86%, 교수 수 75%, 학생 수 79%

논점

- 고등교육 투자 확대는 시급한 문제
 - GDP 0.5%를 1%로 확대하는 방안: 재정지원에 법 제도적 충족성, 중장기 안정성 문제 해결
- 고등교육은 중등교육처럼 재정지원의 사회적 책무성이 필요한 공공책임
 - 사립대학의 재정투자는 이제부터 정부의 몫

2

3. 교육 Exodus와 Brain Drain

□ 교육 Exodus

- 유학생수: 1999년 122천 명 ▶ 2006년 220천 명
- 유학생 관련 경비: 1999년 9억 불 ▶ 2006년 44.6억 불
- Inbound << Outbound

	Inbound	Outbound
총 유학생	32,547	219,875
대학생	22,624	190,875
금액	0.28억불	44.6 억불

(2006년)

□ Brain Drain

- IMD 두뇌 유출 지수 61개국 중 40위('06)

논점

- 우리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한 교육 Exodus는 불가피한 추세,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double dip 현상 우려
- Brain drain으로 차세대 신성장 동력에 대한 에너지 감축

3

4. 국립대학 법인화 및 전략적 통폐합 영향

□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 특별법(안) '08년 9월 입법 예고 계획

□ M&A와 전략적 통·폐합 추진

구분	법적 근거	재정지원 근거
국립대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2조의 3	법적 근거 없음 (교육부에서 활성화 방책으로 재정지원)
사립대	상동	법적 근거 없음 (재정지원 실적 없음)

• 국립대 :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공주대(천안공대), 충주대(청주과학대), 강릉대(원주대) 통폐합 추진

• 사립대 : 가천의과대, 고려대, 삼육대, 경원대, 동명정보대, 을지대(서울보건대)

논점

- 90년대 준칙주의에 의거한 사립대 과다 설립의 후유증과 질적 구조 조정의 요구
-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 성공에 따른 우리나라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 시, 사립대 직·간접 영향

4

5. 국가경쟁력보다 못한 대학경쟁력

□ IMD, WEF의 대학경쟁력 평가



□ SCI 총 발표 논문 국가순위는 11위이나, 세계 순위 350위권 내 개별대학은 10개에 불과

- 서울대 (32위)
- 연세대 (106위)
- 성균관대, 고려대, KAIST, 한양대, 경북대, 포항공대, 부산대, 인하대 (349위)

5

II. 주요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동향

1. 일본 🇯🇵

□ 대학 심의회 및 중앙 교육심의회 대학개혁 관련 답신 : 교육 연구의 고도화, 고등교육의 개성화, 조직운영의 활성화

- 국립대 법인화, 학교법인 제도 개선, 전문직 대학원 제도 창설, 대학 설치인가 탄력화, 인증평가제도 등 교육의 질 보증 시스템

□ 『21세기 COE 프로그램』을 '07년부터 『글로벌 21세기 COE 프로그램』으로 발전

□ 『사립학교 진흥조성법, '75년 제정』에 의해 경상적 경비의 1/2 이내 보조,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의 대부사업, 세제상 특례 조치 등

- 경상비 보조비는 일반보조(교직원 인건비 및 기반적 교육연구 경비 등)와 특별보조(정원 감축 개선촉진 특별 지원비)

6

2. 중국

□ 1980년대 모색기, 1990년대 본격화된 대학의 시장경제 논리

- 1985년 「교육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교장 책임제와 재량권 확대, 공립학교의 민영화 및 민영화 학교 확대
- 1993년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요강」, 교육경쟁원리와 민간활력 이용한 양적·질적 성장 추구
- 1998년 「고등교육법」 제정
- 2003년 독립학원 활성화 - 사실상 민영 4년제 대학 정책

□ 211 공정, 985 공정, 111 프로젝트

- 211 공정 : 중점대학과 중점학과 육성 통한 100개 우수대학 육성
- 985 공정 : 34개 세계 일류 연구중심대학 육성, 733개 대학을 288개로 통합함
- 111 프로젝트 : 세계적 우수인력 1,000명 육성, 100개 학과 배치

7

3. 미국

□ 1965년 고등교육법-LBJ의 '빈곤과의 전쟁' 과 고등교육의 평등기회 제공

- 1862년 Morrill법 (Land Grant 법)

□ 현행 고등교육법 주요 프로그램

- 대학생 장학금 지원 : Pell Grant 등 장학금, 학자금 대출 및 근로 장학 프로그램
- 대학재정 지원
- 교과생들의 대학진학 지원 서비스
- 대학에서 실시되는 초·중등 교사 훈련 프로그램 개선

□ 21세기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

- 연방정부는 대학교육의 보편화에 따라 등록금 재정적·금융적 지원 확대
- 주정부는 교육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연계시키는 실적 연계 예산배정 시스템
- 명문대학의 세계수출 거점화, 기업 제휴 통한 원격프로그램 확대

8

4. 싱가포르, 두바이의 FKI추진

구분	싱가폴	두바이
과실충금	가능	가능
영리학교 설립	가능	가능
세금	면제	면제
기타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 무상 제공 연구비 50% 지원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 무상 제공 민간기업으로부터 자금 조달 가능 유학생에게 졸업 후 입사를 전제로 장학금을 주는 '기업 스폰서' 제도 운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탠포드, MIT 등 35개 대학 유치 UBS, 도이치뱅크 등 다국적 금융기업의 아시아 본부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시칸, 호주 웰롱공대 등 20개 대학 유치 87개국 출신의 유학생 유인('07년, 만 명)

5. 호주 및 뉴질랜드

□ 고등교육을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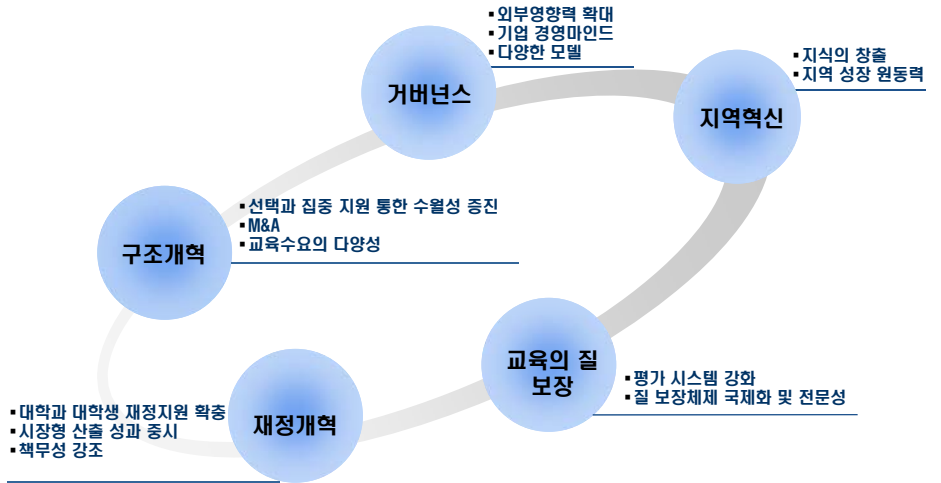
- 미국은 고등교육이 서비스 부문 수출 5위
- 호주는 교육 수출이 3대 수출산업중의 하나

구분	호주 시드니대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자국민	26,405명 (86%)	10,276명 (71%)	25,192명 (87%)	7,955명 (88%)
외국인	4,321명 (14%)	4,180명 (29%)	3,724명 (13%)	1,053명 (12%)

□ 호주 RMIT의 국제화 사례

구분	호주(1개 본교, 4개 캠퍼스)	베트남 분교	해외협력 Program
학생 수	42,000명	2,000명	6개국, 21개 대학, 6,500명

6. 주요국의 개혁동향 요약



[유연숙등, 고등교육 개혁 국제동향 분석연구, 2006]

Ⅲ. 사립대학의 활성화 방안

1. 사립대학의 재정 확충

□ OECD 평균보다 열악한 대학재정 지원

- FY 05 우리나라 대학의 총 재정규모는 22.8조원
-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규모는 4.5조원으로 전체 대학 재정의 19.7%임

주요 국가의 재원별 고등교육 지원 규모 (2007)

구분	공공재원	민간재원
미국	35.4%	64.6%
일본	41.2%	58.8%
프랑스	83.9%	16.1%
독일	86.4%	13.6%
한국	21.0%	79.0%
OECD 평균	75.7%	24.3%

- FY 08 교육예산은 35.9조원이며, 이중 고등교육 부문은 4.4조원으로 12%에 불과
- 고등교육 부문 4.4조원중 국립대 운영지원 2.1조원

□ 주요 정책 방안

방안1 우리나라 교육예산중 대학 예산 비중 12% 수준을 15% 이상 배분토록 사회적 협약을 맺을 필요 (반상진,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방안2 일본의 사립학교진흥조성법 제4조와 같은 정부 재정지원 근거법 제정 마련
※ 제4조 : 국가는 대학의 교육·연구와 관련된 경상경비의 1/2 이내 보조

방안3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가칭) 제도 도입
• 법정 교부금 확보 근거 법제화, 세제지원, 기업분담금 제도 도입, 대학의 공공요금 예백

방안4 국가지원 학술연구비 간접연구비 (0/H) 규모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재정지원방식의 검토

포물리 편당

비용분담
방식

성과중심 지원
방식

바우처 지원
방식

13

2. 등록금 문제

□ 2005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55.1%, 등록금 의존도 50% 이상 대학교는 78%임

● 미국 하버드대는 21%, 일본 와세다대는 64%

□ 사립대는 1989년 『등록금 책정 자율화 조치』 이후 매년 봄 거의 모든 대학이 개나리신드롬을 겪고 있음

● 대학총장에 모든 책임과 의무 집중화로 대학발전 장애

□ 최근 『등록금 상한제 입법』 추진 문제는 대학재정 운영 및 대학자율화 영향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대학 반대 입장

● 등록금 상한제 입법보다 선결해야 될 대책은 사립대 재정지원법 및 미국의 Pell Grant 법과 같은 장학금 지원법임

14

□ 장학금제도 비교

제1방식	<p>소득계층별 맞춤형 장학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상장학금 지원 · 저소득층에는 무이자 및 저리 대출 	우리나라 확대시행 예정
제2방식	<p>미래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후 대출원리금 분할납부 	<p>뉴질랜드 : 상환소요 9.3년</p> <p>영국 : 학부모 소득과 연계</p> <p>우리나라 : 도입 검토중</p>
제3방식	<p>미국식 혼합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 Pell Grant 학자보조금 · 근로장학금 · Perkins 용자 (상환의무) 	

14-1

3. 개정 사립학교법 등 대학변화

□ 노무현 정권의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공공성의 강화와 문제사학의 비리적결을 내세워 '개방형 이사,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대학평의회 등' 을 도입함

- 사립학교가 우리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하기 보다는 Governance 체제 등 특정 현안에 치우침

□ 사립대학 총장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개방형이사」 뿐 아니라 「대학평의회」 임

- 구성에서 교수·직원 학생·동문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민주절차라는 미명하에 이해집단의 갈등구조임
- 기능에서 대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현존하는 대학 내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교무위원회보다 상위기구화하는 기형적 모습

□ 따라서 「개정 사립학교법」은 빠른 시일내에 폐지 또는 재개정되어야 함

- 제1안: 사립학교법 폐지, 「사학육성특별법(가칭)」 신규 제정
- 제2안: 「대학평의회」 조항을 삭제

15

4. 대학자율화와 책무성

□ 대학자율화의 요구(박남기 2008 & Bain 2003)

총장 선출권	교과과정 규정 및 제공권
대학 거버넌스 설정과 구성원 선택권	교직원 채용, 승진, 파면권
연구 주제 선정과 수행권	사회요구 부응 선택권/협상권
입학기준과 졸업기준 선정권	재정과 시설 확보 및 운영권

□ 책무성의 강화

- 규제의 「온실효과」 제거로 본격적 대학경쟁
- 자율능력 제고 : 학부제 폐지 문제, 신규교수 선발시 inbreeding 문제, 임시비리 및 사학부정 문제
- 대학경영정보의 투명화 및 공개 : 정보공시제 등
- 정부규제 보다 엄격한 취업시장에 대한 책무

16

5. 국제화

□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 0.5%로 OECD 평균 7.6%에 크게 미달 (24개국중 23위)

- 2005년(0.2%), 2006년(0.3%)의 최하위에서 다소 개선

□ 학점에 대한 상호 인증(Accreditation) 확대 : Dual, Double

□ 대학원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입학기준 추진

□ 3월 학기제 vs. 9월 학기제의 장단점 검토

17

6. 대입 자율화

□ 이명박 정부의 대입자율화 3단계

- 1단계 : 학생부, 수능 반영비율 자율화
- 2단계 : 수능과목 축소
- 3단계 : 대입완전자율화 (2013년 이후)

□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재검토

- 대학교육의 보편화로 수월성 교육 중심의 입시정책
- 대교협으로 대입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관련 법규 정비

□ 대학입시의 신뢰성 확보 및 사회적 책무성

□ 차별화된 다양한 전형제도 : 입학사정관제 등

18

7. 로스쿨 및 세제 지원 등

□ 로스쿨 문제

-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교원확보, 교육시설, 등록금 책정 계획 변경
-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확충, 추가 로스쿨 인가 여부

□ 기부금 세제 정책

-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필요
- 방식1 :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그 이상은 소득공제
- 방식2 : 본인소득의 1%는 세액공제, 나머지는 소득공제

□ 사립대 교육관련기자재 도입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 국가 연구사업 지원시 대학의 Zero Matching Fund 제도 적용

19

8. 기타

□ 사립대 입시정책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키 위한 TFT 가동 계획

- 4개 분과 : 입시자율화팀, 등록금팀, 재정팀, 자율화와 규제완화팀
- 구성방안 : 수도권 대 지방, 대규모 대 소규모 고려 팀장 1, 팀원 4~5명으로 구성
- 소요예산 : 대교협 및 사립대학 회장단 협의
- 잠정 기한 : '08. 7-'09. 6
- TFT 위원장 : 인하대학교 홍승용 총장

20

꽃자리

- 구상 -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초청강연

발표 손경식(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초 청 강 연

손경식(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존경하는 총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명하신 총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정부는 대학교육의 자율화를 도입하는 새로운 대학정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도 보다 자유로운 가운데 대학의 전략과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일류대학을 만들어나가심에 있어 총장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대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를 비롯하여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곡물가격도 크게 상승해서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필요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불안하기 그지없고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석유자원을 갖은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적 자원은 없어도 우리에게서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대학과 훌륭한 교육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자원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새삼 그 귀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훌륭한 인재를 많이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 2년전 대통령 해외방문을 수행하여 Finland에 갔을 때 일입니다. 한국, Finland 양국 대통령을 모시고 경제협력회의를 끝내고 기자회견을 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외국기자가 큰 자원도 없는 Finland가 이렇게 고소득국가 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Finland 대통령께서 훌륭한 교육이 힘이라고 서슴없이 대답을 하셨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원이 없다 해도 훌륭한 사람들만 있으면 충분히 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위스, 덴마크, 이스라엘 등 물적자원이 없이도 성공한 수많은 나라들을 열거해볼 수 있습니다.

□ 오늘날 국가의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은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계시는 총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오늘의 이 시대를 살펴보고 대학이 길러내는 인재들이 일할 몇 년 후 내일을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21C의 경영환경은 크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동서간 장벽이 걷히고 1995년에는 다자간 무역체제인 WTO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간 쌍무협약인 FTA가 확산되면서 국경이 더 크게 열리고 세계시장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시대는 창의와 혁신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올해 새해의 널리 사용되는 경영화두는 창의경영입니다. 세계 여러 곳의 Conference에 가보아도 창의혁신이 주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금 우리는 지난날의 대량생산을 주축으로 하는 산업화시대에서 지식기반경제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량생산의 산업화시대에서는 자본, 노동, 토지 등 유형자산이 중요했지만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는 연구개발, 핵심기술, 디자인, 마케팅 등 무형의 지식이 핵심입니다.

□ 과학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Information Technology, Bio Technology, Nano Technology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기업들이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 세계화의 속도도 빨라서 글로벌경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세계전역이 시장이요 활동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여건이 유리한 지역을 따라서, 시장이 있는 곳을 찾아서 기업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함에도 국적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본사도 해외로 이전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 그리고 21C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입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변화가 너무 빨라서 기업의 의사결정도 급히 내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쟁도 너무 극심해져서 초경쟁의 시대 또는 Hypercompetition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지체하다가는 경쟁자가 앞서 가버립니다. 창의력과 결단이 필요할 때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해 주요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1)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가진 창조적 인재, (2) 주인의식과 직업윤리를 갖추고 주위의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사람, (3) 전문역량과 실력을 갖춘 인재, (4) Global시대의 세계인으로 4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 21C 새 시대에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높이 요구됩니다. 지난 산업화 시대에서는 성실성이 큰 덕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조직은 관료제 조직입니다(Bureaucratic Organization). 위계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배분하는 조직으로서 독일의 사회학자 Max Weber는 업무의 효율을 최대화하는 조직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산업화시대에서는 이러한 조직질서에 잘 적응하는 인물이 선호되었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회사의 규율을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의와 혁신이 중시되는 시대에는 자기주관이 뚜렷하고 스스로 결행하는 의지를 갖춘 도전적 인물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관료제조직으로 인간의 효율적 관리에 치중했다면 지식경제와 무한경쟁

의 시대에서는 관료제 조직의 이점도 살리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객과 현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강력한 도전의식으로 차있는 역동적인 조직이 이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는 시장의 흐름을 빨리 포착하고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역량을 가진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전적인 정신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기대는 아직 만족스럽게 충족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외가 대졸 신입사원들에 대한 기업의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신입사원들의 적극성과 도전정신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입사원들은 이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높이고 도전적 정신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 사람의 인품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기본입니다. 경영의 달인으로 알려진 GE 회장이었던 Jack Welch는 능력보다는 태도를 중시했다고 합니다. 태도가 나쁜 직원은 결국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달 북경에서 IT의 R&D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인 Huawei Technologies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IT업계에 많이 알려져 있는 큰 회사입니다. 연구직 인력선발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저의 물음에 사장은 즉석에서 인품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창의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저는 뜻밖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식과 직업윤리 또한 우수한 인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러한 덕목을 갖추지 못해 기업에 피해를 끼치고 발전을 후퇴시키는 사례도 간혹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수한 인재라 함은 건전한 가치관을 우리사회와 같이 공유하고 여러 사람들과 서로 협동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우수한 인재는 학문에 대한 기초지식과 어느 정도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곧 전문역량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실력이 없으면 창의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

니다. 창의개발로 유명한 미국회사인 3M의 부사장은 왜 3M이 창의성이 높은가라는 저의 질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들면서 그 중 하나로 3M의 사람들은 실력이 있고, 실력이 없으면 창의도 쉽게 일어나기 어렵다는 대답이었습니다.

□ 21C의 특징은 세계화입니다. 우리는 특히 대외개방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수출입 합계 대외교역량은 GDP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경영의 세계화 없이는 일류기업이 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계화시대의 바람직한 인재라 함은 외국어능력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감각을 갖고 해외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넓은 시야를 갖고 다양한 Global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제 우리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경제를 오늘의 위치로 끌어올린데는 많은 인재를 배출해준 대학의 공이 컸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로 발전한 것은 우수한 인재의 덕분이고, 그 사람들을 길러낸 곳이 우리대학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더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산업사회를 벗어나 지식경제의 시대, 그리고 창의경영의 시대를 지향함에 있어 기업도 변화해야 하고 대학의 모습도 함께 변화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최근 총장님들의 노력으로 대학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학에 대하여 조금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는 기업도 많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532개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인문사회계열 졸업 신규인력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51.9%가 기업의 요구수준에 다소 못미친다, 그리고 18.4%가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 기업에서는 대학의 교육이 기업현장의 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얼마전 어느 일간지에 “공대나온 신입사원, 회로도 못읽는다”라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학교육인증원의 어느 간부는 대학교육이 기술발전이나 시대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산업현장의 수요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실무지식을 가르치는 데에 소홀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인 IMD가 각국 CEO 600명을 대상으로 그 나라 대학교육이 산업계의 Needs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설문조사한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5개 조사대상국중 53위라는 결과였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학교측의 교육과 기업측의 Needs간에 gap이 적을수록 기업으로서는 Cost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신규사원에 대한 재교육기간이 길고 투입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말합니다. 대졸 신입사원의 직무훈련을 위해 신입사원 1인당 교육기간은 평균 20.3개월 비용은 6,218만원이 들었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우 큰 비용입니다. 물론 훈련기간중 보조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한 것은 감안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일본은 입사후 3년이 되면 발휘하는 기량이 사원로서는 원숙한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때 겨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래에 기업들은 경력사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대졸신입사원 위주의 채용 관행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기업의 Needs가 그만큼 현장적응이 쉬운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기업도 당장 일할 사람을 찾는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현장을 다 알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서는 기초학문에 전념되어 어느 정도 현장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대개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왔을 때 곧 일을 배우고 소화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인재의 수요와 공급간의 불균형도 문제입니다.

2006년 9월에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공과별 수급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취업자 전공일치도가 인문계열은 48%, 사회계열은 60%, 공학계열 77%, 자연계열은 58% 입니다. 대학은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전공학과와 모집정원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을 막는 장애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전에 어느 경영대학에서 MBA과정 학생 T/O를 증원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대학은 규제에 묶여서 학과의 신설이나 TO증원이 쉽지 않다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규제뿐만 아니라 전공교수들의 개인적인 자리문제 등도 변화를 막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 대학으로서는 만족할만한 방도를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 교양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품이 부족한 사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주위와 협동이 잘 안되며 대외활동 또한 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오늘날 기업은 다른 사람의 주장도 경청할 줄 알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어릴 때의 교육에서 인격이 많이 형성되고 하지만 대학에서도 교양을 교육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이라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주입하느냐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충하기 위하여 대학에서는 기초교양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외국의 유명대학들도 학부에는 기초교양교육에 열을 쏟고 있으며 전문교육은 대학원 과정으로 끌어올리는 경향입니다.

체계적인 사고능력과 표현능력 그리고 Writing Skill과 Communication도 더 교육해야 합니다. 최근에 대학입시에 논술고사를 채택하는 등 많은 변화를 도입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앞으로 학과이수과정에서 논문도 제출하도록 하고 Speech와 Business Communication 같은 과목도 많이 추가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입사원들이 쓴 글이나 보고서나 Business Letter는 수준이 좀더 향상됐으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대학이 무슨 직업훈련소냐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이러한 고충이 있고 이 고충을 해결할 길은 기업의 재교육과 대학에 부탁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자본주의를 통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며 이는 세계적 조류입니다. 세계는 이제 이념의 대결에서 부(Welth)의 창조경쟁으로 전환했습니다.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지식포럼의 개막연설에서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Colin Powell은 세계는 부의 획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의 창조노력이 전쟁의 위험까지 감소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읽지 못하고 지난 시대의 유물인 반자본주의적 사고와 성향에 집착함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한때 젊은이들 중에 반자본주의, 반미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진보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학당국도 좀더 적극적인 지도방침을 강구했어야 하지 아니하였을까 생각됩니다.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성향과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는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중고등학교 경제.사회교과서의 부적절한 부분을 시정해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인문학적 소양도 넣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기업경영의 트렌드는 감성경영, 윤리경영, 창조경영, 고객만족경영, 그리고 종업원만족 등으로 일컬어지는데 이는 모두 인문학과 관계가 깊습니다. 문학은 상상력을 통해서 창의성을 높여 주며 철학은 사고와 행동의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기업환경 아래서는 경영학이나 공학과 같은 실용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실용지식은 바라보는 관점이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좁아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세의 흐름을 간과할 수 있고 일의 맥락을 짚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은 새로운 변화를 예견하고 활용하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량을 발휘하려면 인간과 사회를 깊이 이해하는 인문학적 소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미국의 많은 경영자들이 학부에서 인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자기에게 인문학적 밑바탕이 없었더라면 디지털 컴퓨터도 오늘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영자들도 이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많은 관련서적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 창조적 활동을 요구하는 시대에서는 인적자원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다양성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재의 구성으로 창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입시의 과열, 지필시험과 점수의 지배, 입시준비, 사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인재가 획일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의 경우 지필시험에 의존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사례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미 인재에 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원선발 관행을 바꾸어가면서 다양한 인재를 찾고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의 변화는 매우 느리다고 느껴집니다. 대학으로서는 제도적 난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는 대학이 앞으로 과감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어느 대학의 경우 학생의 선발에 있어서 농촌, 지방출신의 T/O를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했음을 우리는 유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정수의 외국인 학생의 유치노력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부문간의 Convergence 현상에 따라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술이나 산업이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하여는 자기분야에만 정통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관련분야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식을 가진 인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술자는 경영을 알아야 하고 관리자 역시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대학은 학문의 융합, 학과간의 교류를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산학간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대학과 기

업간에 왕래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실용적으로 필요하고 공통의 인식이 요구되는 부문에서는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학은 기업이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분명히 제시한 일이 없다고도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도 먼저 기업에 물어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대학의 고객이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원기업 인사담당임원을 초청하여 대학과 기업간의 인재육성에 관한 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대학의 취업담당자가 자기 기업을 방문해준 일이 없다고 합니다. 기업은 대학을 찾아가서 취업설명회를 합니다마는 대학에서도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OECD국가중 우리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낮은 편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대학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작은 지방대학이 기업과의 의사소통을 밀접히 함으로써 교과과정의 조정과 학생지도 그리고 졸업생의 취업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가운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기업은 대학과의 만남을 문을 열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대학과 현장의 연결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성공하는 해외 선진기업 주위에는 기술개발 파트너로서 역량 있는 대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써 핀란드의 울루대학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 IT, BT, 환경분야에 집중하면서 기업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해 시뮬레이션과 실습강의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울루대는 전자정보공학과 120개 과목중 80개 과목이 실습과목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세계 제1위의 이동전화기 Maker Nokia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대학과 기업도 대학과 기업 현장의 연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그 방법을 함께 의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최근 여러 대학이 대학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국제대학원이 여러 대학에 개설되었고 학부과정의 국제대학도 개설된 곳이 있습니다.

많은 국내기업들의 글로벌경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몇 년후를 내다볼 때

우리 대학들도 세계를 무대로 뽐낼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배출해 내야 합니다. 학술의 국제교류를 확대함은 물론이고 더 많은 외국인 교수를 영입하고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도 확대해야 합니다. 외국학생들도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기업들이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외국인학생 유치에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기업들은 졸업후 이들을 채용 활용할 수 있어 해외현지인 채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의 국제화는 매우 시급하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대학은 이제 인재의 공급자중심의 위치에만 설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을 충실히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학교육은 지식의 소화와 흡수에 치중한 느낌이며 흡수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학교육의 개선은 산업계의 수요를 어떻게 대학교육에 연계할 것인가에도 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기업체에서는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가, 어떤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등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사항을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해야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문에 있어서 앞으로 대학과 기업은 긴밀히 서로 협조해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협력할 것인가가 대학과 기업의 공통과제입니다.

□ 이상 말씀드린 것은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우수한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너무 큰 것도 원인이고 개인적인 장래성, 사회적인 대우 등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노사문화의 개선과 더불어 대기업의 임금인상이 자제될 가능성도 있어 임금격차가 좁혀지기를 기대해봅니다마는 지원자가 매력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 미국의 정치학자 리차드 로스크랜스는 국가간의 최종경쟁단계는 교육시

시스템 경쟁이라고 하면서 교육에서 뛰어난 국가가 생산성과 부에서 앞서게 될 것이라며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식경제의 시대를 맞아 연구에 매진함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이나 대학이나 모두 경쟁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학생들도 세계 일류대 학생과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초일류기업을 목표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대학들도 세계 일류대학의 반열에 곧 들어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대학의 리더로서 무거운 경영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총장님들의 역투를 부탁 드리면서 저의 두서없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정책 참고자료

참고자료 1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자율화추진팀장 구 자 문

【 차례 】

I. 추진 배경	82
II. 추진 경과	83
III.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주요 내용	84
IV. 향후 추진 일정	90
붙임 1 : 국립대학 등의 문제제기 사항에 대한 교과부 입장	91
붙임 2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94

I. 추진 배경

□ 정부개입 한계와 책임 재정운영체제 구축 필요

- 대학의 경쟁무대가 국내에서 국제사회로 확대되고, 주요 선진국들이 고등교육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 정부통제 위주의 대학재정운영으로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

□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 개선 필요

-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 결여
 - 정부기관의 회계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적인 교육연구 수행 제약
- 회계분리로 인한 효율성, 투명성 부족
 - 국립대학의 회계가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인 기성회회계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회계별 칸막이로 인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부족
 -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 다양한 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별로 회계연도가 다르고 합산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아 연간 예산 규모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 미약
 - ※ 사립대학의 경우 2006년부터 예·결산정보공시 의무화
- 자체적인 재원확충 유인 부족
 - 기성회비, 발전기금 등을 제외한 수업료, 수수료 등의 수입을 모두 국고에 납입하게 되어 있어 자체적인 재원확충 유인 부족
-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미흡
 -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업료 등이 자체수입이 아닌 국고로 납입되어 사립대에 비해 국립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저조

II. 추진 경과

-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국립대학특별회계제도 도입 건의 : '87.
-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 입법예고 및 도입 유보 : '97.
- 사립대학 기성회비 폐지, 등록금으로 통합 : '00.
-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 학교회계제도 도입 : '01.1.
 - 학교별로 회계를 설치하여 학교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학교 회계제도 시행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학교회계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①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 국립대학재정 운영제도 개선 감사원 권고 : '02.1.
 - “기성회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존속 필요성이 없다면 수업료로 일원화, 존속 필요성이 있다면 통합 운영하는 방안 강구”
-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황우여 의원) : '02.11.
-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이주호 의원) : '05.5.
- ‘국립대학 회계기준’ 마련 관련 정책연구 : '08.4~
-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선 관련 기획재정부 사전협의 : '08.4.~5.

III.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주요 내용

1. 총 직

□ 적용범위(시안 제2조)

- 전체 국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08년 기준 학교 수 : 총45교) : 대학(23교), 산업대학(5교), 교육대학(10교), 전문대학(2교), 방송통신대학(1교), 기술대학(0교), 각종학교(4교)
- 단, 고등교육법 제45조의 부설학교는 제외
 - ※ 부설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의거 '학교회계제도'를 이미 적용중임<'08년 기준 부설학교 수 : 초(17교), 중(9교), 고(11교)>

□ 국가의 지원 및 평가(시안 제4조)

- 인건비를 제외한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
 - 인건비는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지원
 - ※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내용 : 현행 국립대학 일반회계 세출중 인건비를 제외한 국립대학 운영지원비(기본경비, 교수보직 수행경비, 실험실습여건 개선비, 시설확충비 등)
- 국립대학의 장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정부는 이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시안 제5조)

-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현행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지자체는 국립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음

2. 재정위원회

□ 재정위원회의 구성(시안 제8조)

- 위원 정수 : 9인 이상 15인 이내
- 위원 구성
 -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규칙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가능
 - '해당 대학의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 인사 또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인사', '대학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
 - ※ 단, 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은 대학의 장이 선임
- 위원장 :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 재정위원회의 권한(시안 제8조)

-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의결사항
 -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심의사항
 - 입학금·수업료 등 학생납입금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차입금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국가공무원이 아닌 연구원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 결격사유(시안 제9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
- ※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결격사유 규정

3. **국립대학의 회계**

□ 교비회계의 설치(시안 제12조)

◦ 세입

-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입학금, 수업료 기타의 납입금, 전형료, 수수료 및 교비회계에서 취득한 물품매각 대금, 이월금 등(국유재산 사용료 제외)

◦ 세출

-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

◦ 회계연도

-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
- 다만, 대학은 필요할 경우 회계연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예산의 편성 및 의결(시안 제13조)

-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
 - 국가지원 출연금은 국가의 출연 목적에 따라 편성
- 재정위원회는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 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
 - 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음

□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시안 제16조)

-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교비회계의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 교원, 강사, 조교, 직원, 연구원 등의 보수, 국가지원경비, 대학교육

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대학시설의 유지·관리비, 법령 및 계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등

□ 예산의 이용·이체와 전용(시안 제17조)

-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비회계 예산의 이용·이체와 전용 가능

□ 세출예산의 이월(시안 제18조)

-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의 세출예산중 사고이월비와 명시이월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 결산(시안 제19조)

-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교비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국립대학의 장은 결산 승인을 얻기 전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시안 제20조)

- 교비회계에서 세입·세출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교비회계의 **다음 연도 자체계정의 세입에 이입**
 - 다만, 국가지원 출연금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입학금과 수업료 등(시안 제21조)

- 교육과정 등의 수준과 학부모 부담 및 물가 등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립대학의 장이 결정

4. 발전기금

□ 발전기금의 설치(시안 제22조)

- 발전기금을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행 이전 설립된 종전의 발전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동법에 따른 발전기금이 그 성립과 동시에 승계
 - ※ 현재, 국립대학의 발전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시안 제25조, 제26조)

- 국립대학의 장 및 발전기금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 가능
- 국립대학의 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자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기부자로서 생계가 곤란하게 된 자 등에 대해서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의 보조 가능

□ 차입금(시안 제27조)

- 국립대학의 장은 자체수입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교육·연구 및 학생의 후생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전기금을 채무자로 하여 차입 가능

□ 수익사업(시안 제28조)

-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목적 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발전기금을 사업의 관리·운영자로 하여 수익사업 가능

5. 재정·회계의 운영 등

□ 회계 간 전입·전출(시안 제29조)

-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등 각종 회계의 재원의 일부를 다른 회계에 전입·전출하여 사용 가능

□ 종합재무제표의 작성(시안 제30조)

- 국립대학의 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등을 종합한 재무제표 작성

□ 예·결산의 공개(시안 제31조)

-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 및 발전기금회계의 예산 및 결산을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그 내역을 대학 안의 신문과 인터넷에 공개
-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와 국가 출연금의 세출내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 연구원 등의 채용 등(시안 제32조)

- 교비회계 또는 발전기금회계를 재원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닌 연구원과 직원 등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연구보조비 등의 지급(시안 제33조)

-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공무원인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교비회계 또는 발전기금회계의 재원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보수 외에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연구지원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재산관리(시안 제34조)

- 교비회계 및 발전기금이 취득한 시설과 토지는 국가 재산으로 하되, 발전기금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그 소유로 할 수 있음

6. 부 칙

- 시행일(시안 부칙 제1조) : 2010년 3월 1일
- 기성회회계의 폐지(시안 부칙 제3조)
 - 종전의 기성회회계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
 - 동법 시행 당시 기성회회계의 부담으로 임용된 자는 교비회계 또는 발전기금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
- 국가 출연금의 규모(시안 부칙 제6조)
 - 국가 출연금의 규모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행 전의 국고에 납부한 세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결정

IV. 향후 추진일정

- 2차 공청회 개최 : 7월 중순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교과부)안 확정 : 7월 중순
-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 추진 : 7월말 ~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국회 제출 : 9월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행 : 2010년 3월 1일

【붙임 1】

국립대학 등의 문제제기 사항에 대한 교과부 입장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문제제기 사항	교과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지원 - 인건비를 제외한 국립대학 운영경비를 총액으로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규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추진 - ‘국가는 불가상승률, 국가재정규모 확대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라고 시안을 수정하여 기획재정부와 재협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를 출연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의 취지에 어긋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추진 - 인건비도 출연금 형태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재협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평가 - 국립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에 반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학의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로 인해 정부의 대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이로 인해 재정지원이 축소 될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 시안에서 삭제하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위원회 구성 - ‘해당 국립대학의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 인사 또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인사’, ‘대학교육 및 운영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기타 회계규칙이 정하는 인사’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 -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이 명시적으로 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 ‘해당 국립대학의 교직원’을 ‘해당 국립대학의 교원 및 직원’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재정위원회에 참여함을 명시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 학생을 포함하여 재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안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과 - 국립대학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됨을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 반영 - ‘대학의 장’으로 특정하지 않고 대학의 회계규칙으로 자체적으로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도록 시안 수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문제제기 사항	교과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위원회의 권한 -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 '입학금과 수업료', '차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권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비회계 예·결산 이외에는 심의권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학의 장의 재정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심의사항의 경우 '대학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비회계 세입·세출 - 국가의 출연금, 입학금, 수업료, 수수료 등을 세입으로 규정 - 국유재산 사용료는 세입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유재산 사용료도 대학에서 자체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추진 - '국유재산 사용료'도 교비회계의 자체세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재협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국립대학의 장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 가능 - 다만, 국가의 출연금은 출연목적에 따라 편성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출연금의 경우 출연목적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운영 자율성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추진 - 국가 출연금의 경우 목적을 정함이 없이 총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재협의 추진 - 다만, 대학의 특별한 수요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목적을 정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의 이용·이체와 전용 -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비회계 예산의 이용·이체와 전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회계규칙에 따라 예산을 이용·이체와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정위원회의 유명무실화 및 대학의 장의 전횡적인 재정운영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이용·이체와 전용의 범위를 규정하는 회계규칙에 관한 사항을 재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 등의 채용 등 -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 또는 발전기금회계를 재원으로 연구원과 직원 등을 2년을 초과하여 채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 - 해당조항 삭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문제제기 사항	교과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회회계 직원의 고용 승계 - 교비회계 또는 발전기금의 직원으로 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회회계 직원을 교비회계 외에 재정규모가 적은 발전기금회계의 직원으로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 불안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 기성회회계 직원의 경우 교비회계 직원으로 한정하여 승계하도록 시안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 선임 - 국립대학의 장이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장이 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경우 대학의 장의 전횡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반영 - 대학의 장이 대학구성원과 협의를 거쳐 위원을 선임하도록 시안 수정

【붙임 2】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학교육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45조의 부설학교는 제외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지원 및 평가)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한다.
- ② 제1항의 재정 지원을 함에 있어 국가는 인건비를 제외한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12조에 의한 교비회계에 출연한다.
- ③ 국립대학의 장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의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의 국립대학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국립대학에 대하여 총액으로 지원하거나 목적을 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정과 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국립대학의 장은 당해 국립대학의 재정과 회계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규칙)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 운영 및 제 10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회계규칙의 기재사항, 개정절차,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재정위원회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에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는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수는 회계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1. 해당 국립대학의 교직원
2. 동문
3. 지역사회 인사 또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인사

4. 대학교육 및 운영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5. 기타 회계규칙이 정하는 인사
 -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중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12조에 의한 교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입에 해당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제27조의 차입금에 관한 사항
 5. 제28조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제3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이 아닌 연구원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계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⑦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장 국립대학의 회계

제10조(회계의 구분) 국립대학의 회계는 다음 각호의 회계로 구분한다.

1. 제12조에 의한 교비회계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회계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회계(「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회계를 포함한다)
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치과병원회계(「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회계를 포함한다)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6. 제24조에 의한 발전기금회계
7. 「국가재정법」 제4조에 의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1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교비회계) ① 국립대학에 대학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교비회계(이하 “교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교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및 시간제 등록제 등에 의한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의 납입금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의 수업료
4.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의 전형료
5.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6. 수수료 및 교비회계에서 취득한 물품매각 대금
7. 제10조제2호 내지 제6호로부터의 전입금
8. 이자 수입
9. 기타 회계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③ 교비회계의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한다.

- ④ 교비회계의 회계연도는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도 2월 말일에 종료 하되, 필요할 경우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은 국가의 출연목적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재정위원회는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 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③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 예산안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제14조(예비비)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재정위원회에서 새로운 회계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교비회계의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원, 강사, 조교, 직원 및 제32조에 의한 연구원 등의 보수
2. 국가지원경비
3. 대학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4. 대학시설의 유지·관리비
5. 법령 및 계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6.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제17조(예산의 이용·이체와 전용)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비회계의 예산을 이용·이체와 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이체와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 재정위원회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은 명시이월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결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교비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기 전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교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출

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제27조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입학금과 수업료 등) 국립대학의 장이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정하는 때에는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등의 수준과 학부모·학생의 부담 및 물가 등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발전기금

제22조(발전기금의 설치)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의 중·장기적 교육·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 할 수 있다.

② 발전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③ 발전기금은 국립대학의 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④ 발전기금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립대학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국립대학의 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으며, 발전기금을 대표할 수 있다.

⑥ 발전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해당 국립대학의 교비회계에 귀속한다.

⑦ 발전기금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제55조 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발전기금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⑧ 국립대학의 장은 공무원인 교직원 및 제32조에 의한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발전기금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정관) 국립대학의 장이 발전기금을 법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대표자를 제한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24조(발전기금회계) ① 발전기금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산학협력단의 세입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제1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5. 차입금
6. 이자 수입

7. 기타 회계규칙이 정하는 수입

② 발전기금은 그 목적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③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의사, 재원의 성격과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명칭을 따로 부여하는 기금을 둘 수 있으며, 각각의 기금을 따로 계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 이상 기부한 자에 대하여는 발전기금 사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국립대학의 장 및 발전기금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다.

제26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국립대학의 장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의 기금별로 명칭을 정함에 있어 기부자의 성명을 붙일 수 있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자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기부자로서 생계가 곤란하게 된 자 등에 대해서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차입금)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육·연구의 개선을 위하여 특별한 자금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전기금을 채무자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 그 차입이 국고의 부담을 수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수익사업)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목적 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발전기금을 사업의 관리·운영자로 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회계는 발전기금회계에 두되, 별도의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제5장 재정·회계의 운영 등

제29조(회계 간 전입·전출)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원의 일부를 다른 하나 또는 수 개의 회계에 전입·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대학병원회계(서울대학교병원회계를 포함한다), 치과병원회계(서울대학교치과병원회계를 포함한다)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는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로부터 재원을 전입 받을 수 없다.

제30조(종합재무제표의 작성)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연도마다 제10조의 각호의 회계를 종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재무제표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로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결산의 공개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 및 발전기금회계의 예산 및 결산을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제30조의 종합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와 제1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의 세출내역서를 재정위원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비회계 또는 발전기금회계를 재원으로 회계규칙 또는 발전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보수,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국

가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공무원이 아닌 연구원과 직원 등(이하 “연구원 등”이라 한다) 필요한 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있어 교비회계를 재원으로 한 경우에는 국립대학의 장이,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대표자가 고용주가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무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이 종료된 연구원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연구원 등에 대하여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의교수, 연구교수 등 그에 적절한 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33조(연구보조비 등의 지급)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공무원인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교비회계 또는 발전기금회계의 재원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보수 외에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연구지원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재산관리) ① 교비회계 및 발전기금이 취득한 시설과 토지는 국가 재산으로 한다. 다만, 발전기금은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그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이 소유하는 시설과 토지의 취득, 등록 등 재산의 사용에 대한 관련 세법의 적용에 있어 발전기금은 이를 설치하고 있는 당해 국립대학으로 본다.

제35조(회계운영기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립대학의 회계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교비회계 연도 구분) 2010년 1월 및 2월에 수입되는 2010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 등은 2010년도 교비회계 수입으로 한다.

제3조(기성회회계의 폐지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기성회회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2010년 2월말일 기준의 기성회회계 결산잔액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귀속한다.

③ 종전의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연구지원보조비 등은 교비회계 등의 수입으로 계속 지급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기성회회계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는 해당인의 채용 계약조건에 따라 교비회계 또는 발전기금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제4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이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발전기금(이하 “종전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그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발전기금의 성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발전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성립된 발전기금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종전의 발전기금의 명의를 이 법에 의한 발전기금의 명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발전기금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전기금의 부담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 중

인 자에 대하여는 해당인의 채용 계약조건에 따라 교비회계 또는 이 법에 의한 발전기금의 직원으로 승계하여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④ 종전의 발전기금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연구지원보조비 등은 이 법에 의한 발전기금의 수입으로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 선임) 최초의 재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국립대학의 장이 선임한다.

제6조(국가 출연금의 규모) 이 법 시행 연도에 편성하는 제1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의 규모는 이 법 시행 전의 국고에 납부한 세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Ⅱ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차례 】

I. 추진 배경	108
II. 사업 개요	110
III. 사업 신청	118
IV. 선정 평가	123
V. 사업 관리	127
VI.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130
별첨 : 정량평가 지표 설명서	131

I. 추진 배경

□ '창의적 실용지식 창출 역량' 제고로 미래 국부의 원천 확보

- 우수한 연구역량을 지닌 교수 1명의 창의적인 연구가 새로운 지식기반 산업 창출

< 사례 >

- MIT대 Erwin Jacobs 교수, 퀄컴(Qualcomm)사 창업('85년), CDMA 기술 개발 : 우리나라 이동통신업체로부터 매출의 5%를 로열티 수입 ('95년 ~ '06년 3조 4천억원)
- 하버드대 제임스 왓슨 교수는 DNA구조를 해석하여 노벨상을 수상하고 생명공학분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킴

-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수·연구자 중심의 지원 전략 필요
 - 연구의 양적 측면은 국제적 수준이나 질적 수준은 미흡한 실정
 - ※ SCI 논문수는 '06년 세계 11위로 향상되었으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논문당 피인용횟수는 28위에 불과

□ 최고 교수진 보유로 '대학 경쟁력' 제고

- 대학의 질은 '교수의 질'을 넘어서지 못함
 - 국제적 수준의 저명학자(Star Faculty) 부족으로 국내 대학의 국제적 명성과 경쟁력 제고에 한계
 - ※ 피인용횟수가 많은 연구자 수('07년 ISI사 기준) : 미국 3,929명, 독일 256명, 일본 253명, 캐나다 182명, 호주 107명, 한국 3명
- 국내대학의 외국인 전임 교원수는 전체의 3.75%('06년, 2,078명)에 불과하여 국제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주요 원인
 - ※ '06년 주요 아시아대학 외국인 교원 비율 : 서울대 0.4%(8명 / 1,773명), 청화대 12.8%(1,000명 / 7,777명), 동경대 5%(250명 / 5,000명)

< '07년 The Times 평가 200위 이내 아시아 국가의 주요대학 현황 >

국가	대학명	순위	세부 점수					
			동료 평가	고용자 평가	교수/학생비율	교수당 인용점수	외국인 교수	외국인 학생
한국	서울대	51	92	54	80	79	16	24
	KAIST	132	65	27	64	85	53	28
홍콩	홍콩대	18	95	90	85	79	100	89
	중문대학	38	83	79	80	80	100	85
	과학기술대학	53	84	82	28	92	100	96
	홍콩 시립대	149	62	51	37	76	100	51
싱가폴	싱가폴 국립대	33	100	93	34	84	100	100
	난양대학교	69	81	82	37	72	100	99

□ 'Brain Drain ⇒ Brain Gain' 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

- 최근 이공계 연구자의 경우 열악한 연구여건으로 인해 미국 유학을 선호하며 현지 정착률도 높아지는 추세
 - ※ 한국인의 미국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의 현지 정착률('06. NSF) : 20.2%('92 ~ '95년) → 31.3%('96 ~ '99년) → 46.3%('00 ~ '03년)
- 연구 역량이 높은 해외 주재 국내학자가 국내 대학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외 인재유치를 위한 대형 국책사업 필요

< 해외 인재 유치 정책 사례 >

- 사우디 : '09년 개교 예정인 킹압둘라 과학기술대(KAUST)에 초일류 교수진과 연구인력,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100억달러 투자
 - ※ 현 싱가포르 국립대 총장(시춘풍)을 총장으로 내정
- 싱가포르 : MIT 및 스탠포드 분교 유치, 미래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복제 양 돌리의 연구자인 영국의 콜먼 박사 영입 등 추진
- 중국 : 높은 수준의 연구인력 풀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 100위권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우수인력 1,000명 초빙(111공정)

II. 사업 개요

① 사업 목적

-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연구 추진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 기초과학의 새로운 전공분야, 지식기반 서비스 및 신산업창출 기반 분야를 집중 육성
- World Class Faculty ⇒ World Class Dept. ⇒ World Class Univ.
 - 연구 역량이 높은 해외학자 확보를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품토를 혁신하고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② 지원 분야 :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

- 예시 : NBIC(Nano Bio Info Cogno) 융합기술 분야, 와해성 기술분야 (Disruptive Tech), 돌파형 기술분야(Breakthrough Tech), 에너지 과학, 바이오제약, 임베디드 S/W, 인지과학(뇌과학 등), 금융수학(Financial Mathematics)/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 Digital Storytelling, 인재·조직개발(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우주·국방 분야 등
-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학문 영역내 또는 학문 영역간 융복합 분야로써, 국가사회발전과 학문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공 분야
 - 융복합 예시 : 경영(인사/조직관리)+ 산업/성인교육, 디자인/예술+ 공학, 수학+ 전산+ 경영, 생물/물리+ 철학,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 신성장동력 분야 : 창의적 지식과 혁신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로
미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인문사회분야 포함)

3 지원 유형

① 전공·학과 개설 지원 과제



- 연구 역량이 높은 해외학자를 **전일제 교수**로 유치·채용 전제
 - 해외학자 : 해외 소재 대학·연구소·기업체 소속의 교수/연구원(외국 국적 학자, 외국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 한국국적 학자)
 - ※ 해외학자 채용 시, 국립대의 경우 '08년 기 배정된 외국인교원 정원(151명) 활용 가능(외국인교원에게 지원되는 국고인건비 분은 사업비 신청 시 제외)
 - 전일제 교수 : 고등교육법 제14조②에 따른 교원, 기금교수, 초빙교수, 연구 교수 등 다양한 형태로 채용하되 전일제(Full - Time)로 근무하는 교수
 - 유치기간 : 최소 3년 이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유치 인력의 수준에 따라 채용기간 탄력적 적용

- 조교수(assistant professor)급 이하 :최소 3년 이상 전일제(Full-Time) 교수로 임용
- 부교수(associate professor)급 이상 : 최소 3년 이상 유치하되 연간 1개 학기 이상 전일제(Full-Time) 교수로 임용
 - ※ 학기 : 당해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정규학기(계절학기 제외)

◦ **해외학자와 국내 참여교수 구성 비율**

- 참여교수 7~10명(해외학자 포함) : 해외학자 40%이상 유치
- 참여교수 11~20명(해외학자 포함) : 해외학자 35%이상 유치
- 참여교수 21명(해외학자 포함) 이상 : 해외학자 30%이상 유치
 - ※ 해외학자 인원 산출 시 소수점 올림
 - (예: 참여교수 8명일때, $8 \times 0.4 = 3.2 \rightarrow$ 해외학자 4명 유치)
 - ※ 해외학자의 경우 1차년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50%이상, 나머지는 2차년도 내에 유치

◦ **해외학자와 국내 참여교수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전공·학과 운영**

- **대학원 과정 또는 학부 과정에 새로운 학과/전공을 개설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학위 과정을 운영**
 - 대학원 과정의 경우 2009학년도 2학기 학위과정 운영 개시
 - 학부 과정의 경우 2010학년도 1학기 학위과정 운영 개시
 - ※ 새로운 학과/전공 운영을 위해, 학부 과정의 경우 해당 대학이 보유한 총정원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운영하고, 대학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증원 신청 운영
- **운영 모형 및 소속교수 편제 원칙**
 - ① 학부과정에 학과/전공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 기존 학부에서 새로운 전공 개설 시, 타 학부 또는 학과 소속 교수 참여자는 소속을 변경 하여야 하며, 신규학과/전공을 개설하는 경우 모든 참여교수를 동 신규학과/전공 소속으로 편제하여 운영하여야함 (겸임발령을 통한 운영 불가)

- ②대학원과정에서 학과/전공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 : 참여교수는 모두 해당 신설 학과/전공 학생의 교육과 지도를 위해 대학원 전임교수(대학원 학과/전공 교수)로 소속을 변경하여야 함
(겸임발령을 통한 운영 불가) 전문대학원으로 신설 운영도 가능
- ③신설 학과/전공을 학부 및 대학원 두 과정 동시에 개설 운영하는 경우 : 참여교수는 학부 학과 또는 대학원 학과 중 어느 하나에 선택하여 소속되도록 운영
- ※ 참여교수 소속 변경은 대학원 및 학부 과정에서 학위과정 운영 시점까지 완료하여야 함

② 개별학자 초빙 지원 과제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융복합을 선도할 수 있는 해외학자를 전일제 교수로 기존 학과에 유치·채용 전제
 - 전일제 교수로 채용·활용 : 해외학자를 기존 학과에 유치하여 전일제 교수로 수업 및 국내 참여교수와 공동연구 수행
 - 국내대학 내 연구 Lab 설치 및 공동연구 : 해외학자를 국내 대학 학과 또는 연구소에 유치하고 연구전담교원으로 활용하여 국내참여교수와 공동연구 수행
 - 유치기간 : 최소 3년 이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유치 인력의 수준에 따라 채용기간 탄력적 적용

- 조교수(assistant professor)급 이하 : 최소 3년 이상 전일제(Full-Time) 교수로 임용
- 부교수(associate professor)급 이상 : 최소 3년 이상 유치하되 연간 1개 학기 이상 전일제(Full-Time) 교수로 임용
- ※ 학기 : 당해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정규학기(계절학기 제외)
- ※ 유치 예정 해외학자는 1차년도(신청마감일 기준 12개월이내)에 모두 유치

- **해외학자가 포함된 연구팀 구성·운영**
 - 해외학자 1명과 국내교수 1 ~ 4명 또는 해외학자 2명과 국내교수 2 ~ 6명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③ 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 과제

- 세계 최고수준의 석학(첨단 핵심기술자 포함)을 비전일제 교수로 초빙·활용 지원
 - 교육·연구 등 학술활동 수행을 전제하되 학술활동 내용의 실효성 심사를 통해 지원
 - 연간 2개월 이상 학술활동 계획(공동연구계획, 강의·특강활동계획, 기타 연구·실험자문계획 등)이 포함된 과제 **우선 지원**
 - 특히, 신성장동력 분야의 해외석학 또는 첨단 핵심기술자 유치를 우선 하되, 국내 대학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석학도 지원 가능
 - ※ 세계적 석학 : 노벨상 수상자, 미 공학한림원(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회원, 세계수준의 연구업적 보유학자 등 해당분야 최고수준의 연구업적 성취 학자, 세계적인 첨단 핵심기술력 보유자
 - 첨단 핵심기술자를 초빙하여 기술개발 및 연구에 활용도 가능
- 유치·활용기간 : 1~3년 이상 유치·활용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2개월(비연속 체류도 가능) 이상 국내 체류를 전제로 함
 - ※ 단, 노벨상 수상자의 경우는 연간 2개월 미만 체류의 유치 활용도 허용하되, 교육 또는 학술연구 측면에서 유치·활용계획의 실효성 정도와 해당대학 및 학과의 발전에 있어 가능성 정도가 높다고 평가 되는 경우에 심사하여 선정 지원
 - ※ 해외석학(첨단 핵심기술자 포함)은 1차년도(신청마감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유치·활용되어야 함

4 지원 예산 및 사업비 운영

- 총 8,250억원 (연 1,650억원, '08년 ~ '12년)
 - ※ '08년 사업 재원 : ①구 교육부 세계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1,000억원), ②구 과기부 세계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250억원), ③지방대학원 특화분야 육성 사업(균특회계 400억원)
- 3개 사업을 통합하여 동일한 형태의 WCU사업으로 추진하여 효과성 제고
 - 지원과제·지원내용·평가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사업 신청 단계에서 전국단위(1,250억)와 지방단위(400억)로 분리하고 독립된 경쟁체제로 추진(지방대학 중 경쟁력있는 팀 또는 연구자의 경우 전국단위에도 신청 허용)
 - ※ 지방소재 대학 분교는 지방대학에 포함
 - ※ 질 담보를 위해 전공패널별 상대평가를 하되, 전국 및 지방 단위에 최소기준(과락 점수) 설정
 - 구 과기부 사업(250억)은 KAIST 및 GIST에 대한 지분권 인정없이 통합하여 '완전 공모경쟁' 방식으로 추진
- 유형별 사업비 배분
 - 전일제 교수 채용을 전제로 하는 <유형 1>, <유형 2>와 비전일제 교수로 석학 또는 첨단 핵심기술자를 초빙하는 <유형 3>의 예산 구분

- <유형 1>과 <유형 2>는 신청을 받은 후에 신청 과제 수, 유치 예정인 해외 학자의 수, 국가 차원의 육성 분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사업비와 세부 전공 패널별 지원 과제수를 사업총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유형 3>의 경우 전체 지원 과제수를 최대 200억원 분량까지만 지원 (지원분량 200억원은 전국단위 및 지방단위 모두 포함하며,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분량 배분)
- 심사 후 과락 등으로 인해 배분된 사업비가 남게되는 경우, 사업총괄관리위원회가 유형간 또는 유형내 전공 패널간 사업비를 추가 배정·지원

5 지원 항목 및 내용

◦ 지원 항목

① 인건비 및 직접비

- 인건비

▪ 해외학자 인건비

▪ 전문 지원인력(Staff) 인건비 (1인 기준 3,500만원 이내)

- 직접비

▪ 해외학자 및 국내 참여교수의 연구비(석·박사과정생 등 공동연구 인력의 인건비 등)

▪ 해외학자를 위한 연구실 설치, 연구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용

② 간접비 및 부대경비 : '08년도 사업비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의 30%를 적용하여 지원

◦ 유형별 지원내용

- 지원유형의 예시단가를 참조하여 신청하되 유치·활용할 해외 학자의 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하여 지원

- 심사평가 시 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유형별 예시단가

① 전공학과 개설 지원 과제(유형 1)

▪ 해외학자 인건비 : 연 3억원 내외

- 전공 영역 및 초빙학자 수준(노벨상급, 저명 교수 등)에 따라 실비 계상 가능

▪ 연구비

- 해외학자 및 국내 참여교수 연구비 : 1인당 연 1억원 이내

- 해외학자의 연구 Lab 및 장비 지원 : 연 2억원 이내 (인문사회 예외)

▪ 전문 지원인력(Staff) 인건비 : 1인 기준 3,500만원 이내

※ 예시단가 적용시 : 10명 팀(해외학자 5명, 국내학자 5명)

→ 36.75억원

② 개별학자 초빙 지원과제(유형 2)

- **해외학자 인건비** : 연 3억원 내외
 - 전공 영역 및 초빙학자 수준(노벨상급, 저명 교수 등)에 따라 실비 계상 가능
- **연구비**
 - 해외학자 및 국내 참여교수 연구비 : 1인당 연 1억원 이내
 - 해외학자의 연구 Lab 및 장비 지원 : 연 2억원 이내(인문사회 예외)
- **전문 지원인력(Staff) 인건비** : 1인 기준 3,500만원 이내
 - ※ 예시단가 적용시 : 3명 팀(해외학자 1명, 국내학자 2명)
→ 8.35억원

③ 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 과제(유형 3)

- **세계적 석학 또는 첨단 핵심기술자 인건비 등** : 연 1억원 이내
 - 초빙 수당, 국내 체류비, 교통비 등
- **학술 및 연구 활동비, 기술협력 및 개발비 등** : 연 1억원 이내
 - 공동연구가 있는 경우 석학과의 공동연구비 지원
- 1인당 연구비 포함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되, 총 지원 금액을 200억원으로 한정
 - ※ 단일 대학(분교 포함)에 최대 5개까지만 선정(신청개수는 제한 없음)

◦ 사업비의 지급

- 해외학자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비와 간접비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시에 지급하고 사후 정산
- 해외학자 인건비의 경우에는 유치할 해외학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입국 후 활용을 시작하는 시점에 실비 지급

III. 사업 신청

① 신청 자격

- 해외학자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소속의 개별교수 및 연구팀**
 - 유형 1,2과제 : **연구책임자 신청(당해 대학 총장 협약서 첨부)**
 - 유형 3과제 : 과제책임자(공동연구시 연구책임자)와 당해 대학 총장 공동명의 신청

② 연구책임자 및 참여교수의 자격 조건

- 연구책임자, 참여교수(공동연구교수), 해외유치인력은 **3가지 유형의 과제 중 1개 과제에만 참여 가능**
- **연구(과제) 책임자**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대학 소속의 교원 또는 초빙예정 해외 학자**로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자
 - ※ 단, 연구책임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초빙예정 해외학자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국내에 유치되어 당해 대학 전일제 교수로 임용되어야 함
 - ※ 유형3과제의 과제책임자(공동연구시 연구책임자)는 신청대학 소속의 교원으로 한정
 - ERC, SRC, NCRC,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등 연간 5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 연구책임자(BK사업단장 제외)**는 본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없음
 - 단, 참여교수로는 신청 가능하며, 사업선정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로 신청 가능

◦ **참여교수**

- 국내 참여교수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대학 소속의 교원**
- 해외 참여인력
 - 해외학자 : 해외소재 대학·연구소·기업체 소속의 교수/연구원(외국국적 학자, 외국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 한국국적 학자)
 - 세계적 석학 : 노벨상 수상자, 미 공학한림원 회원, 세계수준의 연구업적 보유 학자 등 해당분야 최고 연구업적 성취 학자, 세계적인 첨단 핵심기술력 보유자

③ 과제 신청 및 선정 제한

- <유형 1 : 전공·학과 개설 지원 과제>의 경우 **1개 대학(분교 포함)은 동일한 전공분야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유형 3 : 세계적 석학 초빙 과제>의 경우 **1개 대학(분교 포함)의 신청수는 제한하지 않되, 최종 선정수는 최대 5개까지만 지원**

④ 제출 자료

※ 제출 자료는 별도로 제공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유형 1 : 전공·학과 개설 지원 과제 >

- **해외학자 유치·활용 계획서**
 - 신설 전공·학과 분야의 타당성
 - 전공·학과 구성 인력의 적합성 및 우수성(해외학자 포함)
 -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적합성
 - 참여교수별 매학기당 담당 교과목 배분 및 학생지도계획의 적절성

- 공동연구 계획서(국문 1부, 영문 1부)

※ 필수 첨부 자료 : 신청 대학과 해외학자간의 가계약 증빙서류, 해외 학자의 3년이상 전일제 교수 채용 증빙자료(총장 확인 포함)

◦ **연구팀의 최근 5년간 연구 실적 : '03. 1. 1 ~ '07. 12. 31**

- 학문분야별 상위 10% 저널에 게재된 논문 목록(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여부 표시)

- SCI(E), SSCI, A&HCI, SCOPUS급, *해외 유명 저널(인문사회에만 해당)에 게재된 논문 목록

- SCI(E), SSCI, A&HCI, SCOPUS급, *해외 유명 저널(인문사회에만 해당)의 편집위원(Editor, Editorial Board Member 등) 경력 증빙자료

* 해외 유명 저널은 전공 패널 심사에서 심의인정

- 연구책임자로 연구비를 지원 받은 금액

- 국내 및 해외 특허 등록 실적

◦ **대학의 여건 및 지원 계획**

- 대학의 해당분야 지원 계획

- 교육·연구 인프라 여건 : 대학원생수 대비 최근 5년간 박사학위 배출 실적, 교원 1인당 학생수(학부생수+대학원생수), 학부생 수 대비 대학원생 수(특수대학원생 제외)

- 총장 명의 협약서 : 정부 지원 종료 후, 사업을 통해 개설된 전공학과의 지속적 운영 및 유치인력의 계속 채용 등 학교차원의 지원 담보

◦ **Int'l Peer Review를 위한 팀당 대표논문 최소 10건 제출(1인당 1건 이상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팀원이 10명이상인 경우 팀원 수 만큼 제출)**

※ 대표논문 : 공동논문의 경우 주저자(First Author) 및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로 게재된 논문만 인정

< 유형 2 : 개별학자 초빙 지원 과제 >

◦ **공동연구 및 활용 계획서**

- 유치 분야의 타당성
- 유치 인력 및 구성 인력의 적합성 및 우수성
- 공동연구 계획서(국문 1부, 영문 1부)
- 교육계획이 있는 경우 교수 계획서

※ 필수 첨부 자료 : 신청 대학과 해외학자간의 가계약 증빙서류,
해외학자의 3년 이상 전일제 교수 채용 증빙자료(총장 확인 포함)

◦ **연구팀의 최근 5년간 연구 실적 : '03. 1. 1 ~ '07. 12. 31**

- 학문분야별 상위 10% 저널에 게재된 논문 목록(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여부 표시)
- SCI(E), SSCI, A&HCI, SCOPUS급, *해외 유명 저널(인문사회에만 해당)에 게재된 논문 목록
- SCI(E), SSCI, A&HCI, SCOPUS급, *해외 유명 저널(인문사회에만 해당)의 편집위원(Editor, Editorial Board Member 등) 경력 증빙자료
- * 해외 유명 저널은 전공 패널 심사에서 심의인정
- 연구책임자로 연구비를 지원 받은 금액
- 국내 및 국외 특허 등록 실적

◦ **대학의 여건 및 지원 계획**

- 대학의 해당분야 지원 계획
- 교육·연구 인프라 여건 : 대학원생수 대비 최근 5년간 박사학위 배출 실적, 교원 1인당 학생수(학부생수+ 대학원생수), 학부생 수 대비 대학원생 수(특수대학원생 제외)
- 총장 명의 협약서 : 정부 지원 종료 후, 유치인력의 지속 채용 등 학 교차원의 지원 담보

- Int'l Peer Review를 위한 팀당 대표논문 최소 5건 제출(1인당 1건 이상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팀원이 5명이상인 경우 팀원 수 만큼 제출)
 - ※ 대표논문 : 공동논문의 경우 주저자(First Author) 및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로 게재된 논문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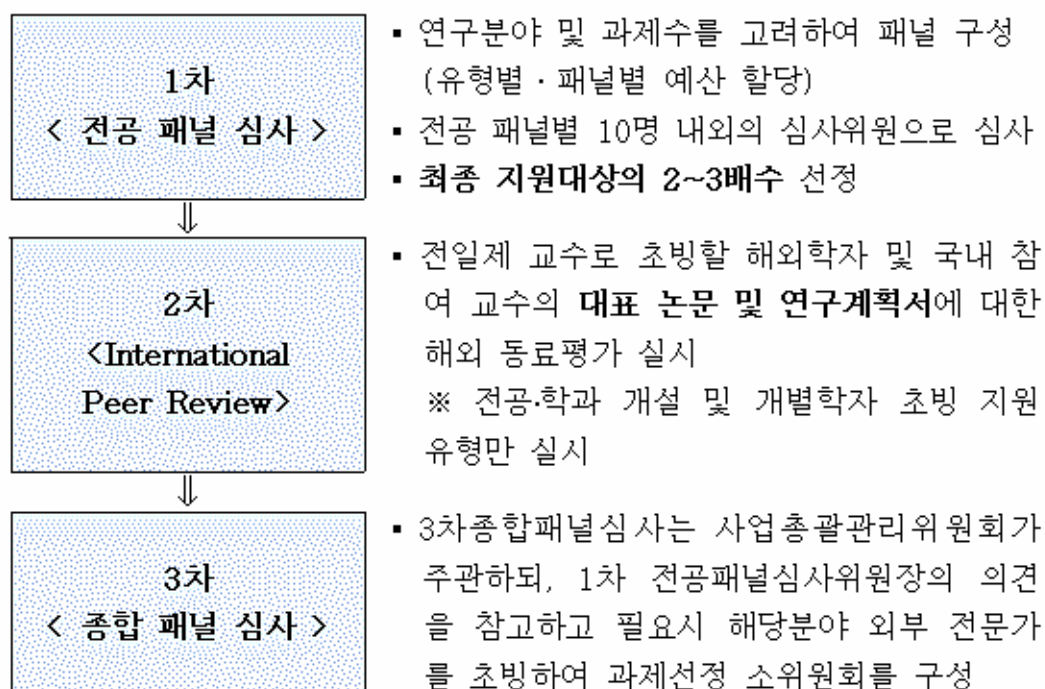
< 유형 3 : 세계적 석학초빙 지원 과제 >

- 세계적 석학(첨단 핵심 기술자) 유치·활용 계획서
 - 유치 인력의 적합성 및 우수성
 - 해외학자(첨단 핵심 기술자) 유치 및 활용 관련 세부계획(공동연구계획서, 강의·특강활동계획서 등 포함)
 - ※ 필수 첨부 자료 : 신청 대학과 석학간의 가계약 증빙서류(총장 확인 포함), 노벨상 수상, 미 공학한림원 회원, 세계수준의 연구업적 보유 증빙 서류 등
- 대학 차원의 석학 지원사업의 활성화 계획서

IV. 선정 평가

1) 심사 절차 및 선정

◦ 심사 절차



◦ 최종 선정

- ①전공패널심사 결과(60%), ②Int'l Peer Review 결과(30%), ③종합패널심사 결과(10%)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 결정
 - ※ 전공패널심사의 경우 40점/60점을 최소기준(과락기준)으로 설정하고, 해외동료평가 결과, 종합패널심사 결과와의 합산에 의해 최종순위를 결정
 - ※ 해외동료평가의 경우 3~5등급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고, 종합패널심사시 1,2차 심사 결과, 국가사회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평가결과가 최소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형별·패널별 할당된 예산이 남더라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유형별 심사항목

< 유형 1 : 전공·학과 개설 지원 과제 >

심사	평가지표	배점
전공 폐널 심사	·유치·활용 계획서 평가 : 45% - 신설 전공·학과 분야의 타당성 - 전공·학과 구성 인력의 적합성 및 우수성(해외유치인력 포함) -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적합성 - 참여교수별 매학기당 담당 교과목 배분 및 학생지도계획의 적절성 - 연구계획서(Research Proposal)의 우수성 - 연구 및 교육의 학문적·경제사회발전 기여도	5% 10% 5% 5% 10% 10%
	·연구팀 1인당 연구실적 평가 : 45% ※ 연구실적 산정 기간 : 최근 5년간 - 학문분야별 상위 10%저널에 게재된 논문 수(인문사회분야의 경우 SSCI, A&HCI 및 SCOPUS급 저널, 해외 유명 저널에 게재된 논문수, 해외 유명 저널은 전공폐널심사에서 실의인정) - 연구팀 피인용 총횟수 - 논문 1건당 피인용횟수 - SCI(E), SSCI, A&HCI, SCOPUS급 학술지의 Editor 경력(인문사회분야의 경우 해외 유명 저널 포함, 해외 유명 저널은 전공폐널심사에서 실의인정) - 연구비 수주 실적 - 국내 및 해외 특허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인문사회 10%:10%:10%:25% 10%:10%:5%:5% 10%:10%:5%:5% 10%:10%:10%:10% 5%:5%:10%:- -:-5%:-
	·대학의 여건 및 지원계획 평가 : 10% - 대학의 해당분야 지원 계획의 충실성 - 교육·연구 인프라 여건 ① 대학원생수 대비 최근 5년간 박사학위 배출 실적 ② 교원 1인당 학생수(학부생수+대학원생수) ③ 학부생수 대비 대학원생수(특수대학원생 제외)	2% 8% (2%) (3%) (3%)
	소 계	60점
Int'l Peer Review	·전일제 교수로 초빙할 해외학자 및 국내 참여 교수의 대표 논문 및 연구계획서 - 팀당 대표논문을 10건 제출하되, 1인당 1건 이상 (팀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팀원 수 만큼 제출)	30점
종합 폐널심사	·1차, 2차 심사 결과 및 세계적 수준으로의 성장가능성 평가 ·국가 사회경제발전을 주도할 신성장동력 창출 가능 정도, 창의적 실용지식 창출 가능성, 새로운 학문 발전 선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0점
합 계		100점

< 유형 2 : 개별학자 초빙 지원 과제 >

심사	평가지표	배점				
전공 패널 심사	공동연구 및 활용 계획서 평가 : 45% - 유치 분야의 타당성 - 유치 인력 및 구성 인력의 적합성 및 우수성 - 공동연구 및 교수계획의 우수성 - 사업결과와 학문적·경제사회발전 기여도					
	연구팀 1인당 연구실적 평가 : 45% ※ 연구실적 산정 기간 : 최근 5년간 - 학문분야별 상위 10%저널에 게재된 논문 수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SSCI, A&HCI 및 SCOPUS급 저널, 해외 유명 저널에 게재된 논문수, 해외 유명 저널은 전공 패널심사에서 심의-인정) - 연구팀 피인용 총횟수 - 논문 1건당 피인용횟수 - SCI(E), SSCI, A&HCI, SCOPUS급 학술지의 Editor 경력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해외 유명 저널 포함, 해외 유명 저널은 전공패널심사에서 심의-인정) - 연구비 수주 실적 - 국내 및 해외 특허	자연 과학	생명 과학	공학	인문 사회	
		10%	10%	10%	25%	
		10%	10%	5%	5%	
		10%	10%	5%	5%	
		10%	10%	10%	10%	
		5%	5%	10%	-	
		-	-	5%	-	
	대학의 여건 및 지원계획 평가 : 10% - 대학의 해당분야 지원 계획의 충실성 - 교육·연구 인프라 여건 ① 대학원생수 대비 최근 5년간 박사학위 배출 실적 ② 교원 1인당 학생수(학부생수+대학원생수) ③ 학부생수 대비 대학원생수(특수대학원생 제외)					
						2%
						8%
						(2%)
						(3%)
						(3%)
	소 계					60점
Int'l Peer Review	전일제 교수로 초빙할 해외학자 및 국내 참여 교수의 대표 논문 및 연구계획서 - 팀당 대표논문을 5건 제출하되, 1인당 1건이상 (팀원이 5명이상인 경우, 팀원 수 만큼 제출)					30점
종합 패널심사	1차, 2차 심사 결과 및 세계적 수준으로의 성장가능성 평가 국가 사회-경제발전을 주도할 신성장동력 창출 가능 정도, 창의적 실용지식 창출 가능성, 새로운 학문발전 선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0점
	합 계					100점

< 유형 3 : 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 과제 >

심사	평가지표	비점
전공 패널 심사	·유치·활용 계획서 평가 : 90%	
	- 석학(핵심기술자)수준의 적합성 및 우수성	30%
	- 활용계획의 당해분야 교육 및 연구역량 제고 차원의 창의성·실효성	50%
	- 사업결과와 학문적·경제사회발전 기여도	10%
	·대학 차원의 석학 지원사업의 활성화 계획의 충실성 평가	10%
합 계		100점

※ 평가지표별 평가 척도는 전공 패널별 유형, 특성을 반영하여 추후 결정

V. 사업 관리

1 운영 체제



○ 사업총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학문분야별 학계 전문가, 경제·산업계, 언론계 등으로 **16명**으로 구성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 주요 기능

- 사업계획 자문
- 사업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자문
 - 과제수, 유치예정 해외학자수, 국가우선순위 등에 따라 사업비 배분 심의
 - 사업 선정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종합 패널 심사 운영
 - 기타 평가관련 주요사항 자문
- 최종 지원과제 심의

◦ **선정 평가 및 집행 위탁**

- 선정 평가 및 사업비 집행을 **한국과학재단**에 위탁
- 주요 위탁 사항

- 과제 신청 접수
- 전공패널심사, Int'l Peer Review 등 선정평가에 수반되는 사항
- 사업비 집행·관리

② 사후관리 체제

◦ **협약 체결**

- 사후관리에 요구되는 의무사항을 적시하여 협약을 구성하고 연구(과제)책임자와 **이행계약 체결**
 - ※ 협약서 및 사업 관리 규정 추후 공지 예정

◦ **과정 관리(Process Management)**

- 'Spot - Check'(임의 추출 조사)를 통해 연구수행 과정 점검
- 지원대학의 일부를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여 포괄적 지원으로 예상되는 도덕적 해이 최소화
- 지원 유형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우수사례(Best Practices)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

◦ **성과 관리 (Performance Management)**

- '사업착수년도 대비 연차별 연구실적 등 사업성과의 향상정도'를 주요 성과관리 지표로 활용

- 연차 평가 : 2009년, 2011년
- 연차별 사업비 운영, 연구성과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Annual Report)** 제출

- 과제별 최하위 사업팀의 사업비를 10% 내외에서 삭감하여 최상위 평가 사업팀에 인센티브 지원
 - 협약서상의 유치 기한내 해외인력 유치 요건 미이행 등 사업 추진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 중간 평가 : 2010년
- 과제별 최하위 사업팀의 사업비를 20% 내외에서 삭감하여 최상위평가 사업팀에 인센티브 지원
 - 협약서상의 유치 기한내 해외인력 유치 요건 미이행 등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사업비 지원 중단
- 종합 평가 : 2012년
- 사업 전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연구팀을 선정하여 포상

VI. 행정사항 및 추진 일정

① 사업 공고 및 사업 신청서 접수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 신청방법
 -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www.kosef.re.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 유형별 사업 신청서 양식 및 작성요령은 과학재단(www.kosef.re.kr) 홈페이지에 탑재

② 세부 추진 일정

추진 사항	추진 일정
▪ 사업안 확정 및 공고	6월 20일
▪ 해외 홍보 실시	7월 ~ 8월 중
▪ 사업 신청서 접수	9월 20일
▪ 전공 패널 심사	10월
▪ Int'l Peer Review 및 종합 패널 심사	11월
▪ 사업비 배정 및 협약체결	11월 하순

【 별첨 】

정량평가 지표 설명서

I. 연구실적 평가지표

- ❖ 최근 5년간 연구실적 : '03. 1. 1 ~ '07. 12. 31
- ❖ 학문분야에 따라 일부 지표 및 배점 차등 적용

1. 학문분야별 상위 10%저널에 논문 게재수(1인당)

- JCR & SCOPUS DB 기준 상위 10%

JCR	SCOPUS	Total
총 861개 저널	총 1,722개 저널	1,894개 저널

※ JCR & SCOPUS 중복저널 : 689개

※ 상위 10% 저널 목록은 한국과학재단(www.kosef.re.kr) 홈페이지 참조

<JCR DB>

• 2006년 JCR DB의 226개 분야별 IF기준 상위 10% 저널

- ※ JCR(Journal Citation Report) : 미국 Thomson사에서 제공하는 DB로 학술지에 대한 분야정보 및 피인용수 등을 제공
- ※ IF(Impact Factor : 영향력 지수)
: 해당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학술지 수록 논문의 평균 피인용 횟수
<최근 2년간 논문이 당해연도 인용된 수>/<최근 2년간 수록된 논문수>
- ※ 총 226개 분야 분류 : 이공분야(SCI) 172개, 사회과학분야(SSCI) 54개

<SCOPUS DB>

• 2006년 SCOPUS DB 기준으로 297개 분야별 상위 10% 저널

- ※ SCOPUS : 네덜란드 Elsevier사에서 제공하는 DB로 논문에 대한 분야정보 및 피인용수 등을 제공
- ※ '03년~'05년 논문이 '06년에 피인용된 횟수 기준으로 저널 선정
- ※ 총 297개 분야 분류 : 이공분야 240개, 사회과학분야 48개, 인문예술분야 9개

- JCR과 SCOPUS급 저널이 중복되는 경우, 한건만 인정
 -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SCI(E), SSCI, A&HCI, SCOPUS급,
 - * 해외 유명 저널에 게재된 논문
 - * 해외 유명 저널은 전공 패널 심사에서 심의인정
 - **논문게재 실적인정 기준**
 - 단독 논문 실적 : 1건
 - 공동 논문 실적
 - ① 주저자 및 교신저자일 경우 : 0.8건
 - ② 기타 공동저자일 경우 : 1/n건
 - ※ n :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수이며, 단 전체 저자수가 30명 이상일 경우 n은 30으로 처리
 - ※ 공동 논문 실적 산출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 '06년 Science지에 30인 공동으로 논문이 게재된 경우
⇒ 주저자: 0.80건, 교신저자: 0.80건, 기타 공동저자: 0.03건
- 점수산출 : 국내외 참여교수의 논문게재 실적 총합을 참여교수의 수로 나눔

2. 피인용 총횟수(1인당)

- SCI(E), SSCI, A&HCI 및 SCOPUS급에 수록된 최근 5년간 논문의 피인용 총횟수
 - ※ SCI(E), SSCI, A&HCI 및 SCOPUS급 논문이 중복되는 경우, 피인용 횟수가 높은 수치 적용
- **피인용 총횟수 인정 기준**
 - 단독 논문의 피인용횟수 : 100% 인정
 - 공동 논문의 피인용횟수

① 주저자 및 교신저자 : 피인용횟수 × 0.8

② 기타 공동저자 : 피인용횟수 × 1/n

※ n :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수이며, 단 전체 저자수가 30명 이상일 경우 n은 30으로 처리

※ 공동 논문의 피인용횟수 산출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 '06년 Science지에 30인 공동으로 게재된 논문의 피인용 횟수가 5일 경우
⇒ 주저자:4.00, 교신저자:4.00, 기타 공동저자:0.17

◦ 점수산출 : 국내외 참여교수의 피인용 총횟수의 총합을 참여 교수인수로 나눔

3. 논문 1건당 피인용횟수(1인당)

◦ SCI(E), SSCI, A&HCI 및 SCOPUS급에 수록된 최근 5년간 논문의 논문 1건당 피인용횟수

※ SCI(E), SSCI, A&HCI 및 SCOPUS급 논문이 중복되는 경우, 피인용 횟수가 높은 수치 적용

◦ 논문 1건당 피인용횟수 기준

- 단독 논문의 피인용횟수 : 100% 인정

- 공동 논문의 피인용횟수

① 주저자 및 교신저자 : 피인용횟수 × 0.8

② 기타 공동저자 : 피인용횟수 × 1/n

※ n :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수이며, 단 전체 저자수가 30명 이상일 경우 n은 30으로 처리

※ 공동 논문의 피인용횟수 산출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 '06년 Science지에 30인 공통으로 게재된 논문의 피인용횟수가
5일 경우
⇒ 주저자: 4.00, 교신저자: 4.00, 기타 공동저자: 0.17

- 점수산출 : 국내외 참여교수의 논문 1건당 피인용횟수의 총합을 참여교수의 수로 나눔

4. SCI(E), SSCI, A&HCI 및 SCOPUS급, 해외유명 저널의 Editor 경력(1인당)

- SCI(E), SSCI, A&HCI 및 SCOPUS급, *해외 유명 저널(인문사회에만 해당) 편집위원(Editor, Editorial Board Member 등)으로 활동한 경력
 - * 해외 유명 저널은 전공 패널 심사에서 심의·인정
 - ※ 15일 이상 활동한 경우 1개월로 인정
- 점수산출 : 국내외 참여교수가 해당저널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총 개월수의 합을 참여교수의 수로 나눔

5. 연구비 수주 실적(1인당) ※ 인문사회 분야 제외

- 최근 5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금액
 - 국내 참여교수가 정부, 민간, 외국 등에서 지원받은 연구비
 - ※ 연구비 수주 실적은 산학협력단 등 대학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연구비만 인정(BK21사업, NURI사업의 순수인력양성사업은 제외)
 - 해외학자의 경우 연구비 수주실적 별도 제출(입증자료 포함)
- 점수산출 : 국내외 참여교수의 연구비 지원총액을 참여교수의 수로 나눔

6. 국내 및 국외 특허 등록 실적 (1인당) ※ 공학 분야만 적용

◦ 최근 5년간 국내 및 국외 특허를 등록한 실적

- 등록인이 산학협력단 또는 기관(산업체, 연구소 등) 명의인 경우에만 인정

◦ 국내 특허 실적 1건 인정 기준

- 단독 발명 실적 : 1건
- 공동 발명 실적 : $1/n$ 건

※ n : 특허등록증에 등록된 전체 발명자 수이며, 단 전체 발명자 수가 30명이상일 경우 n은 30명으로 처리

※ 공동 발명 실적 산출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국외 특허 실적 1건 인정 기준 : 국내기준의 2배로 계산

- 단독 발명 실적 : 2건
- 공동 발명 실적 : $(1/n) \times 2$ 건

※ n : 특허등록증에 등록된 전체 발명자 수이며, 단 전체 발명자가 30명이상일 경우 n은 30으로 처리

※ 공동 발명 실적 산출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점수산출 : 국내외 참여교수의 국외 및 국내 특허 실적 총합을 참여교수의 수로 나눔

II. 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 여건 지표(※ KEDI 교육통계 활용)

1. 대학원생수 대비 최근 5년간 박사학위 배출 실적

◦ 산출 방법 : 박사학위 배출 실적 / 대학원생수

※ 박사학위 배출 실적 : '04년 ~ '08년 4월 1일 기준 박사학위자 수

※ 대학원생 수 : '04년 ~ '08년 4월 1일 기준 대학원생 수

2. 교원 1인당 학생수

◦ 산출 방법 : 학생수 / 전임교원 수

※ 전임교원 : '08년 4월 1일 기준 고등교육법 제14조②에 따른 교원

※ 학생수 : '08년 4월 1일 기준 학부생 수 + 대학원생 수

3. 학부생 수 대비 대학원생 수(특수대학원생 제외)

◦ 산출 방법 : 대학원생 수 / 학부생 수

※ 학부생 수 : '08년 4월 1일 기준 학부생 수

※ 대학원생 수 : '08년 4월 1일 기준 대학원생 수
(특수대학원생 수 제외)